

재난을 살아내는 중 입니다

영덕 산불 이후,
기록되지 않은
이재민 12인의 증언집

재난을 살아내는 중 입니다

영덕 산불 이후,
기록되지 않은
이재민 12인의 증언집

Contents

	추천사	007
<u>prologue</u>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이유	011
<u>part</u> 1	불이 나기 전의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던 신안리의 일상	
	1 신안리의 봄은 꽃과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047
	2 산불이 나던 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051
	3 몇십 년의 일생을 살아온 곳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055
<u>part</u> 2	불길이 지나간 신안리의 모습	
	4 평범한 일상 속에 산불이 내려왔다	061
	5 발 앞에 떨어지는 불똥을 보고서야 도망쳤다	065
	6 그날 밤, 3시간 사이에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069
<u>part</u> 3	12인의 증언	
	7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075
	8 기후재난 이후 오랜 시간 이재민들은 임시의 시간을 보내왔다	093
	9 재정 지원 계획의 규모는 발표되었지만, 삶에 스며들지 못했다	126

part

4

10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157

공동체 회복 지원이 없는 재난 대응의 결과

11 재난 대응은 진행되었지만, 이재민의 삶은
혼란스러웠다 211

12 커다란 복구 예산 뒤에 사람들의 삶은 소외되었다 217

part

5

데이터로 보는 기후재난 223

part

6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13 사람들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살아간다 235

14 이재민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고 있다 248

part

7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이야기 255

epilogue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290

크레딧 292

추천사

영덕에 갈 때마다 저는 불이 지나간 자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불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산불은 몇 시간 만에 마을을 지나갔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래 남았습니다. 이 기록집은 바로 그 남겨진 시간,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청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재난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시간을 붙든 책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또 얼마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지를 보아 왔습니다. 재난의 이름은 달랐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자주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묻고, 기록하고, 대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재난은 정리된 사건이 되고, 복구는 완료되었다고 말해지며,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납니다. 행정의 복구와 사람의 회복 사이에는 늘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덕에서 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은 영덕의 산불을 단지 뉴스 속 사건으로 지나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의 이재민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찾아가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적고, 또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인터뷰나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재난 이후의 두 번째 구조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첫 번째 구조였다면, 불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되는 삶을 듣고, 기억하고, 사회 앞에 다시 불러내는 일은 또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 기록활동은 영덕 이재민들의 삶을 망각으로부터 구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시민대응단 자신을 구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을 먼 곳의 불행으로 바라보던 자리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무너진 일상 앞에 서고, 그 이후의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시민대응단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재난과 무관한 사람인가. 기후재난은 누구의 삶을 먼저 무너뜨리는가. 재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복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영덕을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인가. 저는 영덕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질문들을 자기 삶의 자리로 가져가려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재난 이후의 진정한 구호활동가이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켜보는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멀리서 관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잊히지 않도록 곁에 머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덕 주민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불길을 몸으로 통과한 사람들, 집과 마을과 삶의 리듬을 잃은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대신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3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제3자의 자리에 머물물, 외면하지 않는 시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듣고 기억하고 다시 말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기록집은 영덕 산불에 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니다. 재난 이후에 정말 복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인가, 돈인가, 서류인가, 아니면 사람이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관계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곁에 시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

저는 영덕의 주민들이 시민대응단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응단의 삶 속에도 영덕 주민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를 향해 내어준 따뜻한 마음만은 각자의 삶 안에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은 잿더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을 함께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집이 영덕의 시간을 우리 모두의 시간으로 이어주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증거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유 정 (서경대학교 교수,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3기 활동 자문)

prologue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이유

기후재난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2025년 3월 영덕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산불’이 아니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고,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은 기후위기로부터 발생한 기후재난이었다. 영덕 산불,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기후재난이 휩쓸고 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 시민의 삶을 살펴보려 한다.

기후재난은 무엇인가?

자연재해와 무엇이 다른가?

기후재난은 인재인가?

기후재난도 자연에서 발생하니까, 자연재해와 비슷한 게 아닌가?

기후재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기후재난과 자연재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기후위기를 ‘이상기후’라는 단어 정도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상기후’라는 단어는 지구의 기온이 이상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준다. 단어가 갖는 위협이나 심각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생물들은 삶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생태계 곳곳이 무너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목숨 자체를 위협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후재난이다. 기후재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려진 기후위기의 위협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기후재난에 대해 스스로 경고해 왔다. 1988년 설립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시작으로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그리고 수많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맞이하게 될 기후재난에 대해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후재난을 모른다.

우리는 왜 기후재난에 대해 모르는 것일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우리가 정말 기후재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맞을까?

대형사고나 사회적 참사에 주로 적용되는 하인리히 법칙¹은 여지없이 기후재난에도 적용된다. 이상하리만큼 더운 여름, 매년 짧아지는 봄과 가을, 극단으로 치닫는 날씨와 심해지는 미세먼지, 이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폭등과 생물다양성의 붕괴까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기후위기의 사건과 징후를 목격해 왔다. 거대한 재난의 징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1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제시한 법칙으로,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의미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중상자 1명에 경상자 29명, 단순 사고 300명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기후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3.5%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에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² 그만큼 시민들은 기후위기 시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기후재난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 기후재난을 겪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후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기후재난 이후에도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적 복구만으로 우리가 기후재난을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후재난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후재난을 다시 겪었을 때,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남기고,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재민은 그 질문에 몸으로 살아낸 답을 내놓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기록을 따라가며 이미 기후재난을 겪은 영덕 산불 이재민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그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기후재난이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 나갈 때 비로소 얻어질 것이다.

2 정치 견해보다 기후 공약에 투표... '기후유권자' 53.5% (한겨레, 2026.03.09.)

| 우리는 왜 기록하는가? |

행정은 '형식적인 재난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날의 불길 속을 헤매고 있는가?

2025년 3월 영덕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이후 100여 일의 시간이 지나고, 행정 시스템은 기후재난이 복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기후재난을 삶으로 겪어낸 이재민들의 일상은 어떨까?

행정적 복구는 중요하다. 거주공간, 생활용품, 재정적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공동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재난이 남긴 물리적·정서적 상해는 서로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재난은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의 일상을 고립시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이후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적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적 회복 없이는 기후재난의 복구도 없다.

영덕 주민들의 일상은 정말 복구된 것이 맞을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복구 완료라는 말 뒤에 남아 있는 지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뉴스와 보도자료는 재난을 몇몇 숫자로 빠르게 정리한다. 언제 불이 났는지, 얼마나 번졌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복구비가 얼마인지, 임시주택이 언제 발주되었는지 같은 정보들이 보도된다. 그런 기록은 분명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몇 시간 만에 넓은 지역으로 번졌고, 이후에는 거액의 복구비가 확정되었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몇 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대피했는지, 불이 지나간 뒤 어디서 잠을 잤는지, 임시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불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밤을 사람들은 어떻게 견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이었다. ‘행정의 서류’와 ‘이재민의 현실’ 사이에 있는 간극, 그리고 그 간극 속에 남겨진 사람의 삶 말이다.

우리가 영덕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처럼 담담하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곧 회복을 뜻하지는 않았다. 어떤 이는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설문에 답하다 보면 그때 생각이 다 난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집 이야기를 꺼내다 말끝을 흐렸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밥을 해 먹고, 운동을 하고, 다시 일을 나가고, 묘목을 심으며 하루를 이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예전의 일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가스가스로 버티는 일상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복구라는 말은 과연 어디까지를 뜻하는가. 집의 외형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으로 삶도 함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기록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재난이 지나간 뒤 주민들은 서로 기대어 버텼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며 공동체는 약해졌으며, 그 회복을 도울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후재난이 남긴 질문을 사람의 언어로 다시 묻는 것이다. 재난과 복구, 그 사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버텼는지 묻는다.

둘째, 공동체적 회복의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동체 덕분에 버텼으나, 동시에 재난은 그 공동체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을 돌보는 제도는 잘 보이지 않았다.

셋째,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재난을 위해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질문을 남기는 것이다. 이 기록이 끝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다음의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질문이다.

불은 빠르게 마을을 지나갔으나 회복의 시간은 길었다. 행정은 정리되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몸과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임시 거처는 마련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오래도록 임시 상태로 머물렀다. 주민들은 서로 덕분에 버텼지만, 그 버팀이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묻고자 한다. 재난 이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구는 무엇인가? 물리적인 복구까지가 끝인가, 아니면 사람이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관계인가.

우리는 질문을 먼저 놓고, 그 뒤에 사람들의 말을 오래 듣고자 한다. 재난은 지나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그 '아직'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총 피해액과 복구액은 명확한 숫자로 정리되었지만, 그곳에 '사람'의 자리가 있었는가?

기후재난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겪은 일이다. 그러므로 기후재난이 지나간 자리를 복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날은 바람이 먼저 기억에 남는다

산불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불꽃을 먼저 떠올리지만, 영덕군 신안리의 주민들이 가장 자주 말한 것은 바람이었다. 평소에도 바람이 센 곳이라고 했다. 그래도 늘 그 자리에 있던 마을이었다. 산이 있고, 밭이 있고, 집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을은 그렇게 오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산불이 닥친 그날도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생각했다. 불이 나기는 했지만,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고. 늘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산 너머에서 그칠 거라고. 그러나 불길의 강풍을 타고 지뫼면 신안리를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재난이 삶을 바꾸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날 알게 되었다. 몇 시간 사이에 마을의 풍경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으로 소식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씻고 있었고, 누군가는 밭과 창고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냄새를 먼저 맡은 사람도 있었고, 연기를 먼저 본 사람도 있었고, 이장의 방송이나 이웃의 다급한 말을 먼저 들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의 기억에는 비슷한 마음이 깔려 있었다. ‘정말 여기까지 올까. 지금 나가야 하나. 조금만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망설임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사람이 오래 살아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 안에는 평생 모은 살림이 있었고, 창고에는 농기계와 연장이 있었다. 마당에는 해마다 돌보던 나무가 있었고, 방 안에는 다시 돌아와 이어 갈 내일의 일상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 불신이 재난의 속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삶은 천천히 쌓였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

리지 않았다.

어떤 이는 불꽃이 발밑에서 날아다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양말 한 짝만 신고 뛰어나왔다고 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찾으러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갔고, 누군가는 소방차보다 먼저 이웃의 차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뒤늦게 도착한 재난문자보다 사람들을 먼저 움직인 것은 마을의 방송과 서로의 목소리였다. 사이렌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데, 빨리 나오라는 다급한 말은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사람들은 행정의 대책을 기다릴 수 없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불을 피해야 했고, 먼저 가족을 챙겨야 했고, 먼저 사람부터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날의 대피는 매뉴얼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많이 기대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부터 이 책이 반복해서 묻게 될 질문이기도 하다.

재난 대응의 공백은 실제로 무엇이 메웠는가.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산이 타고, 밭이 타고, 집이 타고, 창고가 탔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손본 마루와 창문, 겨우 장만한 보일러와 욕실, 해마다 담가 두었던 장, 다시 쓰기 위해 모아 둔 물건들, 결혼반지 같은 작은 귀중품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어떤 이는 수리를 마친 집이 불탄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단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다 타버린 이야기를 했다. 그 상실감은 단지 건물의 소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증발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집이 사라지면 주소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쌓아 온 기억도 함께 무너진다.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어떤 계절에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느 방에서 왔는지, 문을 열면 어느 냄새가 났는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래서 재난 이후의 풍경을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늘 조금의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너무 큰일을 겪으면 슬픔보다 먼저 막막함이 온다는 것을, 여러 증언이 비슷한 자리에서 말해 주고 있다.

대피 뒤의 시간도 곧바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체육관과 마을회관, 친척집과 빈집, 그리고 한참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임시주택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시간은 흔히 하나의 행정 단계처럼 묶여서 다뤄지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제각기 다른 감각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었던 체육관의 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추위 속에서 버텨야 했던 며칠,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밥을 나누며 겨우 하루를 넘겼던 시간, 그리고 좁은 임시주택 안에서 다시 혼자 잠들어야 했던 밤들이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 인트로에는 아직 그 모든 시간을 다 말하지 않는다. 다만 독자에게 한 가지 사실만은 미리 건네고 싶다. 산불은 몇 시간 만에 번졌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빨리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재난은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된 다른 시간으로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불렀다. 빨리 나오라고 외쳤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고, 회관에 모여 밥을 먹자고 했고, 혼자 있지 말라고 했다.

이번 기록에서 공동체는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야기의 중심이다.

불 이후에 사람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지금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려 한다. 그것은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재난 이후의 삶을 붙드는 마지막 자원이 사람 사이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그날 이전의 마을로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갈 것이다. 불이 나기 전, 그곳에는 어떤 하루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가꾸며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그래야 그날의 상실이 단지 피해 규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은 마을을 태웠지만, 이 책은 그 잿더미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있었던 생활과 그 뒤에 남은 시간을 함께 기록하려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유다.

| 12명의 기후재난 증인 |

이 책에는 열두 명의 증인이 있다. 영덕과 신안에서 기후재난을 겪은 이재민들이다. 그러나 시민대응단은 이들을 피해자라는 한 단어로만 만나지 않으려 했다. 함께 김장을 하고, 과메기를 먹고, 돌을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리며 쌓아 온 시간 속에서 시민대응단이 마주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다. 누군가는 사람을 먹이는 일로, 누군가는 돌을 모으는 일로, 누군가는 다시 묘목을 심는 일로 재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었다. 본격적인 기록에 앞서, 시민대응단이 만난 열두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1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먹이는 사람

첫 번째,

김남수

김남수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한 환대였다. 그는 누가 오면 그냥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과메기를 내고, 고구마를 삶고, 약밥과 사과와 떡을 챙겼다. 시민대응단은 인터뷰를 하러 갔지만, 김남수 씨 앞에서는 먼저 손님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 환대가 그저 넉넉한 성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만남이 반복될수록 시민대응단은 알게 되었다. 김남수 씨에게 누군가를 먹이는 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과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집이 사라지고, 손님을 맞이하던 마루와 방과 살림이 사라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을 맞이하고 싶어 했다.



1 김남수 씨와 시민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남수 씨는 사람을 좋아했다. 시민대응단이 올 시간을 기다렸고, 떠나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고, 마지막 만남 뒤에는 종종 전화도 했다. 그 모습에서 시민대응단은 알았다. 재난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김남수 씨에게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그 집에서 음식을 내고, 아들과 손주들이 모여 자고, 함께 생일을 보내던 시간이 그곳을 집으로 만들었다. 산불은 집을 태웠지만, 더 깊게는 사람을 맞이하던 자리까지 가져갔다.

두 번째,

김상규

#2

돌을 보여줄 때

표정이 밝아지는 사람

처음에 김상규 씨는 마음을 잘 열지 않았다. 시민대응단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처음에는 못 한다고 했다. 그림도 못 그린다고 했고, 산책도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고 부탁하면 결국 해주었다. 시민대응단은 그 모습에서 약간의 씩스러움과 경계, 그리고 속으로는 응해주고 싶은 마음을 함께 느꼈다.

1	2
---	---

1, 2
김상규 씨가 새로 모아 온 돌.

김상규 씨의 말문이 가장 잘 열린 것은 돌 이야기를 할 때였다. 그는 수석을 좋아했다. 돌의 무늬와 모양을 설명할 때 표정이 밝아졌고, 시



민대응단을 직접 데리고 가 자신이 수집한 돌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돌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무거운 돌을 자전거에 싣고 오던 힘, 자연 속에서 무늬를 알아보던 눈, 오랫동안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온 시간이 담긴 물건이었다.

김상규 씨는 집 이야기를 할 때도 달라졌다. 불탄 집터를 보며 어느 집이 탔는지, 불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붙었는지,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하나씩 설명했다. 산불과 심리 상태를 직접 묻는 질문 앞에서는 말이 줄었지만, 돌과 집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함께 바라볼 때 그의 기억은 살아났다.

시민대응단은 김상규 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 상처는 정면으로 묻는다고 바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오래 사랑한 물건, 오래 머문 장소, 손으로 만져 온 세계를 통해 열린다는 사실을.

#3

“그냥 사는 거지”라고 말하면서도, 감자 켈 내일을 약속하는 사람

세 번째, 김선기

김선기 씨는 처음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에 짧게 답했고, “그냥 사는 거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많은 감정을 덮었다. 시민대응단은 처음에 조금 막막함을 느꼈다.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데 익숙해진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반복해서 만나자 김선기 씨는 조금씩 달라졌다. 시민대응단의 얼굴을 기억했고, “지난번 아가씨는 왜 안 왔나”라고 물었고, 속은



썩을 붙인 것도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짧게 답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먼저 웃고, 손을 잡고, 안아주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감자 캐 때 또 와야지"라고 말했다.

김선기 씨는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생활의 작은 숫자들은 잘 기억했다. 장보고 남은 돈, 약값, 택시비, 전기세, 임시주택을 사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의 하루를 이루고 있었다. 산불보다 더 가까운 걱정은 건강과 돈, 아픈 자식과 남은 삶의 계산이었다.

시민대응단은 김선기 씨를 통해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어떤 사람의 고통은 울음이 아니라 짧은 말 속에 접혀 있었다. 그리고 회복의 신호도 거창하지 않았다. 감자를 심고, 감자 캐 때 다시 오라는 말 속에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



1 김선기 씨와 시민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네 번째,

김종숙

#4

불안을 돌봄과

신앙으로 건디는 사람

김종숙 씨는 자기 안의 불안을 직접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보자고 했을 때 그는 '갈색'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의 눈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이었다. 자기 집을 잃은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

김종숙 씨에게 교회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교회에 가면 차를 내고, 구역장 역할을 하고, 구세군 활동에 참여했다. 시민대응단은 김종숙 씨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김종숙 씨가 자기 역할을 되찾는 공간이었다.

김종숙 씨는 감정을 말로 길게 풀어내기보다 그림과 색, 스티커 같은 활동을 통해 조금씩 표현했다. 시민대응단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그림을 그리자, 김종숙 씨도 색연필을 들었다. 머리 위에 나비를 붙이며 머리가 복잡하다는 마음을 표현했고, 발바닥 쪽에는 어디든 자유롭게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시민대응단은 김종숙 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재민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재난은 그의 집을 빼앗았지만,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보려는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다섯 번째,

배분연

#5

오지 말라 하면서도

기다리는 사람



배분연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은 처음부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반갑게 맞아주다가도 "다음에는 오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대응단이 일어나면 화투패를 치우고 밝게 인사했다. 그 말이 정말 오지 말라는 뜻인지, 다시 올 것을 확인하는 말인지 알기 어려웠다.



1	2
---	---

1, 2 배분연 씨와 시민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배분연 씨는 꿈 이야기를 자주 했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는 꿈, 누군가 데려가려다 아직 때가 아니라며 놓고 갔다는 꿈, 집이 불타는 꿈을 말했다. 그는 꿈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삶의 의지를 표현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가 봐"라는 말은 두려움과 생존 의지가 함께 담긴 말이었다.

배분연 씨의 특징은 강한 생활력과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세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자랑 끝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그는 화투를 치고, 마을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노인일자리로 동네 일을 하면서 하루를 이어 갔다.

시민대응단은 배분연 씨를 통해 '거절'이 반드시 거부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배웠다. 어떤 사람은 다시 와주기를 바라면서도 "오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떤 마음은 정반대의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

#6

잊으려 한다고 말하지만,

새집에 촌촌한 울타리를 그리는 사람

여섯 번째,

신명자

신명자 씨는 처음부터 매우 정중한 사람이었다. 예의를 갖추어 시민 대응단을 맞이했고, 사진 촬영은 허락했지만 녹음은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결정권과 품위를 지키려는 태도가 분명했다.

신명자 씨는 크게 울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산불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았고,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는 아직 잊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산불 뉴스가 나오는 날에는 외출복을 입은 채 잠을 청했고, 가스레인을 켜고 나면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시민대응단과 사진 찍기 활동을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고 싶어 한 것도 가스레인지였다. 말로 다 옮기지 못한 마음이,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인지활동지, 산책, 텃밭, 교회는 일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다. 재난 이후에도 그는 하루의 질서를 놓지 않으려 했다. 성경을 읽고, 활동지를 풀고, 조심스럽게 불을 확인하며 자기만의 리듬을 지켜갔다. 새집을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린 것은 촘촘한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는 집의 일부라기보다, 다시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의 모양에 가까웠다.

1

1 신명자 씨와 시민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일곱 번째, 유호준

#7

다시 심고, 고치고, 움직이는 사람



유호준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은 그에게서 현재진행형 회복의 힘을 보았다. 그는 산불 피해를 말할 때도 담담했지만, 농사와 수리, 오토바이, 동창회, 사과나무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지금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할 일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유호준 씨에게 중요한 물건은 오토바이였다. 오토바이를 타면 사과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었다. 시민대응단은 그 오토바이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밭과 화관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회복의 다리라고 느꼈다. 그는 마을화관에 가고, 이장님과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노인일자리와 농사 계획을 챙겼다.

그는 불탄 복숭아밭 자리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가 열리기까지는 3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 3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묘목을 심었다. 시민대응단은 유호준 씨를 통해 회복이 마음의 말이 아니라 손의 일일 수 있음을 보았다. 묘목을 심고, 가지를 치고, 집을 고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밭으로 가는 일. 그 모든 것이 재난 이후의 회복이었다.

여덟 번째,

이애자

#8

밝게 웃지만,
잠을 잃은 사람



1

1 이애자 씨와 시민
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애자 씨는 시민대응단을 밝게 맞이했다. 커피, 물, 사탕, 과자를 챙겨주고,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른 사람의 그림을 칭찬했다. 처음에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밝음 아래에 깊은 불면과 피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애자 씨는 산불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자는 동안 코골이와 이갈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잃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을 못 자면 눈이 아프고 온몸이 아팠다. 시민대응단은 재난의 상처가 불길을 본 사람에게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애자 씨를 통해 배웠다. 잠들 수 없었던 밤도 재난의 일부였다.

이애자 씨는 손주 사진을 소중히 여기고, 게이트볼과 다트, 자전거, 노래와 드라마를 좋아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영웅 노래, 손주 사진, 남편의 노래 이야기를 꺼냈다. 3월에는 네 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어 "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작지만 큰 변화였다.

아홉 번째,

최영섭

#9

관찰아진 사람이 아니라,
관찰아지려고 애쓰는 사람

최영섭 씨는 밝게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다. 노래교실, 노인대학, 게이트볼, 한궁, 농사일을 했다. 시민대응단이 찾아오면 반가워하면서도, 때로는 빨리 끝내자고 말하고, 다른 주민이 들어오면 속마음 털어놓기를 멈췄다. 시민대응단은 그 모습에서 밝음과 불안이 동시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공동체는 그에게 힘이 되면서도, 동시에 속마음을 감추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최영섭 씨는 산불 이야기를 피하는 편이었다. 사진도 찍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명이나 가족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 그 거절은 산불 피해자로 다시 불리는 일을 피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방식이었다.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몸을 움직였다. 몸을 쓰면 잡념이 없어진다고 했다. 시민대응단은 최영섭 씨를 통해 회복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뜻일 수 있음을 배웠다.

열 번째,

최정임

#10

혼자 있는 밤이무서운 사람

최정임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은 가장 먼저 혼자 남은 노년 여성의 불안을 느꼈다. 그는 60년 넘게 살던 집을 잃었고, 임시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낮에도 집 안은 어둡고,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다. "여기 내 사는데 좀 무서워"라는 말은 그의 현재를 압축하는 말이었다.

최정임 씨는 몸이 아팠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지 못했고, 회관에 가도 화투를 치지 못하고 구경만 했다. 공동체 안에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시민대응단은 이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정임 씨에게도 작은 회복의 길이 있었다. 산책길이었다. 걷다 보면 허리가 조금 덜 아프고, 마음도 조금 풀린다고 했다. 아들의 전화, 딸의 병원 동행, 노래를 부를 때 듣는 "목소리가 좋다"는 말도 그를 붙드는 힘이었다.

시민대응단은 최정임 씨를 통해 회복이 다시 집을 갖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혼자 있는 밤이 덜 무서워지고, 아픈 몸으로도 걸을 수 있는 길을 되찾는 일. 그것도 회복이었다.

열한 번째,

한귀순

#11

사람을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도
고구마를 나누는 사람



한귀순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은 가장 무거운 감정과 마주했다. 그는 남편과 집을 잃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크게 깨진 상태였다. 인터뷰 내내 "사람을 못 믿겠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말이 와전될까 봐 두렵다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

시민대응단은 한귀순 씨 앞에서 조심스러웠다. 그의 말에는 우울과 위험한 생각이 섞여 있었고, 단순한 위로나 격려로는 달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 시민대응단은 전문적인 심리 지원과 지속적인 관계망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한귀순 씨는 나누는 사람이었다. 김장을 하면 독거노인과 이웃에게 나누고, 호박과 오이와 파가 많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혈압을 재러 오는 사람에게도 커피와 요구르트를 챙겨 주었다. 그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줄 것을 키우고 있었다.

한귀순 씨는 농사 이야기를 할 때 밝아졌다. 고구마, 땅콩, 마늘, 배추, 참깨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길어졌다. 자신이 키운 고구마를 사람들이 이 맛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농사는 생계이기도 했지만, 잠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자 자부심이었다.

1

1 한귀순 씨와 시민대응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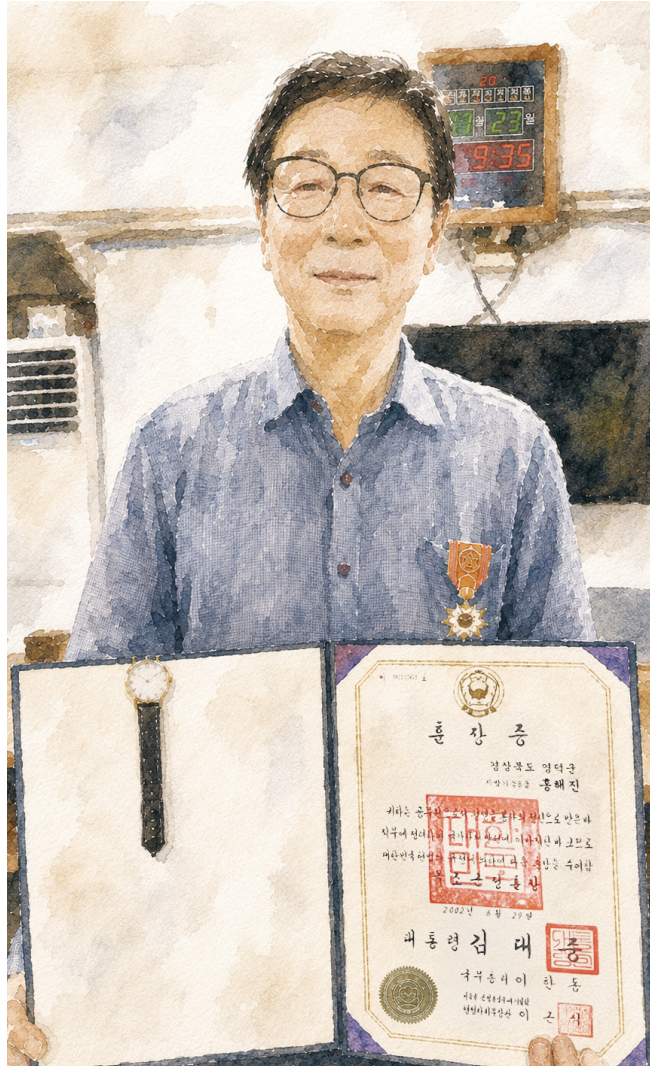
열두 번째,

홍해진

#12

자기보다

마을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1
2

1 홍해진 씨의 훈장증, 기념패 등.

2 홍해진 씨와 시민대응단.

홍해진 씨를 만난 시민대응단은 ‘큰어른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개인의 피해를 말하기보다 지품면 전체의 상황, 면사무소, 주민 소득, 송이산, 노인회, 아내 이야기를 먼저 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사람답게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고, 감정보다 책임감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홍해진 씨에게 훈장과 표창장은 중요한 물건이었다. 시민대응단이 관심을 보이자 그는 훈장과 대통령 시계, 표창장들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 물건들은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라, 평생 마을과 공직 삶 안에서 살아온 증거였다.

그러나 홍해진 씨에게 삶의 중심은 아내였다. 아내의 거동이 불편해, 홍해진 씨는 오랫동안 간병을 지속했다. 산불이 나도 간병은 필요했기 때문에 체육관 대신 여관으로 대피해야 했다.

관계가 쌓이자 홍해진 씨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녹음도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녹음을 허락하고 이름 사용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자기 피해를 말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탄 감나무발과 고사리발을 그리고 ‘농사를 못 지어서 답답하다’고 적었다. 시민대응단과 함께 그림 위에 손을 올리고 불탄 발을 보내준 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장면에서 시민대응단은 그가 위안을 얻은 듯했다고 느꼈다.



PART 1.

불이 나기 전의

마을



1

신안리의 봄은 꽃과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2

산불이 나던 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3

몇십 년의 일생을 살아온 곳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불이 나기 전의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던
신안리의 일상

1

신안리의 봄은 꽃과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풍경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재만 남은 마을이 되기 전, 그들의 기억 속 신안리의 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산불이 발생하기 전, 신안리의 수많은 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재민들이 기억하는 신안리의 봄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손이 가는 순서가 분명한 계절이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발이 조금씩 풀리고, 나무 끝에 물이 오르고, 마른 대들 사이로 새순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다시 한 해 농사를 준비했을 것이다. 봄은 늘 그렇게, 오래된 순서대로 왔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순서를 몸으로 알고 있었다. 언제 나무와 작물의 가치를 처야 하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독에는 어떤 것이 자라나는지, 해가 어느 방향으로 들기 시작하는지를 굳이 적어 두지 않아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홍해진 씨는 산불이 나기 전 발의 모습을 하나씩 짚었다. 마을에는 고사리밭이 있었고, 그 위로는 감나무밭이 있었다. 독은 높고 평평했고, 그 독에도 고사리가 났다. 고사리밭은 이백 평쯤 되었고, 감나무밭은 백오십 평 남짓이었다. 감나무는 백오십육 그루나 있었다. 그에게 그곳은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손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삶의 자리였다. “이 독이거든요.” “독에도 전부 고사리가 났어요.” “그 위에는 감나무밭이거든요.” 하는 말 속에는 오래 바라보고 오래 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확함이 배어 있었다.

3월 말에는 아직 새 고사리가 올라오기 전이라 지난해의 대가 밭에







누워 있었고, 그 누운 대를 양분 삼아 곧 새순이 올라올 시기였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 기다렸다.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가지를 정리하고, 밭을 살피고, 올해 농사를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 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산불은 바로 그 시간 위로 덮쳐 왔다.

66

농사 조금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했어.
속이 답답했어요.

99

막 시작하려던 봄, 곧 올라올 것들을 기다리던 자리, 이제 일을 시작해 보려던 마음이 함께 멈춰버렸다.

그 봄의 마을에는 밭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 온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흥해진 씨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500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컸는데, 그게 이번에 다 타버렸어.”라고 말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말 안에는 나무 한 그루의 소실만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마을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다. 신안리 사람들에게 느티나무는 단순히 ‘큰 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마을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보았을 것이고,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잎과 그늘을 익숙하게

지나쳤을 것이고, 나이 들과 함께 커 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그런 느티나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끝내 실감 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을 이루는 것은 집이나 땅뿐 아니라, 오래 그 자리를 지켜 온 상징들이기도 하다.

신안리의 봄을 묘사해달라는 질문에는 늘 복사꽃이 가득한 풍경이 따라왔다. '복숭아 향기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봄이면 연분홍 꽃이 마을을 채웠다고 했다. 한귀순 씨는 가지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꽃이 어디서 피는지, 복숭아가 굵어지려면 어떤 손질을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여기서 이제 꽃 피잖아." "그래야 복숭아가 굵지." "거름도 하고 비료도 쳐야 되고." 그 말들은 농사 기술을 설명하는 말 이면서 동시에 마을의 봄이 어떤 리듬으로 흘렀는지를 보여 준다. 꽃 이 피고, 잎이 나오고, 가지를 정리하고,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 신안리의 봄은 그런 시간의 총합이었을 것이다.

유호준 씨는 이곳이 "눈은 잘 안 오고 비가 잘 온다"고, 그래서 물이 관창은 곳이라고 했다. 봄이 늦게 오는 산골의 비와 바람을 함께 겪어 온 사람의 감각이 그 짧은 말 안에 들어 있다. 또 그는 여기가 "사과 농사 안 하면 할 데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서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신안리의 봄은 결국 나무의 봄이고, 밭의 봄이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봄이었다. 농사는 직업적 의미를 넘어, 마을 사람들이 계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봄의 풍경은 단지 '아름다웠다'고만 적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고, 해마다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66

여기서 이제 꽃 피잖아
그래야 복숭아가 굵지...
거름도 하고
비료도 쳐야 되고

99

2

산불이 나던 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숫자로 잴 수 없는 삶의 밀도가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는 행정적 복구만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는가? 산불 이전, 이재민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신안리의 하루는 특별한 사건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단단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하고, 밭을 보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회관에 들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걸으로 보면 조용한 마을의 평범한 생활이지만, 거기엔 오래 같이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촘촘한 밀도가 있었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아픈지, 오늘 누가 회관에 나왔는지, 저 집 자식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고 지내는 생활. 신안리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흔히 알 만큼 작은 공동체였고, 사람들 간의 촘촘함이야말로 이 마을의 평범한 하루를 지탱하는 바탕이었다.

66

우리 일가들만 모여
사는데 낯선 사람 없이
웃음이 많이 모여 살았지

99

김남수 씨는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했다. “내가 19살에 시집 와서… 우리 일가들만 모여 사는데 낯선 사람 없이 웃음이 많이 모여 살았지.” 이 말에서 마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낯선 사람 없이 산다는 것은 단지 폐쇄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뜻에 더 가깝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세 소식이 돌고, 잔칫날이면 같이 웃고, 누가 찾아오면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평범한 하루가 계속해서 평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루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하루는 언제나 조금씩 서로의 하루와 맞닿아 있었다.

그런 공동체의 감각은 이재민들의 인터뷰 곳곳에서 반복해서 드러난다. 배분연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 스무 명쯤이 모여 밥을 먹는 날이 있다고 했다. 각자 만 원씩 내고 닭고기와 밥을 먹고, 모여 놀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다달이 모이는 일 자체가 하나의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래가 모여가 놀고”라는 짧은 말 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마을의 오래된 습관이 담겨 있다. 거창한 행사가 아니어도 그저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을 먹는 일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하루를 이어 갔던 것이다. 공동체는 큰 사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분명해진다.

한귀순 씨의 말은 이러한 공동체의 결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는 “내가 또 꿈쩍을 안 하면 어디 아픈가 싶어서 사람들도 또 뭐 사과 갖고 보러 오고 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라고 했다. 또 식당 하는 동갑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아들이 밥도 사 주고 생일도 챙겨 준다고 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것, 며칠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나오느냐고 묻는 것, 밥을 먹자고 부르는 것. 이런 관계들은 행정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하루를 실제로 버티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다. 누가 문을 두드릴지 알고 사는 생활,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생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범한 하루였다.

김선기 씨의 일상에서도 그런 감각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 혼자 지내지만, 회관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밥도 같이 먹을 때가 있다고 했다. “회관에도 사람 얼마 안 되니까”라고 말하면서도, 이웃들이 가까이 있으니 그럴지 걱정 없다고 했다. 오래된 마을의 공동체는 늘 복직이는 형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 구성원들도 점점 더 나이가 들고, 거동도 불편해지며 예전보다 회관에 나오는 사람도 줄었을 테지만,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감각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혼자 밥을 먹어도 완전히 혼자인 것은 아니고, 집에 있어도 이웃의 기척이 이어지는 생활. 그런 것이 신안리의 평범한 하루였을 것이다.

김상규 씨는 “여기서 계속 생활했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부인도 여기서 태어나고 계속 (여기 살았죠)”,

66

산불 나기 전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전혀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이었어요

99

“산불 나기 전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죠”라고 했다. 그 걱정 없음은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집과 마당, 밭과 하우스, 교회와 면사무소, 동네 사람과 친척,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다. 그는 “전혀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이었다고 회상했다. 매일 같은 길을 다니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 그런 반복이야말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든다.

김종숙 씨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가 좀 있으니까 농사일도 거들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죠”라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신안리 사람들이 살아온 하루의 윤곽이 이 안에 있다. 농사일을 거들고,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걷는 삶. 이웃과 마주치고, 회관에 들르고,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도시의 속도로 보면 단조롭고 느린 생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함께 쌓인 생활의 질서가 있었다. 주민들이 재난 이전의 시간을 특별하게 기억한다기보다 “그렇게 지냈지”라는 말로 더 자주 떠올리는 이유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일상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호준 씨는 회관에 가면 사람들과 놀고, 예전에는 더 자주 술도 먹고 친구들 만나러 전화를 해서 모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후포¹⁾에 장 보러 가고, 바닷가에 놀러 가고, 회를 먹고,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 이런 나날은 모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생활 방식이다. 누구와 어

1 울진군 후포면, 신안리 사람들은 종종 후포에서 장을 보러간다고 이야기 했다. (저자 주)

디를 가는지, 누가 오늘 안 보이는지, 누가 일을 쉬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루. 이러한 구조 안에서 평범한 하루란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과 공유해 온 리듬의 다른 이름이 된다.

‘평범한 하루’는 단지 일상의 평온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계의 밀도, 삶의 반복, 함께 늙어 가는 방식,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까움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생활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은 물리적 복구 작업으로만은 완전히 보듬기 어렵다. 집을 잃은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 없이 웃음이 모여 살던 자리,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전화가 오던 생활,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을 먹고 놀던 시간, 회관에 가면 늘 비슷한 얼굴들을 볼 수 있던 하루. 이런 것들은 보상 항목에 적히지 않지만, 사람의 삶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남는 것이고, 또 가장 쉽게 복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적 복구가 이루어졌다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회복은 아직 멀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먼저 사라진 것은 집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하루하루의 밀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신안리 사람들이 살아온 평범한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사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일상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느껴지고, 어쩌면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일상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과의 순간과 다양한 요소가 한 데 얹혀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민들의 일상에는 몇몇 년간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던 오래된 공동체가 만들어 낸 생활의 두께가 있었고, 재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끝내 그리워하고 붙들고 싶어 하는 시간의 양식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웃음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밥 먹자고 전화하던 이웃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회관과 길과 밭으로 기억한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낸 하루의 촘촘함이다.

3

몇십 년의 일생을 살아온 곳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재민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잃어버린 수십 년의 시간은 어떤 풍경과 기억으로 채워져 있었는가?

신안리의 풍경을 떠올려보자. 곳곳에 심어진 사과나무와 감나무, 여름이면 자라는 복숭아와 포도, 그리고 고사리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어우러지는 자리에는 오랫동안 돌아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자라나는 생활의 자리가 있었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서로 손을 포개가며 쌓아올린 일상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안리의 풍경은 아름다운 자연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시간 그 자체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이애자 씨는 그 상실을 짧게 말했다. “대나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잊어 갖고, 미련도 없어요”

66

대나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잊어 갖고, 미련도 없어요

99

사실 이 말은 정말 미련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너무 큰 상실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마음에 더 가깝다. 있던 것을 계속 떠올릴 수록 속상한 마음에 잊었다고 말하는 쪽을 택하는 마음. ‘다 있었다’는 말과 ‘이제는 잊었다’는 말 사이에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몸에 익혀 온 시간이 통째로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을 돈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알막하다.

이애자 씨와 대조적으로 최정임 씨의 말은 그 상실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이었는지 보여 준다. “이 집까지 다 살(탈) 줄은 알았는데… 단감

나무, 대추나무 다 태워버렸다.”

집이 불에 탔다는 말만으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감각이 있다. 집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어떤 계절에 무엇을 수확했는지, 해마다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단지 거처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풍경은 그 집이 그 집답게 느껴지게 했던 시간의 총위였다. 매년 같은 계절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던 나무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삶의 리듬이 끊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귀순 씨는 불 나기 전을 떠올리며 “사과도 억수로 많았고 복숭아도 많았고”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상규 씨도 복숭아, 감, 배, 사과, 두릅, 고추, 고구마, 깨까지 여러 작물을 함께 길러 왔다고 말했다. 또 “집이 마당도 넓고 하우스도 넓게 잘 쳐두었어요”라고도 넋두리를 했다. 이런 말들을 이어서 듣고 있으면, 산불 이전의 신안리가 사람들의 손길로 촘촘하게 채워진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호준 씨는 다시 사과 묘목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의 나무가 아니라, 새 묘목을 사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걱정의 빛이 감돌았다.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풍경’이 되지 않는다. 사과나무는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산불 이후의 밭은 예전의 풍경으로 돌아간 자리가 아니라, 예전의 자리를 대신하려 애쓰는 미완의 풍경에 가깝다. 이 차이는 크다. 행정적으로는

66

이 집까지 다

살(탈) 줄은 알았는데…

단감나무, 대추나무

다 태워버렸다

99

복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회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자연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시 포개질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김선기 씨에게도 사라진 것은 집만이 아니었다. 그는 예전 사진들이 다 타버렸다고 했고, 산불이 옷부터 살림살이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했다. 또 집 안의 화분을 가리키며 “이만했던 게 다 죽었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풍경의 상실이 바깥의 산과 밭, 과수원만이 아니라, 집 안의 작은 생명들과 기억의 흔적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잿더미가 된 뒤의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는 물건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자리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66

이만했던 게 다 죽었네

아무것도 없다

99

‘사라진 풍경’은 단지 눈에 보이는 전경의 소실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에 더 가깝다. 신안리의 풍경 속에는 추억이 있었고, 생활이 있었고, 한 사람의 시간과 한 마을의 역사가 같이 들어 있었다. 그 자리를 오랫동안 보며 살아온 이들이 재난 이후 겪었을 상실의 깊이는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재난의 피해는 돈만으로 다 회복되지 않는다. 이재자 씨가 “미련도 없어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의 표면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잃어버린 뒤에 남는 공허함까지 함께 들어야 한다. 마을의 풍경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그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삶을 붙들던 한 부분이 함께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PART 2.

불길이



지나간 자리

4

평범한 일상 속에
산불이 내려왔다

5

밭 앞에 떨어지는
불뚝을 보고서야 도망쳤다

6

그날 밤, 3시간 사이에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불길이
지나간
신안리의
모습

4

평범한 일상 속에 산불이 내려왔다

밥을 먹고, 씻고, 잘 준비를 마치던 평범한 저녁 위로 산불이 내려왔다. 재난문자는 제때 닿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의지해 그 밤을 빠져나왔는가?

그날의 시작은 누군가에게는 뉴스였고, 누군가에게는 방송이었고, 혹은 바람이었다. 이재민들의 증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오후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은 이미 신안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몸은 아직 평소의 하루 속에 있었다. 누군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집안일을 하다가 겨우 몸을 움직였다. 청송에서 넘어 온 산불이 초속 25미터 안팎의 바람을 타고 지품면을 덮치는 데에는 단 몇 시간이 걸렸다. 사람에게에는 너무 짧고, 산불이 마을을 휩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66

불덩이가 막 날아뎡기고
불뚱이 바람에 부니까
온 데 날아가 땀 집에 불고

99

김상규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대피할 때 막 불뚱이 막 날아와요. 산에 불이 불고 타는 거 보고 나갔습니다." 이 말에는 설명보다 장면이 먼저 들어 있다. 멀리 연기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불뚱이 직접 날아오고 있었고, 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다. "불덩이가 막 날아뎡기고 불뚱이 바람에 부니까 온 데 날아가 땀 집에 불고" 불은 산에서 타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 경계를 지워 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과 마당 가까이로 들어오는 불을 피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종숙 씨의 기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성에서 불이 났다는 말



을 TV로만 듣고, 피난 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저녁을 먹고 집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장이 영덕 체육관으로 다 나오라고 방송을 했고,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여기까지 불이 오겠나"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난은 종종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발 밑에서 막 날아다니고, 뒷산에 불이 환하게 넘어오는 거야."라고 했을 때, 조금 전까지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발밑으로 날아드는 불꽃을 피하며 뛰어나가야 하는 예상 불가능한 재난의 급박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날의 오후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람이다. 김상규 씨도 "바람만 안 불어도 그제(산불이) 안 번졌을 건데 바람이 너무 세요"라고 했고, 배분연 씨도 "바람이 불어가(불어서),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했다. 바람이 불길을 밀고, 불길이 집으로 내려오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것은 불길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집은 바로 옆인데도 안 타고, 어떤 집은 복판에 있는데 홀라당 타버렸다.

"불이 여기 번뜩 저기 번뜩 이래." 불의 확산에는 어떤 논리나 공식이 있지 않다. 그 점이 사람들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방향을 바꾸고, 이쪽저쪽으로 번지며, 공고할 것 같던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날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공간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최정임 씨도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한다. "종갓집에 있다고 하니까 막 이리저리 방송을 해대고" 그러나 그 집을 떠나는 일은

66

여기까지 불이 오겠나..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발 밑에서 막 날아다니고,

뒷산에 불이 환하게

넘어오는 거야

99

말처럼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다. 사람은 자기 집을 등지고 나설 때, 마지막까지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건 상당히 어색한 생각이다. 그만큼 집을 비롯한 나의 삶의 공간은 나와 내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곳이다.

‘설마, 조금 있다 돌아오겠지, 내일은 다시 들어오겠지.’

그러나 불은 그런 마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최정임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불 나면서 쫓겨 나왔지만,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집 있던 자리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나을 때는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 결국 다시 돌아갈 자리는 남지 않았다.

모두가 불길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김선기 씨는 “불타는 거 못 봤지, 봤으면 죽었겠지”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보지 못한 채 급히 피신했고, 나중에야 그 규모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덜 무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빨리 피신했다는 말, 차를 놓친 순간, 버스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하던 길,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는 말 속에 이미 충분한 공포가 스며들어있다. 뒤에서 불길이 쫓아오고 있다는 감각은 그 자체로 공포다. 재난은 항상 직접 본 장면으로만 남지 않는다. 오히려 직접 보지 못한 것들, 돌아보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들이 더 오래 남기도 한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다.

유호준 씨도 빨리 피신했다는 말에 움직였지만, 차를 놓쳐 버스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피신 당시 그는 몸이 불편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전개되는 재난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정말 간신히 탈출했다는 사실이다. 거동도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챙기는 커녕, 재난의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노인들이 많은 마을에서 불길이 내려오는 속도는 더욱 더 빠르게 느껴졌다.

김종숙 씨의 말은 이 오후의 공포를 가족의 움직임 속에서 더 생생하게 보여 준다. 어머니와 자신은 먼저 차를 타고 영덕 체육관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회관에 남았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다시 찾으러 갔다고 했다. 체육관

안에서도 가족은 바로 보이지 못했고, 밤새 서로를 찾고 부르고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날의 오후를 회상하는 증언에는 불꽃과 연기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 오셔갖고", "또 찾으러 갔죠", "거기 구석에 서 있는 거라" 같은 말들이 같이 따라 붙는다. 불의 장면과 사람을 찾는 장면이 하나로 엉켜 있는 것이다.

그날의 오후는 한 장면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발밑과 머리 위로 날아드는 불꽃이고, 누군가에게는 방송 소리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까지 남겨 두고 싶었던 경운기와 오토바이이고, 누군가에게는 버스를 타기까지의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증언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불은 너무 빨랐고, 바람은 너무 셌고, 사람들은 살아오던 일상을 온전히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밀려 나왔다. 16,000 헥타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면적을 휩쓸고 간 산불은 단 몇 시간 만에 이재민들이 살아온 몇십 년간의 일상을 앗아가고, 그들의 삶에 선명하고 명확한 구분선을 그었다.

66

아버지가 안 오셔갖고

또 찾으러 갔죠...

거기 구석에 서 있는 거라

99

5

발 앞에 떨어지는 불뚝을 보고서야 도망쳤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로 산불 소식을 보면서도 '설마 우리 집까지라는 마음으로 집 안에 머물렀다. 왜 그들은 발 앞에 불뚝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재난은 늘 갑자기 닥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불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다. 밥을 먹고 있었고, 씻고 있었고, 텔레비전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을은 괜찮겠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증언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설마라는 말이다. **'설마** 우리 집까지 오겠나,' **'설마** 이렇게 빨리 퍼지겠나,' **'설마** 오늘 밤에 마을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겠나.' 그러나 그 **설마**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기가 짙어지고, 불빛이 가까워지고, 누군가가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66

설마 우리 집이
타겠나 싶어
(아무것도) 못 챙겼지...

99

배분연 씨는 그 찰나를 선명한 몸의 기억으로 남겼다. "설마 우리 집이 타겠나 싶어 (아무것도) 못 챙겼지... 양말 한 짝에만 신고 쫓아나 갔어."

그날은 마을 사람들끼리 밥 먹는 날이었다.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자려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다가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나왔다고 했다. 몸을 절반쯤 일상 안에 남겨 둔 채 밖으로 내몰린 것이다.

양말 한 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의 모든 주민들을 대신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약을, 누군가는 돈과 반지를, 누군가는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다. 평소 같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들도 재난의

속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배분연 씨도 나중에 돌아와 보니 돈도, 반지도, 살림도 다 사라졌다고 했다. 그 상실의 첫 장면이 그 한 쪽의 양말에 들어 있다. 양말 한 짝도 챙기지 못한 채 바깥으로 밀려나온 몸, 그 몸이야말로 그날 재난이 남긴 가장 직접적인 흔적이었다.

김종숙 씨의 경우에도 절망은 아주 갑작스럽게 현실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있다가 이장이 방송을 하고 집에까지 와서 “아직도 피난 안 가고 뭐 하시냐”라고 재촉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에는 집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 간극이 너무 짧고, 너무 거칠었다. 재난은 사람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재난에 내몰린 이들은 금박한 대피 속에 몸만 반응하여 피난을 떠났다.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을 그냥 두고 발이 쉽게 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상규 씨는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도 쉽게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 집은 오래 살아온 집이었고, 불이 나기 몇 달 전 손을 본 집이었다. 창문을 고치고, 목욕탕을 수리하고, 다시 살아가 준비를 해 두었던 집이었다. 그는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바람을 탄 불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진 앨범도, 귀중품도, 오랫동안 모아 온 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몸만 갖고 빠져나와야 했다.

김상규 씨에게 돌은 어떤 의미였을까? 김상규 씨가 가장 밝아지는 순간은 돌 이야기를 할 때였다. 그는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시민대응단에게 집 주변에 새로 주워 모은 돌을 보여주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장님 댁에 맡겨둔 돌까지 보여주겠다고 직접 앞장서 걸었다. 돌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달라졌다. 돌 이야기를 할 때 아래로 떨어지던 시선이 돌 앞에서는 조금씩 살아났다. 그가 오래 기억하는 돌 하나가 있었다. 스무 살 무렵, 수해가 난 뒤 발견했다는 독수리 모양의 돌이었다. 무게가 60kg쯤 되는 그 돌을 그는 자전거에 실어 집까지 가져왔다고 했다. 담청색 바탕에 흰 독수리 문양이 박힌 돌. 그는 그 돌을 꿈속에서도 본다고 했다. 산불은 집을 태웠고, 사진 앨범을 태웠고, 수리해 둔 화장실과 창문과 마당을 태웠다. 그리고 김상규 씨의 돌도 함께 태워버렸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돌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수석은 오랫동안 들여다본 세계였고, 젊은 날의 힘이었고, 자연 속에서 찾아낸 자기만의 자랑이었다.



1, 2 김상규 씨가 새로 주웠다면
소개한 준 돌



그런 물건을 두고 당장 불길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김상규 씨는 그날의 피난을 떠올리며 “알았는데요 늦게 피난 가가 불 붙는 거 막 보고 갔어요”라고 했다. ‘알았다’와 ‘늦었다’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위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나의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믿어지는 데에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날의 재난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집 앞에 서 있었고, 발을 바라보았고,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공포는 그렇게 이해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최정임 씨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앉아 있다가 방송이 시작되었고, 끝까지 안 가려 했다고 말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머물 곳이 있다는 뜻이고, 그곳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은 그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불 나면서 쫓겨 나왔지만은."

그들은 대피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쫓겨 나왔다. 재난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김سن기 씨는 빨리 피신하라는 말을 듣고 나왔지만, 차를 태워주기로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버려 차도 못 탔다고 했다. 유호준 씨도 차를 놓쳐 버스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재난의 속도 앞에서 개인의 이동 능력과 상황 판단은 쉽게 흔들린다. 노인들에게는 몇 걸음, 몇 분, 차 한 대를 놓친 시간이 그대로 큰 위험이 된다. 양말 한 짝과, 놓친 차와, 뒤늦은 방송은 모두 같은 재난의 다른 얼굴이다. 재난은 사람을 천천히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생활의 흐름을 끊고, 몸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밀어 넣는다.

이재민들의 대피를 들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새겨진 기억이다. 발에 한 짝만 신긴 양말, 끝내 못 챙긴 약과 돈, 놓치고 만 차, 집 안에 남겨 둔 옷과 살림, 뒤늦게야 뛰쳐나온 몸. 그날 사람들은 준비된 상태로 떠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만 내던져졌다.

"왜 이재민들은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사지로 내몰려야 했습니까?"라는 질문은 그날 재난이 얼마나 급박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사람들의 삶을 끊어 놓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배부연 씨의 양말 한 짝은 그날의 저녁이 어떤 방식의 절망으로 뒤집혔는지 끝내 잊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이 된다.

6

그날 밤, 3시간 사이에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단 세 시간 사이에, 평생을 보낸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 풍경은 그곳에서 삶의 거의 전부를 보낸 이재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대피한 뒤의 밤은, 몸은 체육관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마을 쪽으로 돌아가던 시간이었다. 체육관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날의 공포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불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뒤에 남겨 둔 집과 밭, 나무와 살림을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이 얼마나 탔을까. 우리 집은 남아 있을까. 마을의 큰 느티나무는 괜찮을까. 질문들은 이어졌고, 밤은 길어졌다.

배분연 씨는 체육관에 있었을 때조차 바깥이 안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체육관 복판에는 사람이 꽉 찼지. 불을까 봐 잠도 못 자." "방 안에는 전기가 없고 밖에는 불이 활활 탔지." 체육관은 분명 살아남기 위해 도착한 장소였지만, 그곳조차 완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전기는 나갔고, 창문 밖에는 여전히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은 체육관에 불이 불을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불은 집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잠들 수 있는 감각 자체를 무너뜨린다. 또 그는 "체육관 옆에도 막 벌벌 탔어요"라고도 했다. 체육관에서 보낸 밤은 단순히 피난처의 밤이 아니라, 내가 방금 빠져나온 재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밤이었다.

66

체육관 복판에는
사람이 꽉 찼지
불을까 봐 잠도 못 자
체육관 옆에도
막 벌벌 탔어요

99

김종숙 씨가 기억하는 체육관의 장면도 비슷하다.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야. 앓을 데가 없어 사람이 하도 많아 갖고." 어머니는 계속 아버

지와 아들을 걱정했고, 김종숙 씨는 결국 직접 걸어 내려가 가족을 찾으러 갔다. 대피는 했지만 가족은 다 보이지 않았고, 체육관은 안전한 공간이기보다 생존을 임시로 미루는 공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빵을 먹고, 바닥에 몸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였겠지만, 그 모든 것은 원래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배부연 씨가 남긴 "오니 뭐 재떨거리(젓더미)만 남았다"는 말은 이 장면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무것도 없고 내 돈도 반지도 다 부었고... 찾으러 가도 없더라." 돈, 반지, 살림, 해마다 모아 둔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접시와 수저, 모아 두었던 책과 편지, 사진, 그런 것들이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사람의 생활은 늘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실도 작은 것들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온다. 그 집에서 꺼내 올 수 있을 줄 알았던 무언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을 더 크게 무너뜨린다. 배부연 씨가 지금도 불타는 꿈을 꾸다고 한 것은, 아마 바로 그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상규 씨의 경우에는 상실이 막 준비해 둔 현재까지 함께 태워 버린 형태로 남아 있다. 수리를 많이 한 집, 새로 손본 마당, 하우스, 나무 보일러, 욕탕, 집 수리를 위해 재둔 것들이 다 탔다고 했다. "집에 재아둔 거(축정했던 것) 다 타버렸어요." "(불이) 하우스도 금방 덮었어요... 저거(하우스가) 타버렸어요(타버렸어요)." 그가 살던 집은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었다. 계속 고치고, 손보며, 앞으로도 더 살아갈 생각으로 관리해 온 자리였다. 불은 바로 그 앞으로를 같이 태워 버렸다. 마을이 사라진 밤은 과거가 무너지는 밤인 동시에, 미래가 막막해지는 밤이기도 했다.

유호준 씨는 "여기 정자가 있었는데 다 타부르"라고 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정자라고도 했다. 마을의 오래된 구조물,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던 자리,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것들이 같이 사라진다. 김سن기 씨도 예전 사진들이 다 타버렸다고 했고, 집 안의 화분을 가리키며 "이만했던 게 다 죽었네"라고 말했다. 풍경의 상실은 바깥의 발과 산만이 아니라, 집 안의 작은 생명들과 기억의 흔적들까지 포함한다. 젓더미가 된 뒤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물건이 없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자리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재민들이 잃은 것은 집 몇 채의 합이 아니라, 마을이 마을로 존재하던 감각 전체에 가깝다.

66

여기 정자가 있었는데다 타부르...이만했던 게 다 죽었네아무것도 없다

99

최정임 씨에게는 종갓집이 사라진 밤이고, 배분연 씨에게는 반지와 돈과 집이 재가 된 밤이고, 김종숙 씨에게는 가족을 찾아 헤맨 밤이고, 김상규 씨에게는 오랫동안 손봐 온 집이 무너진 밤이다. 각자의 말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날 밤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배경을 잃었다. 나무와 살림, 사진과 단지, 하우스와 마당, 정자와 집터가 사라질 때, 사람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살아왔는가'를 같이 잃는다. 이런 상실은 통계와 보상 항목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다. 그것은 결국, 그 자리를 오래 살아낸 사람의 말로만 드러낼 수 있다.

불길의 지나간 자리에는 재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질문이 남았다.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원래 살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체육관의 밤도 '임시'로 견딜 수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을 때, 임시는 끝을 모르는 시간이 된다.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재난은 그날 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시작된 또 다른 시간이, 회복을 위한 지난한 과정들이 사람들 앞에 놓였다.



영덕 산불 이후, 기록되지 않은 이재민 12인의 증언집

PART 3.

12인의

증언



7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8

기후재난 이후 오랜 시간
이재민들은 ‘임시의 시간’을 보내왔다

9

재정 지원 계획의 규모는 발표되었지만,
삶에 스며들지 못했다

10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재난 당일부터,
임시주택까지
12명의 증언으로 살펴보는
기후재난

7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재난 당일, 신안리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는가?

산불이 일어났지만,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자려고 누운 밤, 신안리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2025년 3월 25일 밤, 신안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길 속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방 안에 있었고, 부엌에 있었고, 텔레비전 앞에 있었고, 세면대 앞에 있었다. 누군가는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밥을 다 먹고 잠잘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누군가는 틀니를 빼서 물 컵에 담가 놓았다. 누군가는 와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잠이 들었다. 누군가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했다. 재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산불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산은 이미 타고 있었고, 바람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불뿔은 이미 허공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불이 언제 마을에 도착했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불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위험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로 먼저 도착했는가? 사이렌이었는가. 재난문자였는가. 마을방송이었는가. 전화였는가. 혹은 누군가 문 앞에 와서 지르는 소리였는가. 모두 아니라면 산 등성이 너머로 붉게 넘어오는 불빛이었는가.

기록으로 남은 재난은 늘 정돈되어 있다. 몇 시 몇 분에 불이 났고, 몇



시간 만에 몇 킬로미터 번졌고, 풍속은 얼마였고, 피해 면적은 얼마였는지. 숫자는 정확하다. 그러나 숫자는 이제 민들이 다가오는 산불을 보면서 경직되어 있던, 그 불안함의 시간을 보여주지 못한다. 숫자는 밥술가락이 내려 놓이는 순간을 보여주지 못한다. 숫자는 세수하던 손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다. 숫자는 양말 한쪽만 신고 뛰어 나온 발을 보여주지 못한다. 숫자는 틀니를 물에 담가놓고 나온 입 안의 허전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숫자는 아버지가 아직 안 왔으며 체육관에서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가족의 마음을 결코 보여주지 못한다.

행정의 기록에 산불이 들이닥친 그날은 “대피”라고 적힌다. 하지만 그날 밤의 피난은 하나의 단정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밥을 먹던 사람이 숟가락을 놓고 뛰쳐나간 일이었고, 세수하던 사람이 수건도 제대로 못 잡고 문밖으로 나가는 일이었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다시 옷을 챙길 틈도 없이 뛰는 일이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큰길로 나서는 일이었고, 가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서로를 찾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평범했던 저녁을 시작으로 재난이 훑고 지나간 일련의 모든 과정을 훑아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런 재난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산불은 늘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뉴스에서는 해마다 산불 이야기가 나왔고, 바람이 세다는 말도 나왔고, 어느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텔레비전 안에 타들어간 산과 내가 앉아 있는 방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 사람은 그 거리를 쉽게 좁히지 못한다. 특히 산과 밭과 집을 오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제도 이 집에서 잤고, 오늘도 이 집에서 밥을 먹었고, 내일도 이 집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두고 나가라는 말은 너무 갑작스럽다. 당장 이 증언집을 읽고 있는 당신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이 나던, 그날 밤 한 집에서는 의성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뉴스는 아직 경보

가 아니었다. 텔레비전은 거실 한쪽에서 산불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여전히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의성의 불이 영덕으로, 뉴스 속 산불이 내 방문턱으로, 화면 속 붉은 불길의 내 발밑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직 ‘살마’ 안에 갇혀있었다. 그 밤을 김종숙 씨는 이렇게 떠올렸다. “불이 나는데 우리는 의성에서 불 났다. 그래도 TV로만 듣고 피난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그냥 저녁 먹고 집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균열이다. 불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저녁을 먹고 있었다.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위험은 알려졌지만, 그 위험은 아직 ‘내 알’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판단 문제, 경각심 문제가 아니다. 재난 정보가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지나야 하는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 집을 지금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시스템은 재난의 시작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의 일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존재하는 간극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 신안리에서 그 간극은 너무도 컸다.

또 다른 집의 저녁은 더 따뜻하고 더 무방비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 스무 명 가까이가 모여 닭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돈 만 원씩을 내고, 농담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먼저 일어나고, 조금 더 앉아 있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앉아 있는 그런 밤이었다. 이것이 마을의 저녁이었다. 화재 대피 훈련이 아니었다.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밥을 먹는 날이었다.

그런 밤이었기에 재난이 다가오는 것을 더 늦게 알아차렸다. 밥을 먹고 돌아온 사람들의 몸은 이미 하루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비상 대피에 대비할 상태가 아니었다. 몸을 씻고, 잠옷을 입고, 누울 준비를 한다. 그날 밤 어떤 사람에게 재난의 첫 신호는 불꽃이 아니었다. 전화벨이었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묻힌 손을 멈추게 한 전화. “동네 불 난다.” “나와야 한다.” “모여야 한다.” 그 말이 들릴 때까지, 그 집의 시간은 아직 평소의 밤이었다.

배분연 씨는 그 저녁을 이렇게 말했다. “화관에서 그때 밥 먹는 날이래. 밥 먹고는 집에 가요. 이제 입었던 옷은 벗어놓고 잠옷 입고 세수하고 잘 자려는데 전화가 오니까, 동네 불 난다고 자꾸 모여가 나오라는 거.” 재난은 세수하는 시간에 끼어들었다. 손에 묻은 물을 닦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몸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은 이미 피난의 시간이 되었다. 방 안과 집 밖의 시간이 달라진 것이다. 집 안은 밤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 밖은 불을 피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시간의 불일치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 무엇이 울렸어야 했을까. 마을 전체를 한순간에 깨우는 소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라고 사람의 몸을 밀어내는 소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수하던 사람에게도, 잠든 사람에게도 닿는 소리. 그 소리가 사이렌이어야 했다면, 신안리 사람들은 왜 그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의 기억 속 첫 경보는 사이렌이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 마을방송, 전화, 친구의 목소리, 이장의 호통으로 남아 있는가.

그날의 가장 날카로운 문장은 그래서 짧다.

홍해진 씨는 말했다. “사이렌?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사이렌이 실제로 울리지 않았는지, 울렸지만 들리지 않았는지, 들렸지만 위험의 소리로 인식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난 경보는 기록상 발신 여부만으로 평

66

잠옷 입고 세수하고

잘 자려는데

전화가 오니까,

동네 불 난다고

자꾸 모여가 나오라는 거

99

가될 수 없다. 경보는 사람의 귀에 닿아야 하고, 사람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흐릿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게 실감되었다면, 그 경보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방송은 있었다. 그러나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송이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또렷했는가. 노인들이 들을 수 있었는가. 바람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와 집 안의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들렸는가. 그 방송은 단순히 “불이 난다”는 말을 전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위급함까지 전달했는가. 스피커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평소에도 잘 들리지 않았던 방송시설은 아니었는가. 재난 당일의 시스템 문제는 이런 사소한 해 보이는 질문들에서 시작된다. 재난의 순간 사소한 결함이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방송이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선명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는 것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또렷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소리였다. 평소에도 불편하다고 느끼던 방송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낡고 불안정한 소리 안에서 희미하게 대피라는 단어를 들었다. 양치를 하고 틀니를 물에 담가둔 뒤였다. 놀란 마음에 몇 번이나 방송에 귀를 기울이니 그제야 내용이 들렸다. 불이 넘어온다고, 당장 대피하라고 했다.

김남수 씨는 그 소리를 이렇게 기억했다. “방송하는데 바람이 좀 막, 불이 넘어온다고 대피하라 카대.”

행정은 방송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주민은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간극이 바로 시스템의 균열이다. 시스템은 작동했다고 기록됐겠지만, 사람들에게겐 불완전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김남수씨는 그 불완전한 소리에 기대어, 틀니를 물컵에 둔 채 슬리퍼를 끌고 나왔다.

방송이 또렷하게 들린 집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은 곧장 나왔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더 복잡한 문제다. 방송이 들렸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위험 정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현실로 번역되어야 한다. “불이 났다.”라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대피해라.”라는 말이 “당장 집 밖으로 뛰어 나와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번역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

한 번역이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가 시스템의 역할이다.

누군가는 그날 밤 정말 떠나야 하느냐고 물었다. 위험을 몰라서 나온 질문이 아니다. 위험을 들었지만, 아직 심감하지 못해서 나온 말이다. 불이 왔다고 한다. 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마을까지 불이 올까. 우리 집 앞까지 불이 올까. 정말 우리도 가야 하나.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신안리의 여러 집에서 다른 언어로 반복되었다. 누군가는 “설마 우리 집이 타겠냐”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알았는데도 늦게” 나왔다. 누군가는 끝까지 안 가려 했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경보는 있었지만, 경보가 사람의 결심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김종숙 씨의 집에서 그 질문은 실제로 입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장에게 물었다. “우리도 가야 되냐.” 그때 돌아온 말은 부드러운 안내가 아니었다. 이장은 “아직도 피난 안 가고 뭐 하시냐”라고 소리쳤다. “불 타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역정을 냈다. 거칠었지만 그 말이 사람을 움직였다. 김종숙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이장님한테 우리도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직도 피난 안 가고 뭐 하시냐고 불 타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서 갖고 이장님이 그러서 갖고 이장님 집에 오셔 갖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챙겨 가지고 나가는데...”

이 일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장이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집까지 찾아왔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마을방송은 몇 번이나 울렸지만, 결국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은 집 앞까지 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장의 호통은 재난 경보의 마지막 형태였다. 스피커에서 나온 안내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자, 사람이 직접 와서 사람을 움직였다. 이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다. 시스템이 마지막 순간에 개인의 발걸음과 판단에 의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대피를 미담으로만 남기면 이 질문이 사라진다. ‘이장이 잘했다. 이장이 방송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챙겼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장이 집 앞까지 와야 했는가. 왜 방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도 가야 되냐”는 질문이 나올 만큼 위험 정보는 늦게 도착했는가. 다음 재난에서도 그 이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집까지 갈 수 있을까. 다른 마을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을까. 누군가의 헌신이 시스템의 빈틈을 메웠다면, 우리는 헌신을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빈틈을 보아야 한다.

66

세수하다 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동네 불 난다고 자꾸
모여가 나오는 거

99

그날 밤, 신안리에서 위험은 하나의 경로로만 전달되지 않았다. 재난문자가 한 번에 올리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정해진 차량을 타고, 정해진 대피소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했다. 이장의 방송이 있었고, 면장의 말이 있었고, 전화가 있었고, 옆집 사람이 있었고, 가족의 연락이 있었다. 말은 집에서 집으로, 회관에서 길로, 전화기에서 세면대로, 스피커에서 마당으로 흘러갔다. 위험은 행정망을 따라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을의 생활망을 타고 퍼졌다. 배분연 씨는 그 흐름을 짧게 말했다. “이장님이 방송 해.” 또 말했다. “이장 면장이 방송 빨리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전화가 있었다. “세수하다 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동네 불 난다고 자꾸 모여가 나오는 거.” 이 말 속에서 대피는 개인의 탈출이 아니다. ‘모여가’ 나오는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회관 쪽으로, 길 쪽으로, 차가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대피는 공동의 움직임이었다. 공식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빈틈을 사람들이 함께 메꾼 것이다.

가족의 전화도 경보가 되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뉴스를 보고 먼저 위험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사는 마을로 불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 귀중한 것만 챙겨 나오라고 말했다. 멀리 있는 자녀가 오히려 넓게 상황을 보았고, 가까이 있는 부모는 아직 집 안에 있었다. 이렇게 사적인 관계가 재난 경보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 역시 다행이지만 같은 질문을 남긴다. 자녀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 사는 사람은 누가 전화했을까. 휴대전화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재난을 어떻게 알았을까. 충전이 안 되어

있거나, 전파가 끊기거나, 전화기를 멀리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Rrrrr...

이애자 씨에게도 가족의 전화가 왔다. 막내아들이 경산에서 전화했다. 빨리 나오라고 했다. 조금 있으면 전화도 끊길 수 있으니, 소중한 것만 챙겨 나오라고 했다. 이애자 씨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빨리 오라고 조금 쉬면 전화도 끊기고 다 끊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소중한 것만 챙겨가지고 통장 폐물 같은 것만 챙겨가지고 오라 하대.”

그 말은 구체적이었다. 그냥 “대피하라”가 아니었다. “소중한 것만 챙겨라.” “통장, 폐물 같은 것만 챙겨라.”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구체성이다. 막연한 경보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 단순히 산불이 왔으니 대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챙겨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구체성 말이다.

친구의 목소리가 첫 경보가 된 사람도 있었다. 와병 중인 남편을 돌보던 집이었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집의 시간은 더 느리다. 누군가 몸져누워 있으면, 집 밖의 소식보다 방 안의 사람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약과 식사를 챙기고, 거동을 돕고, 문을 열고 닫는 작은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니 산불이 닥쳤을 때 소식도 듣지 못했다. 불이 턱 밑

66

빨리 오라고 조금 쉬면
전화도 끊기고 다 끊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소중한 것만 챙겨가지고
오라 하대

99

까지 닥쳤을 때서야 친구가 와서 소리쳤다. “빨리 차 타라.” 그 말이 없었다면, 과연 한귀순 씨는 언제 움직였을까.

한귀순 씨는 말했다. “나는 저 밑에 있을 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불났다고, 처음에는 불 나는 것도 몰랐어. (친구가 말했어.) 귀순아 빨리 차 타라.”

한귀순 씨의 이야기는 재난 시스템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그러나 챙기지 못한 집이 어디였는지를 보여 준다. 혼자 사는 집, 노인만 있는 집, 환자가 있는 집, 돌봄이 필요한 집. 이런 집은 더 빨리,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재난이 경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날 한귀순 씨를 대피시킨 것은 친구였다. 친구가 불러주었고, 친구가 움직이게 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친구가 오지 않았다면? 친구도 몰랐다면? 차가 없었다면? 심히 아찔하다.

그날 밤의 문제는 이제 분명해진다. 경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이동 수단과 연결되어 도착했느냐가 문제다. “대피하라”는 말은 출발점일 뿐이다. 그 말이 실제 생존으로 이어지려면, 사람은 문밖으로 나와야 하고, 차를 타야 하고, 대피소에 도착해야 하고, 가족과 이웃이 모두 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안리처럼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는 이동이 곧 생존이다.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가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차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차를 놓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다리가 아프면 길이 더 멀어진다.

유호준 씨의 대피는 이 문제를 보여 준다. 빨리 피신하라는 말은 들었다. 그러나 차를 타지 못했다. 뒤에 오던 차가 다른 길로 가버렸다. 결국 신안까지 가서 버스를 탔다. 그 이동은 간단하지 않았다. 몸은 늙었고, 다리는 아팠고, 불은 빠르게 다가왔다. 유호준 씨는 말했다. “여기서 빨리 피신해라 캐가고 내가 빨리 나가도 뒤에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딴 길로 가버려가 차도 못 타.(빨리 피신하라고 해서 빨리 나가도, 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서 차를 못탔어.)”

이것이 대피의 현실이다. “나오라”는 말이 도착했다고 해서 대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몸을 옮기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노인이 어디에서 차를 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누가 누구를 태울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차가 다 른 길로 가버렸을 때 남은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남은 사람을 데려갈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피는 우연이 된다. 운 좋게 차를 탄 사람과, 놓친 사람으로 갈라진다.

최정임 씨는 실제로 차를 놓쳤다. 방송을 듣고도 바로 자기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다. 종갓집을 확인하고, 이웃을 챙기고, 남의 집 심부름을 하느라 시간이 늦었다. 이것은 공동체적 행동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지연이었다. 대피 체계가 마지막 사람까지 챙기지 못하면, 이웃을 챙기던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된다.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다 떠나고 없었다. 그는 마지막에 내려가는 차를 붙잡아 타야 했다.

최정임 씨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남의 집에 심부름 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가 차도 버스도 다 싹고 갔다. 내 그레 나 늦게 나가니께네(내가 그렇게 늦게 나가고 나니.)”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는 한 번 다 가고 없어요” 결국 “그 소방서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차로 붙들어가(붙들어서) 그레 태아가(그렇게 태워서) 영덕 체육관에...”

여기서 또 묻는다. 마지막 사람은 누가 확인했는가. 버스가 떠난 뒤 남은 사람은 누가 헤아렸는가. 누가 “이 사람은 아직 못 탔다”라고 확인했는가. 누가 다시 돌아갔는가. 그날 최정임 씨는 의용소방대원의 차를 붙잡아 탔다. 그 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람의 대피다.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보다, 가장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날 대피소에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대피소에 가족이 모두 왔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버지가 왔는지, 어머니가 왔는지, 남편이 왔는지, 이웃 할머니가 왔는지 확인해야 했다. 불이 닥치자 함께 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누군가는 먼저 차를 탔고, 누군가는 뒤에 남았고, 누군가는 농기계를 옮기느라 늦었고, 누군가는

이웃을 챙겼고, 누군가는 다른 체육관으로 갔다. 그래서 대피소는 안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안이 생기는 장소가 된다. 누가 아직 안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안 보이는지 묻게 되는 곳이었다.

김종숙 씨와 김종숙 씨 어머니는 먼저 소방관 자가용을 타고 영덕 체육관으로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찾았다. 그 시각 아버지는 오토바이와 경운기를 옮기고 있었다. 그 기계들이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오토바이와 경운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병원에 가는 발이자 밭으로 가는 발이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기 몸만 챙겨 나올 수 없었다.

66

내려와 갖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구석에
계단 쪽에 앉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라

99

김종숙 씨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또 오토바이하고 경운기하고 또 내다 놔야 된다고 불타면 안 된다고 끄다 놓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나 그 사이 가족은 흩어졌다. 체육관에는 사람이 많았다.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김종숙 씨는 말했다. “거기는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야. 앉을 데가 없어 사람이 하도 많아 갖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도 혼란스러웠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가족은 나뉘었고,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시 찾아야 했다. 그 날 밤 김종숙 씨는 다시 내려갔다. 불을 피해 올라온 길을 다시 거슬러 내려간 것이다. “내려와 갖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구석에 계단 쪽에 앉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라 아버지하고” 누군가는 대피소에서 다시 길로 나가야 했다. 누군가는 사람을 불러야 했다. 누군가는 어디에 서 있는지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신안리의 대피는 행정의 안

내를 따라 일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었다. 시스템은 숫자를 세지만, 가족은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 부르기가 그날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 부르기마저 사람들의 몫이었다. 누가 있고, 누가 아직 없는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누가 어디쯤 있는지 짐작하는 것도 가족과 이웃이었다. 누가 다리가 아픈지, 누가 잘 못 듣는지, 누가 고집이 센지, 누가 집을 쉽게 못 떠나는지 아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었다. 재난 시스템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날 밤, 이 모든 정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었는가. 신안리의 대피는 바로 이 기억들 위에서 이루어졌다. 누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가 어느 집에 있는지, 누가 아직 안 나왔는지. 그 기억들이 무너지면 대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고 나왔는지 보아야 한다. 무엇을 챙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챙기지 못했는지. 대피의 급박함은 놓고 나온 물건들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지기 때문이다. 준비된 대피라면 사람은 필요한 물건을 챙길 것이다. 그러나 턱 밀까지 다가온 재난에 쫓겨 나온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 신발, 틀니, 통장, 사진, 옷가지, 반지, 현금, 농기계, 시계, 휴대전화까지. 이 목록은 단순한 재산 피해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상에서 튕겨져 나갔는지를 보여 주는 목록이다.

김남수 씨는 틀니를 두고 나왔다. “이빨 닦아가 물에 담가놓고… 그

래 그래 놓고 나니까 뭐 방송하는데 뭐 불러 온다고 대피하라 카대 그 래 가지고 뭐 신은 신도 딸딸이(슬리퍼) 신은 그대로 딸딸이(슬리퍼) 신고” 입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물컵 속에 남았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슬리퍼를 끌고 나왔다. “이빨도 못 지우고 이빨 담가놓고도 못 지… 또 새로 해야.” 이 말에는 몸의 일부를 두고 나온 사람의 허전함이 있다. 틀니는 물건이지만, 동시에 몸의 일부다. 그 몸의 일부를 집 안에 두고 나올 만큼 대피는 갑작스러웠다.

66

내가 죽으면 입고가는 거
그거(수의)라도 꺼내야
할 텐데 그것도 못 꺼내고

99

그가 두고 나온 것은 틀니뿐만이 아니었다. 장수사진과 수의로 지어 둔 한복도 있었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기 마지막을 준비한다. 사진을 찍고, 수의로 입을 옷을 마련한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정리하는 일이고, 동시에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그날 불은 그 마지막 준비인 수의마저 앗아갔다. 김남수 씨가 말했다. “내가 죽으면 입고가는 거 그거(수의)라도 꺼내야 할 텐데 그것도 못 꺼내고” 이 문장 앞에서 재산 피해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타버렸기 때문이다. 불은 현재의 집만 태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마지막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수의마저 태워버렸다.



김남수 씨에게 장수사진 역시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둔 마지막 얼굴이었다. 그는 불에 타버린 장수사진을 여러 번 떠올렸다. 한복을 입고 찍어 둔 사진, 나중을 위해 잘 챙겨 두었던 사진, 자식들이 정신없을 때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진이었다.



시민대응단이 다시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김남수 씨는 바로 찍지 않았다. 머리를 곱게 빗고, 입을 옷을 꼰다. 사진을 찍는 일은 그에게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다시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불에 타버린 자기 삶의 마지막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다. 불은 집과 살림만 태운 것이 아니었다. 김남수 씨가 오래 준비해 둔 마지막 얼굴도 함께 태웠다. 그래서 시민대응단이 다시 찍은 장수사진은 단순한 기록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난 이후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다시 되찾는 순간이었다.

급히 집을 나온 누군가는 양말 한쪽만 신고 나왔다. 이 한쪽 양말은 그날 밤을 설명하는 가장 작은 증거다. 사람은 양말을 한쪽만 신고 집을 나서지 않는다. 양쪽을 신고, 신발을 신고, 문을 잠그고 나온다. 그러나 그날은 한쪽 발만 대피의 시간으로 들어왔고, 다른 한쪽 발은 아직 집 안의 저녁에 남아 있었다. 배분연 씨는 “그래가 양발 한 쪽에만 신고”라고 말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집은 “재명거리”만 남았다. “다 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 돈도 반지 있는 것도 다 다 부었고 돈도 그때 이빠라 한다고 200만 원 내놔는데...” 배분연 씨는 나중에 잣더미 속에서 그것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진 뒤였다. “아무것도 없어 손에, 내 손 보이냐? 먹을 거 다 해놔는데, 다 타버렸지. 재명거리가 되어뿔지(재가 되어버렸지)...”

어떤 누군가는 양말도 없이 맨발로 나왔다. “맨발로 쫓아나갔어요” 이 한 문장은 어떤 설명보다 강렬하다.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었다. 한귀순 씨는 옷도,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옷이고 뭐고

66

아무것도 없어
손에, 내 손 보이냐?
먹을 거 다 해놔는데,
다 타버렸지
재명거리가 되어뿔지

99



1 시민대응단이 찍은 김남수 씨의 장수사진

살림살이고 뭐고 옷도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 못 건졌어요 다 타고 집
이 다 타보고” 옷이 많았다는 말은 단순한 소유의 말이 아니다. 계절
마다 입던 옷, 일할 때 입던 옷, 외출할 때 입던 옷, 오래 입어 몸에 맞
아버린 옷, 옷가게를 하며 고르고 만졌던 옷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후 동네에서 옷을 모아주었지만, 몸에 맞는 옷은 많지 않
았다. “(사이즈가) 전부 다 90이라고 옷이 맞는 게 없더라.” 평생 남에
게 맞는 옷을 골라주던 사람이, 이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얻어
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한귀순 씨는 허망한 듯 말했다. “하루아침
에 거지가 돼 버렸는데...”

한귀순 씨의 이 말은 너무 아프지만, 재난 직후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돼 버렸다. 행정의 언어
로는 이 문장을 대체할 수 없다. “주택 전소”, “재산 피해”, “이재민 발
생” 같은 말들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 말들 안에는 ‘맨발’이
없다. ‘한 쪽뿐인 양말’이 없다. ‘물컵 속 틀니’가 없다. ‘맞지 않는 옷을
얻어 입는 어려움’이 없다. 대피가 어떤 경험이었는지 알려면, 바로 이
런 물건과 순간의 긴박함들을 보아야 한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재민들은 무엇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는가. 그들은 사이렌을 들었는가. 적어도 그들의 증언 속
에서 사이렌은 중심에 있지 않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소리들이
다. 텔레비전 뉴스의 소리. 잡음 섞인 마을방송. 전화벨. 이장의 호통. 친
구의 외침. 막내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옆집 사람이 먼저 나오는 소리.
체육관에서 가족을 찾는 소리. 이 소리들이 그날 밤의 실제 경보였다.

66

[옷이고 뭐고](#)[살림살이고 뭐고](#)[옷도 얼마나 많았는데](#)[하나 못 건졌어요](#)[다 타고](#)[집이 다 타보고](#)

99

그렇다면 이 밤은 성공한 대피의 밤인가, 실패한 경보의 밤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살아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왔고, 이장이 움직였고,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사람들을 태웠다. 누군가는 이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배분연 씨는 “이장이 방송 빨리 해줘가지고… 전부 다 안 죽어 가지고 안전하게 대피를 시켜 그래 대피를 시켰다” 말했다. 맞다. 누군가의 빠른 판단과 움직임이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나 살아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밤의 시스템을 평가할 수는 없다. 생존은 중요하지만, 생존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다.

좋은 이장이 있어서 살았다면, 다음 재난에서도 좋은 이장이 있어야 한다. 친구가 불러줘서 살았다면, 다음 재난에서도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한다. 막내아들이 전화해서 살았다면, 다음 재난에서도 가족이 뉴스를 보고 바로 전화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차를 붙잡아 살았다면, 다음 재난에서도 그 차가 지나가야 한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운과 선의와 공동체의 기억에 기대는 구조다. 선의는 소중하지만, 재난 대응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날 신안리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완성된 재난 대응 체계라기보다, 불완전한 체계의 빈틈을 마을 사람들이 몸으로 메운 임시 구조망이었다. 누군가는 전화했고, 누군가는 방송했고, 누군가는 뛰어갔고, 누군가는 태웠고, 누군가는 다시 내려갔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물어야 한다. 왜 그 모든 일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는가. 왜 대피는 처음부터 노인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는가. 왜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집들이 있었는가. 왜 ‘설마’를 끊어 줄 만큼 구체적인 경고가 더 빨리 도착하지 않았는가. 왜 차를 놓친 사람이 생겼는가. 왜 가족 확인은 체육관에 도착한 뒤에야 시작되었는가.

재난 당일 시스템의 문제는 바로 이 질문들 속에 있다. 경보는 단순히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야 한다. 도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동 수단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동한 뒤에는 마지막 사람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끊기면, 사람은 ‘설마’ 속에 남거나, 차를 놓치거나, 가족을 찾으러 다시 내려가거나, 맨발로 쫓겨 나

오게 된다. 그날 신안리에서는 이 과정들이 곳곳에서 끊기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그 끊어진 부분을 임시로 이어 붙였다.

산불은 시작됐는데,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자려고 누운 밤, 신안리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을까.

그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빨리 나오라”는 전화. “불 타 죽으려고 그러냐”는 이장의 호통. “빨리 차 타라”는 친구의 외침. “소중한 것만 챙겨라”는 아들의 말. “아버지가 안 왔다”는 가족의 불안. 그 목소리들이 저녁을 끊었고, 세수를 멈추게 했고, 설마를 부셨고, 사람들을 문밖으로 밀어냈다. 그 목소리들이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나 이 증언집은 그 목소리들을 미담으로만 남기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묻기 위해 쓰인다. 국가의 경보가 충분히 빨랐다면, 충분히 또렷했다면, 충분히 구체적이었다면, 충분히 마지막 사람까지 확인했다면, 신안리의 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양말을 양쪽 다 신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틀니를 챙길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차를 놓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아버지를 찾으러 다시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을까. 누군가는 ‘설마’를 조금 더 빨리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66

빨리 나오라불 타 죽으려고 그러냐소중한 것만 챙겨라...아버지가 안 왔다

99

8

기후재난 이후 오랜 시간 이재민들은 ‘임시의 시간’을 보내왔다

산불 사이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은 그날 밤 어디에서 잤을까.

불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행정의 기록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대피자”라고 부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임시주거 중”이라고 부른다. 행정의 언어는 정돈되어 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구호소는 운영되었고, 필요한 조치는 진행 중이라고 적혔다. 그러나 그 정돈된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빠져 있었다. “임시주거 중”이라는 말 안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체육관의 첫 밤이 없다. 마을회관 바닥에 몸을 눕힌 노인들의 밤이 없다. 누군가 이를 갈고, 누군가 기침하고, 누군가 잠든 척 누워 있던 그 긴 밤이 없다. 바람이 불 때마다 컨테이너 벽이 흔들리고 집이 날아갈까 봐 겁이 났다는 말이 없다. 이불 하나 마음대로 빨지 못하고, 약을 챙기지 못해 보건소를 찾아가야 했던 시간이 없다.

행정은 대피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몸을 눕힐 자리와 밥을 제공했지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문을 닫고 쉴 수 있어야 하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어야 하고, 아픈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이불을 빨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찾아왔을 때 앓을 자리가 있어야 하고, 해가 진 뒤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재난 이후 신안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시 거처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불은 3시간 만에 마을을 덮쳤다. 그러나 그 뒤의 시간은 훨씬 길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체육관으로 갔고, 그다음에는 마을회관으로 옮겨졌고, 또 한참 뒤에야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행정의 문장은 짧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몇 달을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잠이 무너졌고, 몸이 아팠고, 무서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고, 밤이 길어졌다.

산불에서 겨우 빠져나온 임시 대피소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살아 나온 사람들은 그날 밤 어디에서 잤는가.

그리고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는가.

산불에서 빠져나와

체육관에서 보냈던 밤

불길을 피해 나온 사람들은 그날 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시골 마을에 살던 당신이 산불을 피해 도망쳐 나왔을 때 어디로 향하게 될 것 같은가.

집은 타고 있었고, 산은 아직 불었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집 마당에서 있던 사람들, 세수하다가 뛰쳐나온 사람들, 양말 한쪽만 신고 나온 사람들, 틀니를 물컵에 담가두고 나온 사람들,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차에 오른 사람들은 한곳으로 향했다. 영덕 체육관. 행정의 언어로 그곳은 대피소였다. 불길이 닿지 않는 곳,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곳, 재난 당일 밤 사람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체육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집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가족이 모두 도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살아서 체육관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타는 마을에 남아 있었다.



1

1 이재민들이 처음 머문 임시대피소
(체육관)

체육관의 첫 풍경은 안도감보다 혼란에 가까웠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누군가는 겉옷도 챙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고, 누군가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무엇을 두고 왔는지도 아직 다 알지 못했다. 집 안에 돈이 있었는지, 약이 있었는지, 반지가 있었는지, 통장이 있었는지, 사진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다. 먼저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그 다음에 불안감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질문들이 들어왔다. 누구는 왔나. 누구는 아직 안 왔나. 우리 집은 탔나. 불은 어디까지 갔나. 오늘 밤은 여기서 자는 건가. 내일은 어디로 가는 건가.

체육관은 원래 몸을 움직이는 곳이다. 뛰고, 공을 던지고, 행사를 치르는 넓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넓은 공간은 좁았다. 사람은 계속 밀려 들어왔고, 바닥의 빈 공간은 금세 사라졌다. 한 사람이 누우면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았고, 누군가의 발끝 옆에 누군가의 짐이 놓였고, 벽 가까운 자리는 먼저 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체육관은 넓었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다. 집에서는 문을 닫으면 가족만 남지만, 체육관에서는 모든 가족의 불안이 한 공간에 펼쳐졌다. 집에서는 불을 끄고 누울 수 있지만, 체육관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이 계속 떠 있었다. 김종숙 씨의 기억에 체육관에서의 밤은 어려웠다. “아버지하고 우리 신랑은 늦게 나중에 또 차 타고 와 갖고 그 밑에 수영장 없는 그 체육관에서 거기는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야. 앓을 데가 없어 사람이 하도 많아 갖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곳. 그곳이 첫 번째 피난처였다.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살아 들어왔지만, 앓을 자리조차 넉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위쪽 관중석 있었고, 누군가는 아래쪽 마루에 있었다. 같은 가족이 같은 공간에 모인 것도 아니었다. 체육관은 사람들을 한곳에 수용했지만, 흩어진 가족까지 모아주지는 못했다. 누군가가 안 보이면 다시 불안해졌다. 아버지가 안 보이면 찾아야 했고, 남편이 안 보이면 또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은 체육관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출입구 쪽을 향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았을 것이다. 들어오는 사람이 내 가족인지, 내 이웃인지, 아직 안 온 그 사람인지 확인했을 것이다.

그날 밤 체육관은 안전한 곳이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곳은 불길 한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불안의 한가운데였다. 사람들은 체육관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마을을 생각했다. 집이 탔는지, 발이 탔는지, 창고가 탔는지, 농기계가 탔는지, 돈을 넣어둔 서랍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발밑으로 날아다니던 불뚝을 보고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산등성이 위로 넘어오던 붉은 불을 보고 나왔다. 그러나 체육관 안에 들어와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체육관의 천장은 높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낮게 눌러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 산불이 끝나지 않았다. 체육관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산불과 멀어졌다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밖을 내다보면 불빛이 보였다. 여기서 번뜩, 저기서 번뜩. 소방관들이 움직였

고, 물을 뿌렸고,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피난처에 와서도 불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은 여전히 재난이었다. 체육관 안쪽에는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체육관 바깥쪽에는 아직 불이 있었다.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았다. 불안은 문틈으로 계속 들어왔다. 배분연 씨는 그 밤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거기에 며칠 있었거든. 불 타가지고 못 오고 그때 내다보니 불이 여기 번덕 저기 번덕 이래, 우리 체육관 거기도 불이 나 그래 갖고 소방관들이 전부 다 가에 뿌렸어요. 체육관, 체육관 옆에 막 벌벌 탔어요. 밤새도 불 꺾어요.”

66

체육관, 체육관 옆에
막 벌벌 탔어요
밤새도 불 꺾어요

99

체육관 옆에 불이 났다는 말. 피난처 옆에서 불이 벌벌 탔다는 말. 이 증언들은 대피소라는 단어의 안정감을 깨뜨린다. 사람들은 불을 피해 왔지만, 불은 아주 멀리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체육관 옆까지 불이 번졌고,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밤새 물을 뿌렸다. 몸은 대피소 안에 있었지만, 눈은 다시 타오르는 불을 보았다. “이제 살았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불을 피하기 위해 도착한 체육관에서 불을 지켜보며 밤을 보내야 했다.

전기 문제도 있었다. 산불이 타오르는 바깥은 밝은 반면, 체육관 안의 전등은 어둡고 종종 불안정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온 공간에서 전기가 끊기거나 약해지는 순간,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불이 꺼지지 않은 밤에 전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면, 이재민들은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꼈다. 배분연 씨가 체육관 안팎의 그 상태를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우리 복판에는 체육관 안에는 사람이 꼭 찻지 (불이) 불을까 봐 잠도 못 자 그러면 얼마나 불안했어 전기도 가쁘고요 형

편이 없었어. ... 방 안에는 전기 가뽏지(전기가 꺼졌지) 밖에는 불이 활활 탔지. 소방관들 끈다고 물 퍼 보고 이래
사 장문을 내다보니가 별 밖에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이 증언에서 체육관의 고통은 한꺼번에 드러난다. 사람이 꽉 찼다. / 불을까 봐 잠을 못 잤다. / 전기가 불안정했
다. / 밖에는 불이 활활 탔다. /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 무서웠다. / 너무 무서웠다. 이러한 연속된 증언은
단순히 “대피소가 불편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없다. 체육관은 그날 밤 사람들에게 잠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잠
자는 공간이 아니라, 불이 더 가까워지진 않을까 지켜보고 걱정하는 공간이었다. 몸은 피신했지만, 신경은 계속
불길 쪽으로 쏠려 있었다. 누군가는 앉은 채로 밤을 새울 것이고, 누군가는 누웠지만 귀를 열고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몸을 일으켰을 것이다.

3월의 밤은 아직 추웠다. 산불이 났다고 해서 계절의 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불은 뜨거웠지만, 체육관
바닥은 차가웠다. 대피는 급했고, 사람들은 충분한 옷과 이불을 챙겨 오지 못했다. 체육관은 넓고 높다. 높은 천
장 아래에서 바닥에 몸을 눕히면 온기는 쉽게 빠져나간다. 내가 원래 머물던 ‘집’에서는 방바닥이 있고, 이불장이
있고, 내 몸에 맞는 베개가 있다. 그러나 체육관에는 임시로 나눠준 이불과 바닥이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에게는
누울 자리도 충분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덮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몸을 숨길 만한 작은 경
계도 없었다. 최정임 씨는 체육관에서의 잠자리를 이렇게 말했다. “체육관에서 거기서 뭐 잠자고 이렇게 뭐 누울
자리도 없고” 누군가 텐트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잘라 말했다. “텐트 없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다. “그냥 땅바
닥에 쪽 누워가 이불 예.” 또 “우리 자는 데는 텐트 없었대. 저거라 그거 왜 체육관 안이라 가 그치 좀 널라서(넓어
서) 좀 추워봐도 그냥 주는 이불 덮고.”

최정임 씨의 증언을 통해 체육관의 첫 며칠이 더 선명해진다. 텐트는 없었다. 처음부터 개인 공간이 나눠져 있었
던 것도 아니다. 바닥에 쪽 누웠다. 그 넓고 트여있는 체육관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잤다. 3월이라 추웠다. 사람들은 불을 피해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는 바닥의 냉기와 싸워야 했다. 노인
들이 많은 마을에서 찬 바닥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66

왜 안 불편해,
이리 큰 데 마카
이리 자고 그랬지

99

대피소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이 줄어드는 경험이다. 누울 때 몸을 얼마나 접어야 하는지, 옆 사람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화장실을 가려면 누구 사이를 지나야 하는지, 내 물건을 어디에 뒀어야 하는지, 밤에 기침이 나면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는지, 그런 사소한 감각들이 모두 사람을 지치게 한다. 체육관 바닥에 누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했다. 내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닌가. 이불이 옆 사람에게 닿는 건 아닌가. 화장실에 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하나. 내 가족은 어디에 있나. 집은 댔나. 내일은 어디로 가나. 김선기 씨도 체육관 생활을 불편하게 기억했다. 시민대응단이 “거기 대피해 있을 때는 안 불편해하셨어요?”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왜 안 불편해, 이리 큰 데 마카 이리 자고 그랬지.”

“왜 안 불편해.”라는 한탄 섞인 대답은 대피소가 불편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잠시 보호받았지만, 편히 머물지는 못했다. 체육관은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활을 세밀하게 돌보는 공간은 아니다. 특히 재난 직후의 체육관은 잠자리, 식사, 가족 확인, 구호물품 배분, 정보 전달, 불안, 울음, 피로가 한꺼번에 뒤섞인 장소였다.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기능을 떠맡은 공간이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 체육관에서 마을회관 31개소로 분산 배치된 시점은 재난 10일 후인, 4월 4일이었다. 재난

20일 후인 4월 11일에는 영덕군이 “이재민 100% 구호 완료”라고 선언하며 체육관 구호소를 공식 종료했다. 이렇듯 서류 속 시간은 ‘구호완료’라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체육관에서의 며칠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은 집의 생사를 모른 채, 바닥에서 자고, 불빛을 보고, 전기를 걱정하고, 가족을 확인하고, 다음 거처를 기다렸다. 행정이 보는 하루와 이재민의 하루는 길이가 달랐다. 김선기 씨의 기억 속에서는 그 시간이 더 길게 남아 있었다. “그것도 한… 한 달쯤 있었나, 거기도 있다가 올라왔지.” 이처럼 실제 행정 일정과 개인의 기억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하다.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체육관의 며칠은 한 달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바닥에 누워 자고, 불안을 견디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이 반복되면, 날짜는 흐릿해진다. 정확한 일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몸에 어떻게 남았는가다. 체육관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체육관의 경험은 마치 어제 일처럼 반복되었다.

체육관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물리적 불편만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상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장소였다.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는 아직 모른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무엇을 다시 살 수 없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체육관 바닥에 앉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씩 떠오른다. 틀니. 약. 돈. 반지. 통장. 옷. 농기계. 사진까지. 집 안에 두고 온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으로 돌아온다. 그 순간 체육관은 상실의 목록을 처음 작성하는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는다. 뭐 챙겨 나왔나. 집은 어떻게 됐나. 누구 집은 탔다더라. 누구는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더라. 말이 오갈수록 상실은 더 구체화된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지 못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가도 되는지, 마을이 어느 정도 탔는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내 이름은 등록되었는지,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대피소는 사람을 모으는 기능은 했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한 번에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수용’은 되었지만 ‘안내’는 충분하지 않았고, ‘대피’는 되었지만 ‘생활’은 시작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체육관 안에서 계속 기다렸다.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다음 이동을 기다렸다. 행정에 기록된 체육관에서의 열흘은, 이재민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

간이었다.

첫 번째 임시주거지였던 체육관을 어떤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불길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간 곳. 집을 잃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몸으로 느껴진 곳. 살아왔다는 안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동시에 생긴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불이 더 번지지 않기를 기다렸고,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밝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집이 있었다.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자 체육관의 질문은 다음처럼 바뀌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견뎌다.
그렇다면 내일 밤은 어디에서 견뎌야 하는가.”**

체육관의 시간 뒤로 마을회관의 시간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계속 살 수 없었다. 대피소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행정은 사람들을 다시 각 마을회관이나 임시 공간으로 옮겼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월 4일, 이재민들은 체육관에서 마을회관 31개소로 분산 배치되었고, 이재민 1135명은 서류상 ‘임시주거 중’으로 기재되었다. 4월 11일에는 체육관 구호소가 공식 종료되었다. 문서상으로는 재난 대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다만 회관은 체육관과 달랐다. 체육관은 거대하고 낯설고 과밀한 공간이었다. 불빛이 보이고, 사람이 물리고, 잠 자리가 제대로 나뉘지 않고, 누구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첫 충격의 공간이었다. 반면 회관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곳이었다. 원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마을 일을 의논하던 자리였다. 그래서 회관에는 불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회관에서 서로를 다시 만났다. 누가 살아 나왔는지 확인했고, 밥을 나누었고, 필요한 것을 물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체육관에서 헤어졌던 이름들이 회관에서 조금씩 다시 붙었

다. 회관은 집은 아니었지만, 공동체의 관계가 남아 있는 공간이었다.

마을회관은 재난 이후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킨 공간은 아니지만, 체육관처럼 낯선 대피소만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어떤 성격인지, 누가 몸이 아프는지, 누가 혼자 있으면 불안한지, 누가 밥을 잘 못 챙겨 먹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모이는 일은 때로 피로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버틸 힘도 만들었다. 볼 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혼자 아니다”라는 확인이었을지 모른다. 회관은 그 확인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회관이 회복의 공간이었다고 해서 그곳이 집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회관은 낮에 모이는 공간이지, 긴 밤을 보내는 집은 아니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었지만, 오래 함께 있으면 사생활이 부족했다. 누군가의 기침이 들렸고, 누군가의 뒤척임이 들렸고, 공기가 답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체육관이 재난의 충격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장소였다면, 회관은 그 충격 이후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으며 버티기 시작한 장소였다. 불편이 있었지만, 동시에 관계가 작동했다. 고통이 있었지만, 혼자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는 얼굴들이 있었다. 최정임 씨는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한두 달까지는 다 모여 있었었습니다”라고 했다. 그 말 안에는 불편도 있지만, 동시에 재난 이후 사람들이 서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도 들어 있다. 회관은 집을 대신하지 못했지만, 혼자 남겨지는 것을 조금은 막아주었다. 김선기 씨도 이웃들이 함께 들어오니 자신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식으

66

처음에는 한두 달까지는
다 모여 있었었습니다

99

66

이 동네 안 들어온다캐시면 우리도못 들어왔지이 위에 집이가 들어온다카니까네 그래 들어왔지

99

로 그 때를 회상했다. “이 동네 안 들어온다 캐시면 우리도 못 들어왔지. 이 위에 집이가 들어온다 카니까네 그래 들어왔지.” 함께 있으니까 들어왔다. 이 말은 회관과 마을 공동체가 가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회관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고,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공간이 되었다. 회관에 서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작은 시작도 있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체육관의 괴로움을 지우지 못했다. 재난 이후 첫 피난처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그 밤을 얼마나 춥고, 복잡하고, 불안하게 통과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시주거 중’이라는 행정의 언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고통을 놓치게 된다.

잠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이재민이 집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으로 잠을 꼽았다. 낮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를 만나고, 밥을 먹고, 필요한 것을 챙기고, 행정 절차를 묻고, 지원 물품을 받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바깥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 밤은 사람을 눕힌다. 눈을 감게 한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집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 불타던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놓고 나온 물건들

이 떠오르고, 회관의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고, 옆 사람의 기침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일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다시 깨어난다. 불길은 꺼졌는데 몸은 꺼지지 않는다. 눈은 감았는데 신경은 계속 켜져 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다. 잠은 몸이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밤새 잠들지 못하면, 몸은 어제를 끝내지 못한다. 다음 날이 와도 몸은 전날 밤에 남아 있다. 불이 난 날의 긴장, 체육관의 혼잡, 회관의 기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컨테이너의 소리, 누군가의 움직임, 누군가의 한숨이 몸 안에 계속 남는다.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재난은 과거가 되지 않는다. 매일 밤 현재가 된다. 그러니 재난 이후 주거의 문제를 말할 때 잠을 빼놓을 수 없다. 집은 잠드는 곳이다. 잠들 수 없다면, 그곳은 아직 집이 아니다.

체육관과 회관의 밤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었다. 이를 가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 누군가 밤새 깨어 있는 기척. 여럿이 함께 자는 공간에서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진다. 낮에는 말소리와 움직임에 섞여 있던 소리들이 밤에는 하나씩 떠오른다. 누군가는 잠든다. 누군가는 잠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누군가는 자는 척한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간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 이어졌다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애자 씨는 그날 이후로 깊은 잠을 잃었다. “자도 자도 어떤 때 자도 그냥 깊은 잠이 아니고 알개 소리 다 들리고 그래 자고 밤새들 잠 못 잘 때도 있고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게 그제 제일 힘들어.”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다.” 재난 이후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먼저 설명된다. 집이 탔다. 발이 탔다. 돈이 탔다. 옷이 탔다. 사진이 탔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진다. 잠이 타들어가고,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몸은 시들어간다. 행정은 집의 소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잠의 소실을 쉽게 확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에게 잠을 잃는 일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루 이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힘듦을 호소하는데, 재난을 겪은 이들에게 잠까지 자지 못하는 상황은 오죽 힘든 일이

였겠는가. 이애자 씨는 회관 생활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밤이 되면 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낮에도 잠이 오지 않지만, 밤이 되면 오히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진다고 했다. 합숙하던 때, 여럿이 함께 자던 때, 누군가는 이를 갈았고, 그 소리 때문에 몸이 예민해졌다고 했다.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 그래 저기 합숙할 때 그때 여럿이 잘 끼네(자니까) 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네. 그때 수면 패턴이…”라고 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낮선 잠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며칠 지나면 관찮아지겠지. 집이 생기면 관찮아지겠지.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관찮아지겠지. 그러나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66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
피곤하고 항상 눈이 아파
눈에 염증도 오고…
안과 댕겨도 안 나요

99

그는 수면제를 먹어보았다. 멜라토닌도 먹어보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수면제 사가지고 그냥 안 올 때 먹고 그냥 뭐 멜로타닌(멜라토닌)인가 뭐 그런 거 사 먹어 봐도 안 돼… 머리만 아프고” 잠이 안 오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다. 눈도 아프다. 몸이 빠근하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더 크게 느껴진다. 잠은 통증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한데, 잠이 사라지면 통증은 밤새 사람 곁에 앉아 있곤 한다. 이애자 씨는 “피곤하고 항상 눈이 아파. 눈에 염증도 오고 안과 댕겨도 안 나요”라고 했다.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라고 했다.

이것이 임시 거처 생활의 보이지 않는 피해다. 낮선 공간에서 자는 일, 여럿이 함께 자는 일, 밤마다 소리를 듣는 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그것은 수면 패턴을 무너뜨리고, 눈과 머리와 허리와 무릎을 아프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하루 전체를 무너뜨린다. 잠을 못 잔

사람은 낮에도 피곤하다. 낮에 피곤하면 움직임이 줄어든다. 움직임이 줄면 몸이 더 굳는다. 몸이 굳으면 밤에 더 아프다. 밤에 아프면 또 잠이 오지 않는다. 재난 이후의 임시 생활에서 이렇게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길다. 잠든 사람에게 밤은 지나가지만, 잠들지 못한 사람에게 밤은 지나가지 않는다. 시계가 움직여도 몸의 시간은 멈춰 있다. 눈을 감고만 있어도 좋다고 누군가는 말한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 다리가 저리고, 몸이 뒤척이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면 누워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이애자 씨는 말했다. “감고만 있어서 잠 안 오니까 이 다리가 막 저어 못 들어 있어… 다리가 저리고 이러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밤도 길어.”

밤도 길다. 재난 이후 시간은 낮보다 밤에 더 길어진다. 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으면, 누워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기억과 통증을 모두 혼자 견뎌야 한다. 그 긴 밤을 행정은 어떻게 기록할까. “임시주거 중”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 밤의 길이를 담지 못한다. 최영섭 씨에게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민대응단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했다. 잠을 잘 수 있을까 해서 커피도 끊어보았다고 걷기 운동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잠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잠은 못 자가지고 수면제도 먹고…”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커피도 안 먹어보고 끊어보

66

감고만 있어서

잠 안 오니까 이 다리가

막 저어 못 들어 있어…

다리가 저리고 이러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99

고 이러면 또 잠이 올까 싶어가...”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그래 가지고 그리 하면 이제 또 잠이 잘 올까 싶어 이랬는데 그리 해도 맨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각자 방법을 찾는다. 커피를 끊어보고, 운동을 해보고, 약을 먹어보고, 따뜻한 물을 마셔보고, 눈을 찜질해보고, 밤마다 몸을 달래본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 이후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밤은 안정되지 않는다.

이미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된 이들이 벽이 얇고, 바람 소리가 크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여럿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공간에서 당연히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은 수면을 주거의 조건으로 생각했을까.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 상황은 고사하고, 임시주거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곳에서 사람이 밤마다 잠들 수 있는지 확인했을까. 바람 소리가 어떤지, 벽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 사람이 모여 잘 때 누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고령자의 관절과 허리가 바닥 생활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했을까. 임시주거의 최소 기준은 면적이나 수량만으로 정할 수 없다. 잠들 수 있어야 한다. 밤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애자 씨의 《회관과 체육관에서》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어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개인 증상이 아니다. 그것은 임시 거처가 집이 되지 못했다는 증언이다. 집은 잠을 허락하는 곳이다. 집은 밤이 왔을 때 몸이 내려앉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재난 이후 사람들은 몸을 눕혔지만 잠들지 못했다. 수면제도 듣지 않았고, 멜라토닌도 듣지 않았고, 커피를 끊어도 소용없었다. 불은 꺼졌지만, 몸의 경보는 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사람들을 체육관과 회관과 컨테이너에 옮겨놓았다고 해서, 그들은 정말 쉬고 있었는가. 행정은 그들을 “임시주거 중”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거’했는가? 불길을 피해 살아 나온 사람들은 잠을 잃었다. 그리고 잠을 잃은 사람에게 재난은 끝나지 않는다.

**혼자 남겨진 사람들,
집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하게 되었나**

재난 이후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고립'에 노출되었다. 체육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고, 회관에서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았던 이들은, 임시주택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문을 닫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을 닫을 수 있게 된 순간, 사람들은 또 다른 두려움과 마주했다. 불길을 피해 살아 나왔고, 임시로라도 머물 공간이 생겼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무서웠을까. 왜 해가 떠 있는데도 마음은 어두워졌을까. 왜 바람 소리 하나, 바깥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 몸이 먼저 굳었을까.

집이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었다. 문을 닫고 누워 있는 시간,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 밥을 먹고 설거지를 미뤄둔 채 잠시 등을 기대는 시간.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집이 사라진 뒤 이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 혼자 있음은 낯선 고립이 되었다. 문을 닫아도 내 집의 문이 아니고, 누워도 내 방의 천장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내 부엌의 냄새가 아니었다. 산불이 집을 앗아간 뒤,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상실의 재확인이었다. 정말 내 집이 없구나.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정말 내가 이 작은 임시주택에 혼자 남아 있구나.

이 불안은 밤에만 찾아오지 않았다. 밤이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어두워서만 무서운 것도 아니었다. 재난 이후의 공포는 낮에도 남았다. 햇빛이 들어와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다. 바깥이 환해도 안심되지 않았다. 사람이 사라진 시간, 말소리가 멎은 시간,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남은 시간에 불안은 더 또렷해졌다. 누군가 찾아오면 괜찮은 듯하다가, 돌아가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었다. 문밖에서 소리가 나면 누가 왔나 싶어 귀가 먼저 움직였다.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리는지 살폈다. 낮인데도 몸은 밤처럼 긴장했다. 최정임 씨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했

다. 누군가 낮인데도 무섭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답했다. “응, 낮인데도 무서워.”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저녁이라 무섭고 그래 허전하고 마음도 그런데 낮이라 해도 안 다르고. 그래 이래 살면 뭐 하나 싶더라.”

66

저녁이라 무섭고 그래
허전하고 마음도…
그런데 낮이라 해도
안 다르고…
그래 이래 살면
뭐 하나 싶더라

99

이는 재난 대응의 가장 깊은 공백을 보여 준다. 컨테이너든, 임시주택이든, 새로 마련된 공간이든, 그곳이 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이재민은 자기 마음을 붙잡아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낮에 갈 곳, 만날 사람, 함께 밥 먹을 자리, 안부를 묻는 목소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주 공간은 조금씩 집이 되어간다. 그런데 그 과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 혼자 남겨진다. 공간은 주어졌지만 일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낯선 공간이 되고, 홀로 남은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이 된다. 저녁이 무섭다는 말을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 이후 이재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기저를 살피고, 어떤 심리적 지원이 필요했는지를 헤아려야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저녁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밭에서 돌아오고, 마을 일을 마치고, 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오고, 밥을 차리고,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시간. 저녁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집을 잃은 사람에게 저녁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 주는 시간이 된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내 집은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은

임시 공간이다. 방 안에는 예전의 냄새가 없고, 오래 쓰던 물건도 없고,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도 없다. 나의 상실감과 두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저녁은 허전해진다. 허전함이 오래되면 무서움이 된다. 무서움이 오래되면 “이래 살면 뭐 하나”라는 생각까지 밀려온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마음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재난 이후 일상 회복을 함께 붙잡아 줄 구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불이 꺼진 뒤 필요한 것은 집을 짓는 일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하루를 다시 이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어디로 갈지, 낮에 누구를 만날지, 저녁을 누구와 먹을지,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살필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지, 밤이 무서운 사람을 어떻게 돌볼지. 이런 질문들이 재난 복구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복구는 대개 집과 돈같은 물질적 보상의 단계와 절차로 움직인다. 마음이 하루를 어떻게 건디는지, 혼자 남은 사람이 저녁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회관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불편한 공간만은 아니었다. 회관은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확인한 장소였다. 체육관에서 흩어졌던 이듬들이 회관에서 다시 붙었다. 누가 살아나왔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밥을 못 먹었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며 안심했다. 혼자였으면 더 무너졌을 마음이, 회관에서는 조금 버텼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재난 이후의 공포는 조금 작아질 수 있다. 밥을 같이 먹고, 별일 아닌 이야기를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일은 사소해 보여도 중요하다. 그것은 무너진 일상을 다시 묶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김선기 씨의 경우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니 자신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동네 안 들어온다 했으면 우리도 못 들어왔지. 이 위에 집이 들어온다 카니까네, 그래 들어왔지.” 또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카니 들어왔겠지.”

이 말에는 마을 공동체가 가진 힘이 들어 있다. 공간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먼저 들어오고, 아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다. 재난 이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건물만이 아니다. 익숙한 얼굴이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해해 줄 사람이다. 김선기 씨의 말처럼, “같이 있으니까” 사람은 움직일 수 있었다. 혼자라면 못 했을 일을, 함께라서 했다.

그러나 김선기 씨의 말을 들으면 동시에 의문이 생긴다. 왜 그 회복의 일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떠맡아야 했을까.

왜 일상의 회복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을까.

체육관에서 회관으로, 회관에서 컨테이너로 옮기는 절차는 있었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하루 속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그 안에서 찾기 어려웠다. 같이 밥 먹는 시간, 건강을 살피는 시간, 잠을 못 자는 사람을 확인하는 시간, 혼자 있는 사람의 낯을 채우는 시간, 저녁이 무서운 사람에게 함께 있어 주는 시간. 재난 이후의 심리를 헤아리고 트라우마를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은 재난 이후 회복의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마을 내부의 힘, 이웃의 선의, 가족의 방문, 활동가들의 간헐적인 방문에 기대어 있었다.

회관은 사람들에게 숨을 틔워 준 공간이었다. 하지만 회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회관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임시주택으로 돌아가야 했다. 해가 지고, 문이 닫히고, 말소리가 줄어들면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낮에 함께 웃어도 밤에는 혼자였다. 밥을 같이 먹어도 잠은 각자 자야 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괜찮아진 것 같아도, 저녁이 되면 다시 허전함이 올라왔다. 공동체가 있었지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연결해 주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복은 이어지다 끊기고, 이어지다 끊겼다.

임시주택으로 흩어진 뒤의 고립은 더 선명했다. 컨테이너에 들어가자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 사람 많은 공간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은 분명 필요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찾아오는 적막이 있었다. 낮 동안 들리던 말소리가 사라지고, 회관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얇은 벽을 통과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불이 났던 날의 장면은 조용할 때 더 잘 떠오른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밀어낼 수 있던 기억이, 혼자 있으면 다시 치밀어 오른다. 불이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두고 나왔는지, 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은 밤에만 오지 않는다. 낮에도 온다. 그래서 낮에도 무서운 것이다. 최영섭 씨는 컨테이너 주변의 바람을 두려워했다. “여기는 바람이 세 가지고 바람이 세다니까 겨울에는 겨울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바람이 새가 막 집 날아갈까 봐 겁난다 이기네.” 누군가 밤에도 시끄럽겠다고 하자, 그는 “그렇게 하는 소리도 놓고 해나

집이 이제 이렇게 넘어져...”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바람이 워낙 세.”

바람은 그들에게 그냥 날씨가 아니었다. 산불을 밀고 온 것도 바람이었다. 불뚱을 날린 것도 바람이었다. 집과 발을 한꺼번에 태우는 데 힘을 보탠 것도 바람이었다. 그런 바람을 겪은 뒤, 컨테이너 안에서 다시 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공포가 되었다. 바람이 세면 또 무언가가 날아갈 것 같다. 벽이 흔들리면 또 집이 사라질 것 같다. 불은 없지만, 바람은 남아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밤은 새로운 형태의 대피소가 된다. 불길은 없지만, 몸은 다시 경계한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다. 낮에 혼자 남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일상 회복의 장, 밤에 불안이 심한 사람을 돌보는 방문 지원, 수면과 트라우마를 확인하는 상담,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이동 지원, 컨테이너 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생활 지원. 이런 심리적 지원과 조치가 있어야 임시 거처는 단순한 수용 공간을 넘어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작은 방 안에서 홀로 불안을 견뎌야 한다. 그것은 조용한 방치다.

조용한 방치.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구호품도 왔고, 밥도 나왔고, 임시 거처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촘촘한 연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낮에도 무서웠고, 어떤 사람은 바람에 집이 날아갈까 봐 겁났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기 때문에 겨우 임시 거처에 들어왔다. 이것은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재난 이후 공동체적 회복을 공적 지원의 중심에 놓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빈자리다. 이제 만들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개인의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재난 이후 삭막해져가는 일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재난은 개인의 삶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공동체적 회복에 관한 공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있음은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 힘이 지속되려면 누군가 돌봐야 했다. 회관에 모이는 일, 같이 밥을 먹는 일, 운동을 하는 일, 안부를 묻는 일,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재난을 겪은 마을은 이미 지쳐 있다. 이웃을 챙길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 주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를 살피고 싶어도

자기 집 문제, 보상 문제, 병원 문제, 잠 문제에눌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공동체의 회복을 마을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공동체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재난 이후 공동체는 지원받아야 한다. 공동체가 재난 이후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재민들에게 회관이 그래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회관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서로를 확인하게 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질 사람들을 잠시 붙잡아주었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회관에서의 임시주거 이후,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각자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남겨진 사람들의 무서움이 더 뚜렷해졌다. 낮에도 무섭다는 말, 저녁이 허전하다는 말,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갈 것 같다는 말은 모두 그 흩어진 이후의 증언이다. 공동체가 잠시 붙잡아주었던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 줄 지원이 부족했던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을 잃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붕이었을까. 방이었을까. 아니면 매일 아침 문밖으로 나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낮에 함께 시간을 보낼 자리, 저녁이 무섭지 않도록 이어지는 안부,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는 감각이었을까. 재난 이후의 주거는 벽과 지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 자주 사적인 몫으로 남겨진다. 가족이 오면 다행이고, 이웃이 있으면 다행이고, 활동가가 찾아오면 다행인 일이 된다.

하지만 회복은 그런 '다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사람에게, 바람 소리에도 집이 날아갈까 봐 겁나는 사람에게, 같이 있으니까 겨우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연한 위로가 아니다. 지속적인 일상 회복의 지원이다. 마을이 다시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힘을 잃지 않도록, 혼자 남겨진 시간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다.

불길은 지나갔다. 사람들은 살아 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함께 있었다. 그 함께 있음은 분명히 사람들을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재난의 진짜 고비는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문 안으로 들어간 뒤 찾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집은 아직 집이 아니었고, 혼자서는 아직 휴식이 아니었다. 낮에도 무서웠고, 저녁은 허전했고, 바람은 다시 무언가를 데려올 것 같았다.

행정은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고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 다음에는 다른 질문이 따라붙어야 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지 않았는가. 그들의 낮과 저녁은 누가 함께 붙잡아 주었는가. 불이 꺼진 뒤 마을의 일상은 누가 다시 켜주었는가.

생활의 사소한 것들이

무너졌다

기후재난 이후 평범한 것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일들이 아니게 되었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거처 한 채를 잃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더 자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은 그 집이 해 주던 사소한 기능들이 사라지는 일이다. 이불을 빨 수 없는 일. 약을 제때 먹지 못하는 일. 병원에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일. 가족이 와도 잘 자리가 없는 일. 세탁기가 작아 큰 빨래를 못 하는 일. 커피 한 잔을 마실지 말지 잠 때문에 고민하는 일. 이런 것들은 재난 피해액으로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은 바로 이런 작은 기능이 모여 이루어진다.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빨래하고, 약을 두고, 밥을 해 먹고, 가족을 맞고, 아픈 몸을 눕히고, 계절이 바뀌면 이불을 바꾸는 곳이다. 그 기능들이 무너지면,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다시 재난을 겪는다.

행정은 임시주택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주택을 둘러보면 안에서 이불은 어떻게 빨았는가. 세탁기는 충분했는가. 큰 빨래는 가능했는가. 가족이 찾아왔을 때 어디에서 잤는가. 따위의 질문이 따라붙게 된다. 이 질문들은 자칫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하루는 사소한 일들로 채워져 있다. 사소한 일들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진다. 재난 이후의 주거 문제는 바로 이 사소한 생활 기능의 문제였다.

66

이불 빨래 큰 거를 할라고
가니까 한 개는 가뽏고
한 개는 물려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그거는
못 쓰구나 하고...

99

이불 빨래 하나도 쉽지 않았다. 이불은 집의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다. 잠을 덮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밤을 견디게 하는 것. 그런데 임시 거처에서는 큰 이불을 마음대로 빨 수 없었다. 세탁기가 작았다. 공용 세탁기가 있어도 제대로 쓰기 어려웠다. 누군가 쓰고 있거나, 고장 나 있거나, 물려놓았거나, 사용하기 애매한 상태였다. 집에서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이 임시 거처에서는 계획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이불 하나 깨끗하게 빼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최정임 씨는 세탁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아이고 세탁기가 작아서 이거 뭐 이불도 마음대로 큰 거는 못 빨고” 공용 세탁기를 쓰려 했지만 그것도 역시나 쉽지 않았다. “이불 빨래 큰 거를 할라고 가니까 한 개는 가뽏고(망가지고) 한 개는 물려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그거는 못 쓰구나 하고”

크기의 문제도 있었다. 임시주택으로 제공된 컨테이너에는 거실겸 부엌과 방 한 칸,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혼자 버티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족이 찾아오기에는 협소한 공간이었다. 재난 이후 가족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을 수 있다. 걱정이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 지 보러 오고 싶으니까, 필요한 것을 챙겨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찾아와도 잘 곳이 없다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임시 대기 공간에 가깝다. 집은 나 혼자만 겨우 들어가는 상자가 아니다. 가족이 앉을 수 있어야 하고, 잠시 머물 수 있어야 하고, 아픈 날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잠들 수 있어야 한다. 임시주택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은 가족의 도움마저 온전히 받기 어렵다. 최정임 씨는 말했다. “아들 데리고 오면 그래 잘 자리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아주 간단히 바꿨다. “방 한 칸만

더 달았으면.” 방 한 칸. 이 말은 욕심이 아니다. 삶의 최소 단위다.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앉을 자리, 아픈 몸을 누일 자리, 짐을 둘 자리, 마음을 나눌 자리. 그런데 임시 거처에서 방 한 칸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행정 지원이 세대 수에 맞춰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도, 실제 생활은 세대원 수와 방문 가족과 돌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방 한 칸이 없다는 것은 단지 좁다는 말이 아니다. 관계가 머물 공간이 없다는 말이다.

약도 문제였다. 산불이 난 밤, 사람들은 몸만 빠져나왔다. 약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약은 부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 약은 생활의 일부다.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 저녁에 먹어야 하는 약,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 집이 탔으니 약도 잿더미가 되었다. 약이 사라졌으니 몸의 리듬도 끊겼다. 재난 이후의 첫 지원은 먹을 것과 잘 곳 만이 아니라, 약의 복구여야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약도 다시 찾아야 하는 일이 되었다. 배분연 씨는 불이 난 뒤 약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을 가지고(가고 싶었는데) (불이) 약도 다 덮어버렸어요(약을 다 태워버렸어요). 저녁에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불이 싹 다 덮어가지고 약도 없어 가지고… 영덕 보건소 며칠 있다 가가 그래 이제 약을 줘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 보니.”

“얼마나 답답한 세월.” 이 말은 재난 이후를 살아가는 이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잘 보여 준다. 약 하나를 다시 받는 일도 한 세월처럼 느껴졌다. 당뇨와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약이 없다는 것

66

불이 싹 다 덮어가지고약도 없어 가지고…영덕 보건소 며칠 있다가가 그래 이제 약을 줘요얼마나 답답한 세월 보니

99

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불안이다. 내일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이 없다는 것. 몸의 대사를 조절해 주던 작은 알약들이 잿더미 속에 사라졌다는 것. 보건소에 가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재난을 몸으로 체감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이애자 씨에게도 병원과 약은 계속되는 문제였다. 관절이 좋지 않아 포항에 약을 타러 가야 했다. 잠이 오지 않는 문제도 병원에서 물어보려고 했다. “요번에 이제 약 타러 가면 포항에 가거든요 관절이 안 좋아가 관절 약 먹고 있거든 포항에 가면 이제 이것(불면증)도 물어보려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재난 이후 병원은 더 중요해진다. 잠이 무너지고, 관절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병원과 약은 생활을 유지하는 축이다. 그런데 재난 이후에는 병원에 가는 동선도, 약을 보관하는 자리도, 진료를 이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 흔들려버린다.

66

사는 게 뭐 그렇지 자고
뭐 밥 해 먹고 그렇지…
그래도 할 수 없지…

99

세탁기, 방 한 칸, 약, 병원. 이 네 가지를 보면 임시주거의 허점이 드러난다. 행정은 공간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은 공간만으로 되지 않는다. 생활은 기능이다. 빨래할 수 있어야 하고, 약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머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 누울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능들이 빠지면, 임시주거는 몸을 넣어 두는 공간에 그친다. 김선기 씨는 체념했다. “사는 게 뭐 그렇지. 자고 뭐 밥 해 먹고 그렇지… 그래도 할 수 없지…” 이 말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자고, 밥 해 먹고, 그렇게 산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렇게



66

이제는 살아가면
하나하나 해야지
너무 이래 피해 끼치고...

99

사지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있어야지.” 이 말은 임시 거처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산다. 살 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산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 들어간다. 갈 데가 있어야 나간다.’

최영섭 씨가 느꼈던 실생활 지원의 부족, 이로 인한 고민은 시민대응단과 함께했던 자화상 그리기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최영섭 씨는 자기 얼굴을 검은색으로 그렸다. 그림 속 표정을 보며 “고민이 많아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때는 삶의 의미가 흔들릴 만큼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장난처럼 받아 들여졌다고 느꼈다. 그 서운함은 다시 고립감이 되었다. 몸을 그리다면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운동하는 모습을 말했다.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하지만, 몸은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 두 이미지가 최영섭 씨 안에 함께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원을 모른 척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밥을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했고, 계속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조심했다. 이재민들은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참고,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려 했다. 최영섭 씨는 필요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살아가면 하나하나 해야지 너무 이래 피해 끼치고...” 이 말은 이재민의 품위를 보여 준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더 세심해야 했다. 참고 말하지 않는다고 불편이 없



1 최영섭 씨가 그린 자화상

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재난 이후 생활의 어려움은 큰 사건으로만 오지 않는다. 작은 불편이 매일 반복되며 사람을 지치게 한다. 오늘 이불을 못 빨고, 내일도 못 빨다. 오늘 밤 잠을 못 자고, 내일도 못 잔다. 약을 다시 받아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가족이 와도 잘 곳이 없고, 세탁기는 작고, 방은 좁고, 바람은 세다. 사람은 큰 슬픔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반복 되는 작은 불편으로도 무너진다. 그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임시 생활은 단순한 임시가 아니라 긴 재난이 된다.

임시주거 지원에서 잠을 포함했는가. 가족을 포함했는가. 약을 포함했는가. 빨래를 포함했는가. 혼자 있는 무서움을 포함했는가.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의 주거였는가. 집이란 단지 지붕과 벽이 아니다. 집은 이불이고, 방문이고, 가족이 앉는 자리이고, 약통이고, 세탁기이고, 밤에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감각이다. 신안리 사람들은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잃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재난은 다시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되었다.

불은 꺼졌지만

꿈에서 불은 계속 타고 있다

불은 언젠가 꺼진다. 소방차가 지나가고, 헬기가 물을 뿌리고, 연기가 잦아들고, 뉴스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간다. 산불은 공식적으로 진화된다.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서 불이 꺼지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떤 불은 꿈속에서 다시 탄다. 어떤 불은 밤마다 눈꺼풀 안쪽에서 다시 번진다. 어떤 불은 바람 소리만 들려도 되살아난다. 실제 불은 꺼졌지만, 몸은 아직 불을 기억한다. 그래서 재난 이후의 임시 거처는 단지 잠잘 곳의 문제가 아니다. 그곳은 불을 기억하는 몸이 다시 밤을 보내야 하는 곳이다.

66

며칠 전에도 꿈을 꾸는데이놈을 꾸면 불타는꿈이 막 아래우차 불타는 게 막 타고이러는 거 깨보니까꾸미더라...

99

집을 잃은 사람은 낮에는 현실을 수습한다. 어떤 물건이 탔는지 확인하고,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묻고, 지원 절차를 듣고,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러나 밤이 오면 수습할 수 없는 것들이 올라온다. 불타는 장면, 새로 변한 집, 놓고 나온 돈, 사라진 반지, 타버린 옷, 불길 속의 마당, 발밑으로 날아들던 불똥. 낮에는 잊은 척할 수 있지만, 꿈은 잊히지 않는다. 꿈은 행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꿈은 복구비를 기다리지 않는다. 꿈은 바로 그날 밤으로 사람을 데려간다. 배분연 씨는 불타는 꿈을 꿔다고 했다. “며칠 전에도 꿈을 꾸는데 이놈을 꾸면 불타는 꿈이 막 아래 우차 불타는 게 막 타고 이러는 거 깨보니까 꾸미더라.”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사는 게 그게 막 황덕이 불이 버릇한 게 막 확확 올라가더라고… 내가 그거 아주 불타는 게 어디 머릿속에 들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활활 다 그렇게 꾸미더라고”

“불타는 게 어디 머릿속에 들어 있었나.”

많은 이재민들의 재난 이후 심리 상태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불은 산에서 꺼졌지만 머릿속에선 그렇지 않았다. 머릿속 불은 밤마다 다시 탄다. 꿈에선 그 누구도 불을 꺼주지 않는다. 오히려 꿈속에서 불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집이 활활 타고, 불길이 다시 올라오고, 깨어나면 꿈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몸은 이미 다시 산불을 겪은 뒤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안전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현실로 돌아온다. 집은 여전히 없고, 임시 거처는 낯설고, 밤은 여전히 길다.

불타는 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너무 큰 일을 겪으면 그 일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한다. 불이 났고, 집이 탔고,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그것을 오래 처리한다. 꿈은 일련의 처리과정이자 트라우마의 발현이다. 그러나 그 꿈이 반복되면 사람은 쉬지 못한다. 잠들어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난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고통과 불타는 꿈은 서로 이어진다. 잠이 안 오면 밤이 길어지고, 잠이 들면 불이 다시 탄다. 어느 쪽이든 밤은 평화롭지 않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배분연 씨의 절망은 꿈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과 물건이 모두 사라진 뒤, 그는 아주 직접적인 말을 했다. “그게 그런 건 참말로 뭐 차라리 죽어보면 낫겠더라. 아무것도 없이.” 또 말했다. “지금도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고 막 그때 죽어버렸으면 잊어버릴 걸… 이런 생각 한다.” 이런 이재민의 증언은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명심해야 한다. 재난 이후의 임시주거가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의 의지를 흔드는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다는 감각. 손에 남은 것이 텅 비었다는 감각. 집도 물건도 돈도 추억도 사라진 뒤, 몸만 남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무너뜨리는지 이 증언은 보여 준다. 최정임 씨의 무서움도 같은 선 위에 있다. 그는 낮에도 혼자 있기 무섭다고 했다. 저녁이 무섭고 허전하다고 했다. “이래 살면 뭐 하나 싫더라”라고 했다. 불이 꺼진 뒤에도 마음은 계속 불길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재난 이후의 공포는 항상 큰 비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낮에도 무섭다는 말로, TV를 자주 틀지만 질린다는 말로, 저녁이 허전하다는 말로 나온다. 집이 사라지면 사람은 외부의 위험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66

지금도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고
막 그때 죽어버렸으면
잊어버릴 걸…
이런 생각 한다
이래 살면 뭐 하나 싫더라

99

빈자리도 무서워하게 된다. 조용한 시간이 오면 그 빈자리가 커진다.

불타는 꿈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또 다른 방식의 반복이다. 이애자 씨의 밤도 계속 깨어 있었다.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라는 말, “밤도 길어”라는 말은 불이 꺼진 뒤에도 몸은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낯선 소리 속에서, 컨테이너나 회관의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한다. 불을 한 번 겪은 몸은 쉽게 안심하지 않는다. 바람 소리, 누군가의 기침, 벽의 흔들림, 어두운 밤이 모두 경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행정의 시간은 종종 진화 완료, 구호소 운영, 임시주택 발주, 입주 예정 같은 단계로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의 시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불이 꺼졌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지 않는다. 집을 잃은 마음은 계속 뒤돌아본다. 잿더미를 보고, 불타던 꿈을 꾸고, 없어진 물건을 떠올리고, 밤마다 소리에 놀란다. 그래서 재난 이후 회복은 주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문제다. 임시주거가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그곳은 단지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을 진정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안리 사람들의 증언 속 임시 거처는 오히려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도 했다. 회관의 소리, 컨테이너의 바람, 좁은 방, 빨지 못한 이불, 잠 못 드는 밤이 불의 기억과 겹쳤다.

불은 산에서 꺼진 뒤 사람의 머릿속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탔다. 행정이 피해 면적을 계산하고, 복구비를 산정하고,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동안에도 그 불은 밤마다 이재민들의 머릿속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러니 재난 이후의 질문은 단지 “집을 얼마나 빨리 제공했는가”가 아니다. 그 집이 사람의 머릿속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었는가. 그곳에서 사람이 잠들 수 있었는가. 그곳에서 저녁이 덜 무서웠는가. 그곳에서 바람 소리가 재난이 아니라 날씨로 들렸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임시주거는 몸을 옮겼을 뿐 마음을 옮기지 못한 것이다.

불은 꺼졌다. 그러나 꿈은 계속 탔다. 잠을 자고 싶어 노력해도 자지 못했던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계속 불이 나고, 바람 소리에 두려운 감각이 살아났던 순간들. 왜 기후재난 이후에도 이재민들은 이러한 일상을 겪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재난 이후 사람들에게 제공된 임시 공간이 사람의 일상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길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은 다시 밤과 싸워야 했다. 잠과 싸워야 했다. 꿈과 싸워야 했다. 바람과 싸

워야 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불은 한 번 지나갔지만, 임시 생활은 그 불을 매일 조금씩 되살렸다.

행정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 중” 상태에 있다고 기록했다. 그 말은 너무 깨끗했다. 그 안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체육관도, 밤새 번쩍이던 불빛도, 한두 달 동안 사람들이 모여 있던 회관도, 공기가 나쁘다는 말도, 잠 못 자는 밤도, 수면제와 멜라토닌도 듣지 않는 몸도, 낮에도 혼자 있기 무섭다는 마음도, 바람에 집이 날아갈까 봐 겁난다는 컨테이너도, 마음대로 빨 수 없는 이불도, 챙기지 못한 약도, 불타는 꿈도 들어 있지 않았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잠들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은 공간, 함께 있어도 숨 막히지 않는 공간, 약을 챙기고 이불을 빨고 가족을 맞을 수 있는 공간, 밤마다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는 공간. 그러나 신안리 사람들은 그 공간에 너무 늦게, 너무 어렵게 도착했다. 그 사이 그들은 체육관에서, 회관에서, 식당에서, 컨테이너에서 하루씩 버텼다.

불길을 피해 살아 나온 사람들은 정말 구조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그날 이후, 집이 아닌 곳에서 또 다른 재난을 살아내야 했던 것일까. 행정은 “임시주거 중”이라고 썼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잠을 잃고, 마음을 잃고, 저녁을 잃었다. 불은 꺼졌지만,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1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택, 시민대응단은 이 곳에서 이재민을 만났다.





9

재정 지원 계획의 규모는 발표되었지만, 삶에 스며들지 못했다

1조 8천억 원은

누구의 통장에 도착했는가?

불이 지나간 뒤, 마을에는 또 다른 숫자가 내려왔다. 이번에는 풍속도, 피해 면적도, 진화율도 아니었다. 돈이었다. 1조 8,809억 원. 재난 복구비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숫자는 거대했다.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였다. 뉴스 화면에는 그 숫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정부는 복구비를 확정했다고 말했고, 행정은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문서에는 피해액이 적혔고, 복구 계획이 적혔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비율이 적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는 이재민의 방으로, 무너진 부엌으로, 약값으로, 새 지붕으로, 새로 산 농기계로 이어졌을까? 더 정확히 물어야 한다. 그 숫자가 발표된 날, 이재민들은 정말 자기 삶이 복구되고 있다고 느꼈을까?

복구액은 발표되었다. 그러나 발표된 복구액과 제공된 보상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행정의 숫자는 한 번에 내려왔지만, 사람의 삶은 한 번에 복구되지 않았다. 집을 잃은 사람은 당장 잘 곳을 걱정했고, 농기계를 잃은 사람은 다시 농사를 지을 방법을 걱정했고, 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산에서 송이를 따던 사람은 실제 생계가 끊겼지만 보상 항목 앞에서 멈춰 섰다. 임시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 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 걱정했다. 재난

은 불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는 서류와 통장과 고지서의 시간이 이어졌다.

불길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이재민이었다. 그러나 서류 앞에서는 다시 달라졌다.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증명할 수 없는 사람. 불은 한꺼번에 태웠지만, 보상은 사람을 하나씩 나누었다.

그래서 이 장의 질문은 이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1조 8,809억 원은 어디에 도착했는가. 그 큰돈은 정말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삶에 닿았는가. 아니면 숫자는 크게 발표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는가. 이 장에는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에서부터 국민 성금 1,700억 원, 그리고 실제 개인 복구비 지급까지의 공백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불이 꺼진 뒤,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섰다. 이번에는 대피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아니었다. 서류 앞의 줄이었다. 보상 기준 앞의 줄이었다. 통장에 찍히지 않은 돈을 기다리는 줄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물어야 했다.

**내 집은 얼마인가. 내 밭은 얼마인가.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돈으로 적히지 않는 것들은, 대체 어디에 말해야 하는가.**

1조 8천억 원이라는 말은

누구의 하루를 바꾸었나

큰 숫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 뉴스 화면 아래로 “복구비 확정”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1조 8,809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멀리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지원이

되겠구나. 이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이 가겠구나. 이제 무너진 마을도 다시 일어나겠구나.’ 숫자는 크고, 문장은 단정하다. ‘복구비가 확정되었다. 지원이 진행된다. 피해 주민을 돕겠다.’ 행정의 언어는 그렇게 재난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그러나 마을 안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았다. 숫자는 발표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해야 했다. 오늘 먹을 것은 있는지, 약값은 어떻게 할지, 컨테이너에서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집을 다시 지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보험이 없으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내가 잃은 물건들은 서류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텔레비전 속 숫자는 조 단위였지만, 이재민의 하루는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단위로 움직였다. 거대한 복구비 발표와 실제 생활 사이에는 아주 긴 거리가 있었다.

돈은 발표되는 순간부터 사람을 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돈은 발표되는 것과 도착하는 것이 다르다. 도착하는 것과 쓸 수 있는 것도 다르다. 쓸 수 있는 것과 삶을 다시 세울 만큼 충분한 것도 다르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복구비 확정’이 하나의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된다.

행정의 숫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정부가 발표하고, 지자체가 설명하고, 부서가 배분하고, 담당자가 확인한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다. 내 이름은 들어갔는지, 내 피해는 인정되었는지,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내 집은 몇 평으로 계산됐는지, 내 창고는 포함됐는지, 내 농기계는 인정되는지, 내 밭은 어떻게 되는지, 내 통장에는 언제 들어오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서류와 통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숫자는 한 번에 발표되지만, 삶은 항목별로 쪼개진다. 집, 창고, 농기계, 가재도구, 산, 밭, 묘목, 보험, 성금, 공과금. 불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태웠는데, 복구는 수많은 칸으로 나뉘었다.

지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이재민들은 매일 고민했을 것이다. 오늘은 들어왔을까. 내일은 들어올까. 누구는 받았 다던데, 나는 언제일까. 얼마가 나올까. 그것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집을 못 지으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지원금을 기다리는 것은 돈을 많이 받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다.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물건들을 잃게 된 이

재민들에게 지원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삶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불은 이미 지나갔는데, 복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 그 사이에서 하루는 길어졌다.

더구나 그 1조 8천억 규모의 복구비가 모두 이재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복구비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나뉘었다. 도로, 산림, 국가유산 같은 공공시설 복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론 무너진 도로도 복구되어야 하고, 불에 탄 산림도 다시 살려야 하고, 공공시설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 사람이 평생 잠들던 방, 장롱 안의 옷, 창고에 있던 농기계, 내년에 쓸 비료, 몇 해 뒤 열매를 맺을 묘목, 매일 손으로 만지던 살림은 어떤 비율로 복구비 안에 들어갔을까. 공공의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개인의 삶은 얼마만큼 회복되었을까.

도로는 지도 위에 선으로 남는다. 산림은 면적으로 계산된다. 공공시설은 예산 항목으로 묶인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정하게 묶이지 않는다. 집 안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은 물건들이 많다. 오래 입어 몸에 맞아버린 옷, 수의로 마련해 둔 한복, 물컵에 담가두고 나온 틀니, 서랍 속에 둔 반지, 장롱 밑에 넣어 둔 현금, 손때 묻은 농기구, 십몇 년 동안 조금씩 정리한 집 뒤안의 나무와 돌 행정은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액은 상실의 총량이 아니다. 사람이 잃은 것은 물건값보다 크고, 서류가 인정하는 것보다 넓다.

재난 직후 이재민들의 손에 닿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돈이었다. 갑자기 집을 잃은 사람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중요하다. 옷을 사고, 약을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며칠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그 액수는 처음부터 한정적이었고, 집이 전소되고 농기계가 타고 옷과 이불과 살림이 모두 사라진 사람 앞에서 그 돈은 너무 빨리 작아졌다. 며칠만 지나도 돈은 옷값과 약값으로, 휴대전화 충전기와 속옷과 양말로, 당장의 끼니와 이동할 교통비로 흘러 나갔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생존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회복의 끝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잠을 되찾을 수 없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없고, 불탄 장비를 다시 살 수 없고, 3년 뒤 열매를 맺을 묘목의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다. 손에 쥔 돈은 잠시의 첫 숨처럼 안도를 주었지만, 한 번 숨을 쉬었다고 쓰러진 사람이

다시 걷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급된 금액은 끝내 이재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 메우지 못한 채, 그들의 삶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발표와 지급 사이의 시간도 문제였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다. 확인해야 하고, 산정해야 하고, 배분해야 하고, 지급해야 한다.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민에게 닥친 일들은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약 먹을 시간도, 농사철도 마찬가지다. 발표가 난 뒤에도 피해보상비가 손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가족이 메우는가. 이웃이 메우는가. 빛이 메우는가. 참고 견디는 마음이 메우는가. 행정의 시간은 그리 길어보이지 않지만, 이재민에게는 매일이 고비이고, 불안이고, 질문이었다. 행정의 시간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다시 자기 삶을 계산했다. 집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은 돈으로 집을 지으면 남은 삶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안 지으면 어디서 살 것인가. 보험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산은 달랐다.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산도 달랐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불을 겪고, 같은 체육관에 누웠던 사람들이지만 서류 앞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대를 마주했다. 불길은 모두에게 같은 색으로 왔지만, 보상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이때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돈은 선택을 강요하는 언어가 되었다. 집을 다시 지으면 돈이 사라진다. 돈을 남기면 집이 사라진 채로 남는다. 새 농기계를 사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생활비를 아끼면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묘목을 심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나이는 더 들어간다. 행정은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말하지만,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남은 생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는 일이 된다. 돈은 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삶의 선택지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숫자였다.

어떤 계산은 너무 잔인하다. 집을 다시 지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순간 남은 돈은 사라질 수 있다. 집을 짓지 않으면 돈은 조금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은 없다.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면 묘목을

66

집만 안 지으면 타가는
돈 나온 거 물건 사는 거
다 계산하면 그냥
그 손해는 안 봐요

99

사야 한다. 그러나 묘목은 바로 열매를 주지 않는다. 기계를 사야 농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를 사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불이 태운 것은 집과 밭이었지만, 불이 남긴 것은 이런 계산이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계산.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산. 그 계산 앞에서 김상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집만 안 지으면 타가는 돈 나온 거 물건 사는 거 다 계산하면 그냥 그 손해는 안 봐요” 그러나 바로 그 뒤의 계산은 더 무겁다. “집 지으면 2억 들어보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가지고 사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복구비의 본질을 찌른다. 집을 짓지 않으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그런데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없다. 집을 지으면 돌아갈 곳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진다. 노년의 이재민에게 이것은 단순한 재건축 문제가 아니다. 남은 삶 전체의 문제다. 젊은 사람이라면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에게 큰돈은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한 번 쓰면 끝나는 돈이다. 그러니 보상금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집을 다시 세울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을 쪼개 써야 하는 마지막 돈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이런 계산은 발표 자료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발표 자료에는 총액이 있고, 항목이 있고, 비율이 있고, 일정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밤에 앉아 “집을 지을까, 말까” 계산하는 망설임의 시간은 자료에 없다. 집을 지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집을 안 지으면 어디에 머물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지, 보험 없는 것을 왜 그때 대비하지 못했는지 후회하는 마음은 없다. 행정의 숫자는 복구를 말하지만, 사람의 숫자

는 생존을 묻는다.

그리고 생존의 계산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다음 달 전기요금은 얼마일까. 지금 있는 돈을 아껴야 할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공과금 지원은 언제까지일까. 나라에서 내준다고 들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복구비는 한 번 발표되지만, 고지서는 매달 온다. 보상금은 큰돈처럼 보이지만, 생활비는 작은 구멍처럼 계속 새어나간다. 그 작은 구멍들을 막지 못하면 큰돈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이재민의 계산은 끝나지 않는다. 집값을 계산하고, 장비값을 계산하고, 약값을 계산하고,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남은 삶을 계산한다.

복구비라는 말은 마치 뒤로 물러난 삶을 다시 원래 자리로 밀어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 복구는 단순한 반환이 아니다. 타기 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타기 전의 발로 돌아갈 수 없고, 타기 전의 나이로 돌아갈 수 없다. 불이 나기 전에는 3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도, 불이 난 뒤에는 그 3년이 더 무겁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의 문제는 곧 시간의 문제다. 얼마를 받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받느냐이고,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이다.

과연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하루를 바꾸었을까? 지원금은 집이 되었나, 약이 되었나, 농기계가 되었나, 아니면 남은 삶을 어떻게 버틸지 다시 계산하게 만든 숫자가 되었나. 행정은 복구비를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발표가 아니라 도착을 기다렸다. 도착한 뒤에도 다시 계산했다. 불이 지나간 뒤, 삶은 서류 위에서 다시 나뉘었다.

피해 조사표가 끝내 적지 못한 것들은

이재민들의 삶에 남았다

행정은 무엇을 피해로 인정하고, 무엇을 끝내 계산하지 못했을까?

불이 모든 것을 태운 뒤, 행정은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집이 몇 채 탔는지, 창고가 몇 동 탔는지, 산림이 몇 헥타르 소실되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재난이 지나간 자리는 표로 정리되어야만 했다. 그래야 접수할 수 있고, 산정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있었다. 주택, 가재도구, 농업시설, 산림, 공공시설, 사유시설까지. 행정의 표에는 칸이 필요했고, 칸에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러나 산불은 이 칸을 따라 타지 않았다. 산불은 집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았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과 끝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산불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총체적으로 불태웠다. 행정은 그 삶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다.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계산할 수 없는 것, 보상되는 것과 보상되지 않는 것, 서류에 적히는 것과 적히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난은 또 한 번 사람을 갈라놓았다.

재난 이후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피해는 집이다. 잿더미가 된 집터의 모습은 누구나 피해로 상정한다. 집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면적으로 잴 수 있고, 전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이라는 말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대문 옆에 담가둔 장들, 평생을 써온 부엌의 기가지재, 벽에 걸린 사진, 오래 쓰던 이불, 자식들이 선물로 사준 옷가지까지...행정은 집의 평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볼 수 없다.

피해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의 삶은 항목에 맞춰 다시 재단된다. 이 물건은 가재도구인가. 이 사진은 귀중품인가. 이 한복은 의류인가. 이 반지는 얼마짜리인가. 이 현금은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물건은 실제로 집 안에 있었는가. 행정은 묻는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미 다 타버린 뒤에, 이미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뒤에, 사람에게 묻는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이 잃은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집이 탔다는 것만 보인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옷이 없다는 것을 안다. 더 지나면 사진이 없다는 것이 떠오른다. 어느 날은 반지가 생각나고, 어느 날은 장롱 안에 넣어 둔 돈이 생각나고, 또 어느 날은 미리 준비해 둔 수의가 생각난다. 피

해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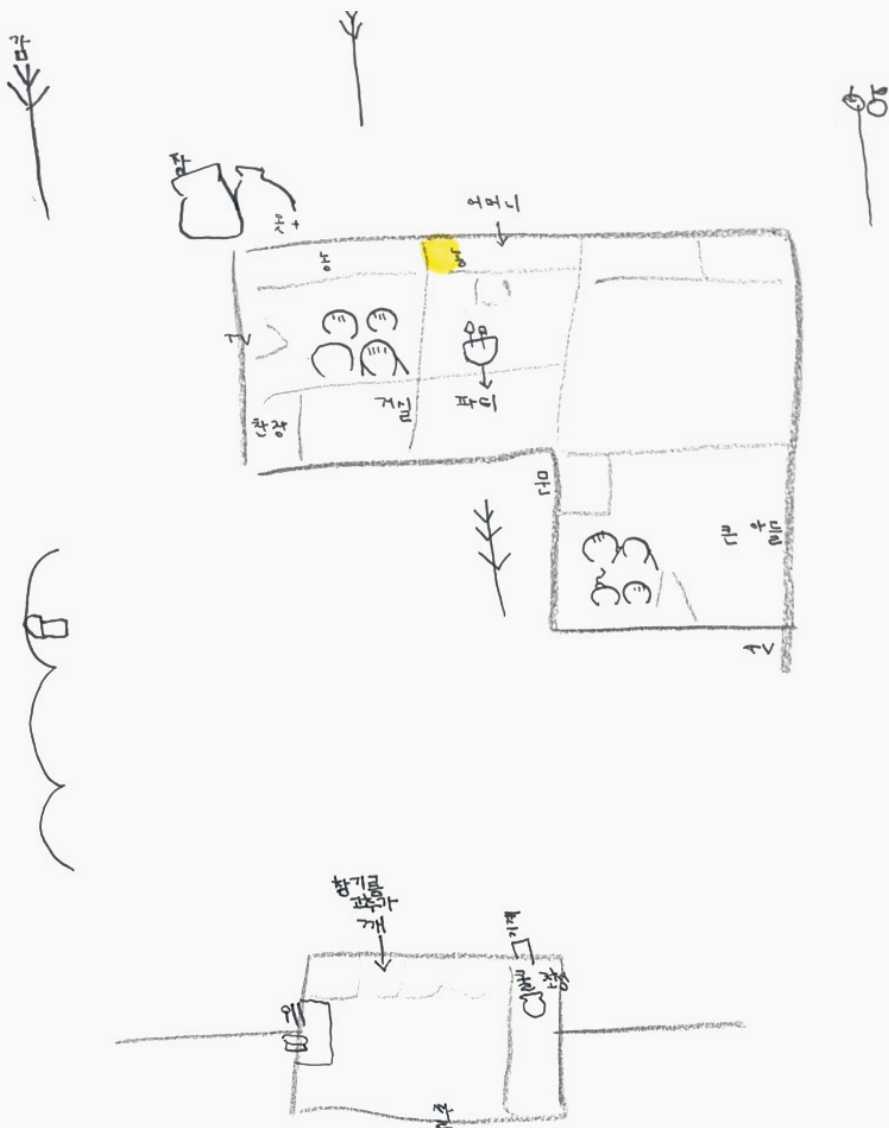
행정의 표는 한 시점에 멈춰 있지만, 사람의 상실은 계속 움직인다. 오늘은 틀니가 생각나고, 내일은 사진이 생각난다. 모레는 옷이 생각나고, 그다음 날은 집 뒤에 쌓아두었던 나무가 생각난다. 처음에는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것들이 하나씩 이름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은 다시 잃는다. 이미 타 버린 물건을 기억 속에서 한 번 더 잃는다.

몇 번이고 장수사진과 수의가 불탄 것을 아쉬워하던 김남수 씨는 마지막 즈음의 인터뷰에서 함께 집을 그리며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김남수 씨는 그의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시민대응단이 김남수 씨와 함께 옛집을 그려 보았을 때, 그는 종이 위의 빈자리를 보며 방의 위치를 짚었다. 여기는 방이었고, 저기는 또 다른 방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옷장이 있었고, 이부자리는 이쪽에 폼다며 정확하게 짚었다. 집은 이미 불에 탔지만, 김남수 씨의 기억 속에서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가 오래 설명한 곳은 바깥 창고였다. 창고에는 벌통이 있었다.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벌통이 있었다. 꿀 뜨는 기계가 있었고, 조청이 있었고, 쌀과 깨가 있었다. 직접 만들고, 직접 거두고, 언젠가 먹고 나누려고 넣어둔 것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말할 때 단순히 물



1 김남수 씨가 그린 옛집



건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나르고, 계절마다 쌓아둔 시간을 하나씩 다시 꺼내고 있었다.

보상금이 이런 것을 다 셈할 수 있을까. 벌통 몇 개, 조청 몇 통, 참기름 몇 병, 쌀 몇 포대라고 적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던 노동의 시간,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아껴둔 마음, '이건 내가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 김남수 씨가 아까워한 것은 비싼 물건만이 아니었다. 돈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둔 것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김남수 씨는 불탄 집을 다시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종이 위에 방을 놓고, 옷장을 놓고, 창고를 놓고, 벌통과 조청과 쌀과 깨를 다시 놓았다. 그러나 그 집은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기억 속에서만 복원되는 집이었다. 재난 이후의 상실의 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집은 사라졌지만, 그 집의 구조는 몸에 남아 있다. 손은 아직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데, 현실에는 더 이상 그것이 없다.

수익로 맞춘 한복은 새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장수사진도 다시 찍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 물건, 김남수 씨의 집이 품고 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처음 사진을 찍던 날의 마음, 장롱 속에 잘 넣어두었던 안심,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두었다는 묵직한 평온, 내 몸에 맞던 물건의 감각. 이런 것들은 다시 사는 것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다른 집에서는 현금과 반지와 살림이 불에 타 사라졌다. 급할 때 쓰려고 넣어둔 돈, 누군가에게 주려고 아껴둔 돈, 그냥 거기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던 생활의 여분이 잿더미가 되었다. 반지는 귀금속이지만, 동시에 몸에 끼고 살았던 시간의 증표이다. 살림은 더 그렇다. 살림은 물건의 합계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쌓인 세계다. 그릇이 있고, 옷이 있고, 이불이 있고, 작은 돈이 있고, 자주 쓰던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이다.

산불은 그 상태를 없앴다. 그래서 상실된 물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려는 시도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아

66

다 타 없어요아무것도 없고 내 돈도반지 있는 것도 다아무것도 없어내 손만 보이지...

99

무것도 없다.”

이 말은 피해 목록이 아니라 삶의 상태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다 세기 전에 이미 알게 되는 것.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어제까지 당연히 있던 세계가 오늘은 없다는 것. 배분연 씨는 불탄 뒤의 집을 떠올리며 말했다. “다 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 돈도 반지 있는 것도 다 다 부었고 돈도 그때 200만 원 내놔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말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 내 손만 보이지...”.

옷도 마찬가지다. 계절마다 꺼내 입던 옷, 발에 갈 때 입던 옷, 외출할 때 입던 옷, 좋은 날 아껴 입던 옷,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 옷은 기억을 입는다. 그런데 집이 타면 그 옷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후 누군가 옷을 보내주고, 나눠주고, 챙겨 줄 수 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남이 준 옷은 내 몸에 곧장 맞지 않는다. 크거나 작고, 어깨가 불편하고, 소매가 길고, 색이 낡는다. 입을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남는다. 한귀순 씨는 그런 감각을 오래 겪었다. 집 안의 옷과 살림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고, 이후 얻어 입은 옷이 많았다. 그는 말했다. “옷이 없다 카니까 전부 얻어가, 바지도 전부 얻어가, 티도 얻어가 입었지... 옷이 없다 카니까... 다 불타버려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집 안에 남은 것을 짚어달라는 질문 앞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살림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말들은 행정의 피해 항목보다 더 정확하게 공백을 보여 준다. 옷이 없다. 살림이 없다. 짚을 것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삶을 보

여 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누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찍어달라”라고 했을 때, 찍을 것이 없다는 말. 그것은 집을 잃은 사람이 자기 삶의 증거까지 잃었다는 뜻이다.

김선기 씨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넘겨 보며 아들과 손자, 손녀 이야기를 했다. 화면 속 가족을 하나씩 손으로 짚던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불탄 사진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사진이 옛날에 전부 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었는데 태워 버렸어.” 사진만이 아니었다. “웃이고 수의고 뭐 얼마 없는 거 다 태워 버리지요.” 김선기 씨의 짧은 말 안에는 사진첩과 웃가지와 수의, 그리고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둔 노년의 마음까지 함께 들어 있었다. 보상금은 집의 면적과 물건의 가격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자기 삶의 마지막까지 준비해 둔 마음을 다시 마련해 주지는 못했다.



이미 떠난 이의 사진을 챙기지 못해 그리워 하는 이도 있었다. 김종숙 씨는 재난 이후 여러 지원에 대해 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이장님과 이웃들이 도와주었고, 국가의 지원과 구호단체 후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고마움이 모든 상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앨범과 결혼식 사진이 모두 탔다. 친정엄마의 사진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복구비는 집을 다시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사라진 얼굴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피해는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집 바깥에도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시간이 있었다. 마당을 고치고, 목욕탕을 수리하고, 창문을 갈고, 하우스를 새로 덮고, 나무를 쌓아두고, 집 뒤안을 정리한 시간.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몸이 허락하는 만큼 조금씩, 한 해에 하나씩 손본 것들이다. 사람은 집을 돈으로만 고치지 않는다. 손으로 고친다. 마음으로 고친다. 올해는 이것을 고치고, 내년에는 저것을 손보며,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인다.

그런데 산불은 그 축적을 한꺼번에 태웠다. 새로 덮은 하우스도, 넓게 쓰던 마당도, 고쳐 놓은 목욕탕도, 쌓아 둔 나무도 함께 사라졌다. 서류에는 시설물과 자재와 피해액이 적혔지만,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감각은 적히지 않았다. 오래 불편했던 것을 고치고, 이제 이 정도면 살 만하다고 느꼈던 마음은 숫자로 바뀌기 어렵다. 보상이 주어진다고 당장 모든 것을 원상 복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김상규 씨는 자신의 집을 두고 “걱정이 없었죠. 집이 수리를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다. 집도 크고 아래 채도 있었고, 짐도 넣어 두었고, 목욕탕도 수리했다고 했다. 마당과 하우스 이야기도 했다. “마당도 넓고 그 하우스도 금방

1

1 김선기 씨가 시민대응단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덮었어요” 나무도 아까웠다. “나무 보에도 아깝죠 나무보에 300만 원이나 넣고…”

집은 처음부터 완성된 공간이 아니다.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 자기 몸에 맞게 바뀌가는 공간이다. 문을 고치고, 창문을 갈고, 목욕탕을 손보고, 마당을 넓게 쓰고, 하우스를 새로 덮고, 나무를 쌓아두며 자기 생활의 서사가 축적된다. 불은 그 서사를 한순간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마을에는 개인의 물건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나무, 마을의 수호수로 함께 모이던 자리, 해마다 한 해를 잘 보내자며 의례가 이루어지던 장소. 집이 개인의 삶의 축적이라면,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장소이다. 불은 개인의 집만 태운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자신을 기억하던 방식마저 흔들었다.

이런 피해는 보상 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밀려난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옷은 다시 살 수 있다. 틀니도 다시 맞출 수 있다. 사진도 다시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진은 아니다. 똑같은 옷은 아니다. 똑같은 집의 냄새는 아니다. 똑같은 마당의 감각은 아니다. 똑같은 나무 아래의 시간도 아니다. 재난이 났어야간 것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물건과 장소가 품고 있던 반복된 시간이었다.

행정은 묻는다. ‘무엇이 탔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증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때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다 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만 남았습니다.’ 이 대답 앞에서 행정의 질문은 너무 협소해진다. 이 재민이 잃은 것은 ‘무엇’ 하나가 아니라, ‘있던 것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장롱에 옷이 있고, 부엌에 그릇이 있고, 서랍에 돈이 있고, 벽에 사진이 있고, 마당에 나무가 있고, 집 뒤에 손바 돈 흔적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라진 것은 행정의 언어로 치환되지 못한다.

물론 행정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감정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모든 추억을 항목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이 기준 밖의 상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재난 복구는 바로 그 기준 밖의 상실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돈으로 다 보상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 상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상실을 복구하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 피해는 사람을 두 번 외롭게 만든다. 한 번은 불이 태워서 잃고, 또 한 번은 행정이 보지 못해서 잃는다.

피해 조사를 위해 기입해야 하는 표 이재민들은 그 피해보상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했다. 표 안에 꼬박 적어낸 것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표가 전부가 되는 순간, 사람은 표 밖으로 밀려난다. 미리 준비해 둔 수의, 물컵 속 틀니, 맞지 않는 옷을 얻어 입는 마음, 수리해 둔 집과 새로 덮은 하우스, 마을 어귀 오래된 나무의 시간. 이런 것들은 표 바깥에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바깥에 재난의 진짜 얼굴이 있다. 불이 지나간 뒤 사람들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때로 보상된 항목이 아니라 보상되지 않은 것들이다. 아무도 가격을 묻지 않은 것들. 아무 칸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들. 그러나 매일 생각나는 것들 말이다.

행정은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집에서는 계산 바깥의 것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것은 숫자에 대한 반대라 아니라, 숫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숫자는 필요하다. 복구비도 필요하다. 보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숫자가 삶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다. 불이 태운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 둔 품위, 내 몸에 맞던 옷의 존엄, 아무 걱정 없던 마당의 감각, 이제 좀 편해졌다고 느끼던 집에서의 시간, 세대를 건너 이어진 마을의 기억이었다.

필요한 것은 지원금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

사람은 당장 살아야 하는데, 행정의 방식은 사람들이 당장 살아야 하는 삶에 맞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잘 곳, 내일 아침에 먹을 약, 병원에 갈 차비,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면 사야 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칠 수 있는 돈. 재난은 사람의 생활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그래서 재난 이후의 필요도 한꺼번에 몰려온다. 집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농기계도 필요하고, 현금도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의 지원은 대개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항목별로 오고, 절차별로 오고, 용도별로 온다. 심지어 그 지급마저 들쭉날쭉하다. 어떤 돈은 집을 위해, 어떤 돈은 장비를 위해, 어떤 돈은 묘목을 위해, 어떤 지원은 현물이거나 지정된 물품으로 온다. 행정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며, 복구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난을 겪은 사람의 하루가 그렇게 항목별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것을 말하고, 제도는 정해진 쓸 곳을 말한다. 사람은 오늘의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전기요금을 걱정해야 하고, 당장 필요한 살림을 사야 한다. 그런데 제도는 때로 이렇게 말한다. “이 돈은 이 항목에 쓰십시오”, “이 지원은 이 물건을 사는 데 쓰십시오”, “이 복구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자기 필요를 제도에 맞추어야 한다. 불은 삶의 순서를 무너뜨렸는데, 행정은 다시 정해진 순서대로 복구하기를 종용했다.

66

이 돈은 이 항목에...

이 복구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99

장비도 필요하다. 묘목도 필요하다.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난 직후의 삶은 한 가지 필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누구는 묘목이 먼저 필요하고, 누구는 현금이 먼저 필요하고, 누구는 병원비가 먼저 필요하고, 누구는 당장 생활비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집이 타고, 농기계가 타고, 산이 타고, 수입이 끊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결정권이다. 지금 무엇보다 복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여지다.

복구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들린다. 타버린 곳에 다시 나무를 심고, 농기계를 사고, 관리기를 사고, 밭을 정비하고, 새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젊은 사람에게 새 묘목은 새로운 미래일 수 있다. 몇 년 뒤 열매가 열릴 것을 기다리며 지금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새 묘목은 질문이 된다. 내가 그 열매를 딸 수 있을까. 3년 뒤, 4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돈을 들여 다시 심는 것이 맞을까. 제도는 묘목을 복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재민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삶이 그 복구를 따라갈 수 있는지 계산하곤 했다.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묘목을 사서 심고 준비하는 일은 몽땅 돈이다. 그리고 돈 만큼이나 시간이 들어간다. 세워둔 묘목은 다음 해에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다. 과실을 맺기까지는 꼬박 몇 해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수입이 비는 시간이고, 몸이 더 늙어가는 시간이다. 복구는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수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호준 씨는 사과 묘목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했다. 새로 심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불이 나버려가지고… 새로 다 심으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냐는 질문에 그는 “돈 천만 원 들어가자”라고 답했다. 묘목은 500그루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돈 천만 원. 묘목 500그루.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작지 않은 복구의 규모처럼, 마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기다림이 있다. 묘목은 심는다고 곧바로 열매가 되지 않는다. 물을 줘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병해를 막아야 하고, 가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수입은 없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가 아니다. 이미 나이트 이에게 그 몇 년은 남은 인생의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묘목 지원은 단순히 묘목을 심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묘목이 돈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누가 건널 것인가의 문제다. 제도는 미래의 나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기다리는 사람의 현재는 보지 못한다. 행정이 세운 복구 계획 안에는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매일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의 하루가 포함되지 않았다.

복구 지원은 생계 전체를 다 책임지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묘목을 사서 심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는 따로 필요하다. 농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도 당장에 병원비는 따로 필요하다. 관리기를 사도 전기요금은 따로 나온다. 농사를 다시 시작해도 수입이 바로 생기지 않는 구조속에서 이 공백을 누가 메우는가. 제도는 복구 항목을 지원하지만, 사람은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살아야 한다. 아침을 먹고, 약을 먹고, 난방을 하고, 병원에 가고, 전화를 쓰고, 이동도 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재민들의 말은 단순히 지원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삶이 항목별로만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지원금이 정확한 목적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물품을 정하고, 용도를 정하고, 항목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 현장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상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의 액수와 지원금의 목적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회복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지금 무엇보다 복구할지, 어떤 순서로 일상을 되돌릴지,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원은 도움인 동시에 또 다른 지시가 된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더 적절한가가 아니다. 핵심은 그 지원이 누구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는가다. 행정이 미리 그려 놓은 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지원은 어떤 사람의 사정에는 딱 맞고 어떤 사람의 사정에는 어긋난다. 재난 이후의 삶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복잡함은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집을 다시 짓는 일이 가장 급하고, 어떤 이에게는 끊긴 약을 다시 챙기는 일이 먼저이며, 어떤 이에게는 농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버틸 생활의 여백이 절실하다. 같은 항목, 같은 액수의 지원이라도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에 닿는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란, 무엇을 줄지를 정교하게 짜는 일이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이 자기 회복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재난 복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인가, 그 예산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피해를 적어 둔 서류인가, 그 피해를 몸으로 겪은 사람인가. 지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회복은 아래에서 일어난다. 밭을 다시 가꿀 사람이, 집을 다시 지을 사람이, 약을 다시 챙겨 먹을 사람이, 전기요금을 다시 낼 사람이, 매일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이 회복의 중심이어야 한다. 지원 정책이 정부 입장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면 이제 민들은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원 정책은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주 설명을 듣는 사람이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정해진 대로 써야 하는 사람이 된다. 무엇을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동안, 누구의 판단을 따라 줄 것인가는 자주 잊혀진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답을 신뢰하고, 그 답이 닿을 자리를 제도 안에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지원은 비로소 회복이 된다.

장비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일은 어렵다. 묘목이 있어도 돌볼 몸이 없으면 열매는 어렵다. 제도는 물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의 나이, 체력, 노동력, 지역의 인력 부족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복구는 서류 속에서만 앞으로 간다. 유호준 씨는 마을에 일할 사람도 줄었다고 했다. 지방에는 사람이 없고, 전부 70세 이상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몸과 사람과 시간이 모두 부족했다. “그 사람이야 이런 필리핀 아들(사람들) 고용해가… 그 친구들 아니면 일 못해. 지방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워낙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70 이상 노인들이 돼버리니까.”

지원이 실제 필요와 어긋날 때 사람은 고마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낀다. 무언가를 주니 고맙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것과 다르면 답답하다. 장비를 사라고 하니 사야 한다. 그러나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묘목을 사라고 하니 묘목을 심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묘목이 돈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막

막하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고마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난 복구는 단순히 “무엇을 지급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제 삶의 우선 순위와 맞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는 않았는가. 선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나이가 많아 몇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몇 년 뒤 열릴 묘목을 해당처럼 내밀지는 않았는가.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장비 구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빠지면, 복구는 제도 안에서만 완성된다. 필요한 것은 돈이었는데 제도가 물건을 가리킨다면, 필요한 것은 결정권이었는데 제도가 용도를 정해 들이밀었다면,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을 버티는 힘이었는데 제도는 미래를 위한 복구를 말했다면, 복구는 여전히 제도 안에서 맴돌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래도 필요하다. 나무도 심어야 하고, 기계도 사야 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만으로 살 수 없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도 있다. 재난 이후 가장 희망차게 미래를 이야기 하던 유호준 씨는 다시 심을 묘목과, 다시 사야 할 농기계들을 이야기 했지만 동시에 자기 나이와 부족한 마을의 일손을 떠올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차라리 현금이면 낫겠다는 말, 억지로라도 사야 된다는 말, 돈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서로 따로 떨어진 불평이 아니다.

복구는 누구의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가.

행정은 장비를 살 수 있게 했다. 묘목을 심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버티기 위한 돈인가. 내년을 위한 묘목인가. 다시 일하기 위한 기계인가. 병원에 갈 돈인가. 전기요금인가. 복구는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에 답하는 일이어야 한다.

복구는 단순히 예산을 쓰는 일이 아니다.

복구는 사람이 다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복구 완료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복구비는 한 번 발표되지만,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는 대체 누가 막아 주었을까?

복구비라는 말의 울림은 크다. 한 번 발표되면, 마치 재난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들린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주택이 마련되었고, 구호가 이루어졌고, 보상과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행정의 문장은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사람의 생활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은 이때다 싶어 밀고 들어온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전화요금, 난방비, 약값, 병원비까지. 복구비는 한 번 발표되지만, 고지서는 매달 찾아온다.

집이 불타고 난 뒤에도 계절은 멈추지 않는다. 날이 더워지면 컨테이너는 달궈지고 냉방기에 의지하는 생활이 이어진다. 그것도 잠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올 때쯤, 밤은 춥고, 전기장판은 켜야 하고, 난방기를 돌려야 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빨리 식는다. 바닥은 차갑고, 벽은 얇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 안에서 살려면 전기를 써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내준다고 했다. 얼마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마 그 말은 실제로 큰 위안이었을 것이다. 집도 없고, 살림도 없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분간 공과금은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한 숨 돌리게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이다. 당분간은 언제까지인가. 3개월인가. 겨울이 끝날 때까지인가. 컨테이너에 있는 동안인가. 새 집을 지을 때까지인가. 지원이 끝난 뒤에는 누가 전기요금을 내는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재난 이후의 불안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돌아온다. 큰 불안은 집이 탔다는 사실에서 왔다. 그러나 작은 불안

은 매달 고지서에서 온다.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지금은 안 내지만 곧 내야 한다는 불안.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많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전기요금 걱정되어 마음껏 틀지 못하는 마음.

컨테이너는 임시 거처였다. 그러나 임시 거처에도 전기는 들어가야 하고, 물은 나와야 하고, 전화는 연결되어야 한다. ‘임시’라는 말 안에서도 생활은 계속된다. 밥을 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전화를 받아야 하고, 텔레비전을 켜야 하고, 밤에 불을 켜야 한다. 전기와 물과 통신이 매일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과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재난 이후 일상이 다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다.

그런데 이 기본 비용이 언제부터 내 뭍이 되는지, 얼마나 나올지, 지원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시주거는 또 다른 계산의 공간이 된다.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고지서를 생각한다. 전기장판을 켜면서도 생각한다. 이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쩌지. 난방기를 돌리면서도 생각한다. 아직은 나라에서 내준다는데, 다음 달부터는 내가 내야 하나. 전화요금과 수도요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복구비는 뉴스에 나왔지만, 실제 생활은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걱정으로 채워진다. 김선기 씨의 말에는 그 불안이 그대로 들어 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지금은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지금은 3개월 동안 다 저거 내줘요.” 전기요금, 통신비, 수도요금을 말하며 “나라에서” 내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곧바로 현실로 내려온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내야지. 지금까지는 안 내지만 내야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오느냐는 말에 “3월부터 나와”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걱정했다. “많이 나올 거라. 이거 전기요금...”

“지금까지는 안 내지만 내야지.” 이 말은 짧지만 많은 고민이 산재되어 있다. 지원에 끝이 있다는 말이다. 아직은 공과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내야 한다. 이 문장 안에 재난 이후의 시간이 들어 있다. 처음에는 지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원은 종료되고, 고지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돌아온다. 행정의 지원 기간은 끝나지만, 재난 이후의 생활은 끝나지 않는다.

컨테이너에 계속 살고 있다면, 그곳의 전기요금도 계속 나온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단순한 사용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전기를 아끼는 것은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는 일이며, 여름에는 더위를 견디는 일이다. 전기장판을 덜 틀고, 난방기를 줄이고, 텔레비전을 덜 켜고, 불을 빨리 끄는 것은 절약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질을 낮추는 일이다. 특히 고령의 이재민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허리와 무릎을 더 아프게 하고, 잠을 더 못 자게 하고, 몸을 더 굳게 만든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아낀다는 것은 몸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66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사는데 얼마나 줬겠노

99

컨테이너의 난방은 예전 집의 난방과 다르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전기를 써도 같은 만큼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재민이 머무는 컨테이너는 애초에 사람이 오래 거주하도록 지어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 거처라는 목적에 맞게 벽은 얇고, 바닥은 지면에서 떠 있으며, 단열재는 정식 주택만큼 충분하지 않다. 정식 주택이었다면 같은 비용으로 충분히 데워졌을 공간이, 컨테이너에서는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끝내 데워지지 않는다. 위쪽 공기는 따뜻해져도 바닥은 차고, 어떤 자리는 데워지지만 어떤 자리는 그대로다. 효율이 떨어지니 더 오래, 더 강하게 틀어야 하고, 요금은 그만큼 더 올라간다. 따뜻한 대가로 나오는 요금이 아니라, 따뜻해지지 않는데도 나가는 요금이다.

배분연 씨는 자고 있으면 찬바람이 살살 들어온다고 했다.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사는데 얼마나 줬겠노" 집이 지면에서 떠 있는 구조라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고, 전기를 충분히 틀어도 몸이 데워지

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방이 춥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내지만 집이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기를 쓰는데도 춥다. 장판을 틀어도 바닥이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행정은 임시주거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시주거가 실제로 따뜻한지, 난방이 고르게 되는지, 고령자가 겨울밤을 건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공과금의 불안은 정보의 불안과도 연결된다.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수급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면, 제도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난 이후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절차 앞에서 있었다. 보상 신청, 피해 확인, 임시 거처, 물품 지원, 병원, 약, 가족 연락. 그런데 공과금 지원까지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행정적 압박이 된다. 특히 고령의 이재민에게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는 말은 충분한 안내가 아닐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과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또 차이가 생긴다.

공과금은 그렇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누가 대신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행정. 지원 기간이 끝나는 날짜, 감면 가능 여부, 수급자 적용 여부, 고지서가 어디로 오는지, 자동이체가 되는지, 전화요금만 따로인지, 수도 요금은 얼마인지. 이 모든 것은 재난 이후의 삶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큰 복구 계획 속에서 이런 문제는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놓친다.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네.” 유호준 씨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우리는 수급자니까 모르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자신이 수급자이긴 하지만 지원 절차는 잘 모르며,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지 면사무소에 문의해 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려주면 살지, 뭐”라고 덧붙였다.

제도가 있더라도 모르면 멀다. 지원이 있더라도 설명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 수급자라는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이 어떤 지원으로 연결되는지 당사자가 모르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행정은 신청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

66

우리는 수급자니까모르지, 뭐어떻게 하는지...

99

다. 그러나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청하라는 말보다 먼저 찾아와 알려 주는 일이다. ‘당신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은 언제까지 지원된다. 이후에는 얼마 정도 예상된다. 감면은 이렇게 된다. 필요한 서류는 이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고지서가 덜 무서워진다.

앞서 말했듯이, 복구비가 나와도, 보험금이 있어도, 보상금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은 계속 마음을 건드린다. 큰돈은 한 번 들어오지만, 작은 돈은 계속 빠져나간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공과금은 ‘복구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 복구 과정 한가운데의 문제다. 집을 다시 짓기 전까지, 컨테이너에 사는 동안, 임시주거가 이어지는 동안, 매달 생활비는 발생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집이 완전히 복구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도, 임시로 사는 사람에게도,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여기서 행정의 시간과 생활의 시간이 다시 어긋난다. 행정은 지원 기간을 정한다. 3개월, 몇 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나 이재민의 회복 기간은 그렇게 자르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안에 집을 지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도 새 거처를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과금 지원이 일정 기간 뒤 끝난다면, 그 뒤는 개인의 몫이 된다. 지원의 종료일은 명확하지만, 재난의 종료일은 명확하지 않다. 김선기 씨는 “3월부터 (공과금 고지서)가 나와”라고 했다. 이 말은 그 날짜부터 생활의 부담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불이 나기 전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전기를

썼다. 불이 난 뒤에는 임시 컨테이너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들어와 살게 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건디기 위해 전기를 썼다. 그런데 그 요금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온다.

비용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이후에는 얼마나 나올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사람은 모를 때 더 불안해진다. 전기요금도 얼마인지 모르면 난방기를 켜는 손이 망설여진다. 지원 기간을 모르면 고지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제도를 모르면 스스로 놓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행정의 안내가 부족하면, 사람은 자기 삶을 막연한 추측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대기 상태다.

많은 경우 행정은 큰 항목에 집중한다. 주택 복구,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 임시주거지 설치.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복구는 큰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고지서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일상의 회복이다. 전기장판을 켜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 겨울밤에 난방을 줄이느라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되는 것. 물을 쓰면서 요금 걱정도 멈추지 않는 것. 전화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자식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일상의 복구다. 그런 작은 안정들이 재난으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게 한다.

전기요금과 공과금의 문제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연결된다. 임시주거를 제공했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비용까지 회복의 일부로 보았는가. 컨테이너를 놓았다면, 그 안의 추위와 더위와 전기요금까지 고려했는가. 고령의 이 재민에게 난방비와 공과금 안내는 충분했는가. 지원이 끝난 뒤의 생활비는 누가 설명했는가. 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면은 먼저 안내되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각자 묻고, 각자 걱정하고, 각자 아껴 써야 했는가.

산불은 집을 태웠고 그 뒤에 날아온 고지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얼마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 임시의 삶을, 또 얼마 동안 자기 돈으로 견뎌야 하는지.

재난 이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달 반복되는 작은 불안을 덜어 주는 행정이다.

마을은 서로를 살렸지만, 시스템은 그만큼 촘촘하지 못했다

“왜 재난의 마지막 안전망은 국가가 아니라 이웃의 목소리였을까?”

재난의 순간,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른 것은 행정 문서가 아니었다.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아는 사람, 누가 혼자 있는지 아는 사람, 누가 몸이 불편한지 아는 사람이었다. 방송이 울리고, 전화가 돌고, 누군가 문 앞까지 와서 빨리 나오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들은 공식 시스템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의 몸을 움직였다.

마을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행정은 주소를 알고, 세대 수를 알고,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 누가 잘 못 듣는지, 누가 약을 먹어야 하는지, 누가 혼자서는 차를 타기 어려운지, 누가 “설마 우리 집까지 오겠나” 하며 버틸 사람인지는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재난의 밤, 이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었다. 사람들은 서류가 아니라 기억으로 서로를 찾았다. 누구 집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아직 안 나왔는지, 누가 어디로 갔는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앞서 다루었듯이, 그날 밤 누군가 방송을 했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 누군가는 차를 구했고, 누군가는 이웃을

불렀고, 누군가는 자기 집을 챙기기 전에 남의 집을 먼저 확인했다. 이런 일들은 행정 지침서에 쓰여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을 공동체는 재난의 순간 가장 빠르게 작동한 생활 기반의 안전망이었다. 배분연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이장 면장이 방송 빨리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어 말했다. “전부 다 안 죽게 안전하게 대피를 시켜(줬다)…” 이 말에는 고마움이 있다. 그 고마움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사람들을 살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마을 내부의 빠른 판단과 움직임에 그렇게 크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시스템은 그 마을의 생활망을 더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는지를 말이다. 마을이 서로를 살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시스템의 충분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묻도록 만든다. 마을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재난 이후에도 마을은 다시 서로를 붙잡았다. 체육관에서, 회관에서, 임시 거처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누가 살아 나왔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밥을 못 먹었는지, 누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지 살폈다. 회관은 단지 불편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만나는 자리였다. 집이 사라진 뒤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붙들 수 있는 곳이었다. 행정이 제공한 공간보다, 그 공간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들이 사람을 버티게 했다.

김선기 씨는 임시 거처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이웃의 존재를 떠올렸다. “이 동네 안 들어온다 캐시면 우리도 못 들어왔지. 이 위에 집이가 들어온다 카니까네 그래 들어왔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카니 들어왔지.” 임시 거처가 완벽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혼자서는 못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고,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들어갈 수 있었다. 재난 이후 공동체는 감정적 위로를 넘어 행동하는 힘이었다. 혼자라면 못 했을 일을 함께라서 할 수 있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공간도, 이웃이 들어간다고 하니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서 시스템의 공백이 드러난다. 마을 공동체는 분명히 튼튼했지만 그 튼튼함에 너무 많

은 것이 맡겨졌다. 누가 혼자 사는지, 누가 잘 못 듣는지, 누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누가 밤에 불안해하는지, 누가 전기요금 지원을 모르는지, 누가 보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챙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난 이후의 공동체는 이미 지쳐 있다. 자기 집을 잃은 사람이 남의 집까지 챙기고, 자기 보상도 막막한 사람이 이웃의 사정을 살피고, 자기 밤도 무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 위태로운 일이다.

공동체는 재난 이후 회복의 핵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겪은 공동체야말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행정은 그 연결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했다. 누가 취약한지 마을과 함께 미리 확인하고, 대피 때 누가 누구를 데리러 갈지 정하고, 임시 거처에 흩어진 뒤에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회관에서 식사와 건강 관리와 상담과 이동 지원이 이어져야 했다.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버티는 힘이 꺾이지 않도록 행정이 받쳐주어야 했다.

재난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보는 방송보다 관계를 타고 더 빨리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을,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서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 주는 목소리라는 것을, 혼자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덜 무섭다는 것을. 이런 지혜가 마을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제도와 만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마을의 생활망을 공식 재난 대응 체계 안에 충분히 연결하는 장치가 부족했다.

행정은 '지원했다'고 말한다. 물품을 지원했고, 임시주거를 지원했고, 복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공동체적 회복은 물품 지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께 밥 먹는 자리, 매일의 안부, 병원에 함께 가는 이동, 보상 서류를 함께 읽어 주는 사람, 밤이 무서운 사람을 찾아가는 방문,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선의에 기대어 버티게 된다. 선의는 귀하지만, 선의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마을은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 재난의 밤에는 사람을 불러냈고, 재난 이후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임시 거처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 그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살았고, 무너

지지 않았고, 다시 하루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받쳐 주는 체계는 충분했는가. 그들이 서로를 챙기는 일을 행정은 얼마나 덜어 주었는가. 그들의 연결망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지원했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타고, 통장이 비고, 서류 앞에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순간에도 이웃을 먼저 걱정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렸다. 함께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말했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무너진 집터 위에서도, 컨테이너의 좁은 방 안에서도, 회관의 식탁 곁에서도 인간다움으로 하루를 이어가고자 했다. 산불은 많은 것을 가져갔으나 사람들 사이에 남은 마음까지 모두 태우지는 못했다.

마을은 서로를 살렸다. 그러나 마을이 서로를 살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스템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난의 마지막 안전망이 서로의 목소리였다면, 국가는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목소리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지치지 않고 이어지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하루를 만들었을까. 집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타버린 지붕일까. 검게 주저앉은 방일까. 장롱 속에 두고 나온 돈과 옷일까. 아니면 오늘 밤 어디에서 자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일까.

아마도 모두 맞을 것이다. 재난은 사람을 생존의 가장 낮은 자리로 밀어붙인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무엇을 다시 사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길에서 겨우 빠져 나온 사람에게 세상은 갑자기 아주 작아진다. 내 몸 하나, 내 가족 몇 사람, 내 통장, 내 약, 내 옷, 내 잠자리. 모든 질문이 '나'의 주변으로 좁혀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안리 사람들의 증언 속에는 자꾸 다른 이름들이 나온다. 내 집이 탔는데도 옆집을 걱정하고, 내 발이 탔는데도 동네 사람들의 산을 걱정하고, 내가 갈 곳이 없는데도 아픈 할머니의 병원을 알아보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도 찾아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민다. 재난은 사람을 자기 안으로 가두는 힘이 있지만, 이들의 시선은 자주 밖을 향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신안리 사람들이 유독 착해서였을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연결과 연대는 오래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누가 몸이 약한지,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밥을 잘 못 챙겨 먹는지, 누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겁이 많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가 불길 속에서도, 대피소에서도, 회관에서도, 컨테이너 옆에서도 사람들을 붙잡았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돈과 서류와 보상의 한계를 보았다. 숫자는 컸지만 삶은 곧장 복구되지 않았다. 지원은 있었지만 필요와 자주 어긋났다. 행정은 피해를 계산했지만, 계산되지 않는 상실은 여전히 사람들 손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그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했을까.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은 이재민들이 재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답은 거창한 구호와 대대적인 행동에 있지 않았다. 매달 한 번 차려지던 밥상에 있었고, 아픈 사람의 병원을 알아보는 전화 한 통에 있었고, 발로 다시 나가는 발걸음에 있었고, 찾아온 손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손에 있었다. 집은 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재난 이전부터, 마을은 밥상 위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산불이 나기 전, 사람들은 어디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을까?

마을은 언제 공동체가 되는가. 재난이 닥쳤을 때 갑자기 서로를 걱정하게 되는 것일까, 대피소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집이 타고 난 뒤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가까워지는 것일까.

공동체는 재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가 밥을 잘 먹는지, 누가 요즘 입맛이 없는지, 누가 빠졌는지, 누가 술을 조금 마셨는지, 누가 설거지를 하고 가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공동체가 되었다.

66

아직 여기 있다...

당신도 왔구나...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날이다

99

산불이 찾아오기 전에도 마을에는 모이는 날이 있었다. 특별한 잔치가 아니어도, 거창한 행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 모였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놀았다. 누군가는 빠지기도 했고, 누군가는 나왔다. 그래도 그 모임은 계속되었다. 밥상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 주는 일이다. “당신도 왔구나” 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배분연 씨는 그 시간을 아주 평범하게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날이다.” 몇 명쯤 모였느냐고 묻자 20명이라고 답했다. 모두가 빠짐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였다. “다 안 먹는 사람도 있어… 빠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는 밥을 먹고 놀았다. “그래가 모여가 놀고” 그날 차려진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음식이었다. “닭고기하고 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지는 화식 같은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 이후의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재난 이전의 밥상을 먼저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이 난 뒤 사람들이 서로를 챙긴 것은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었다. 원래 함께 먹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잘 안 보이는지, 누가 오지 않으면 전화해야 하

는지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밥상은 그런 정보를 품고 있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는 늘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있다. 누군가는 돈을 걷고,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술을 조금 따르고, 누군가는 웃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그릇을 치운다. 마을은 그런 작은 역할들로 굴러간다. 군이 이러한 과정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한귀순 씨의 말에는 그런 밥상의 질서가 남아 있다. “할머니들 한 달에 한 번씩 돈 만 원씩…” 그렇게 조금씩 돈을 내고, 함께 식사했다. 누가 크게 베푸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일방적으로 받는 자리도 아니었다. 조금씩 보태고, 같이 먹는 자리였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밥을 먹고 나면 누군가는 뒤처리를 했다. 한귀순 씨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렇게 말했다. “마을회관에서 밥 먹고 가면 내가 설거지 다 해줬는데…”

이렇게 공동체는 함께 먹는 순간만이 아니라, 먹고 난 뒤 누군가 그릇을 씻어놓는 순간에도 이어진다. 설거지는 박수받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모임은 계속된다. 밥상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빛을 지고, 또 갚았다. 오늘은 누군가 음식을 해 오고, 다음에는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누군가 빠진 사람을 불러왔다. 이 관계는 딱딱한 의무가 아니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순서였다. 그 순서 덕분에 마을은 유지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기록하지 않아도, 밥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김남수 씨의 기억 속에서도 공동체는 음식으로 남아 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을 것이다. 어느 날은 찰밥을 해갔다. “하루는 내가 찰밥을 해가지고…” 조금이 아니었다. “한 통 가지고 가가지고…” 가져간 찰밥은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다 나눠줬네.” 호박범벅도 해갔다. “호박범벅.”

찰밥 한 통과 호박범벅. 이 음식들은 마을의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밥을 먹으며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때 찰밥 해 왔지.” “호박범벅 나눠 먹었지.” 이런 기억은 재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집은 불타도, 함께 먹은 밥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공동체는 대단한 구호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보다 먼저, 밥을 해 오는 손이 있었다. “서로 돕자”는 말보다 먼저, 설거지를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회복”이라는 말보다 먼저, 닭고기와 밥과 찰밥과 호박범벅이 있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빠진 사람을 기억했고, 다음번에 또 만날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다.

그러므로 재난 이후 신안리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챙기고, 붙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이미 오래된 밥상이 있었다. 함께 먹어본 사람은 불길 속에서도 서로를 떠올린다. 설거지를 해준 사람은 나중에도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다. 찰밥을 나누던 손은 재난 이후에도 빈손으로만 남지 않는다.

신안리 사람들이 재난의 밤에 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함께 나누는 먹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은 집을 태웠지만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시간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마을은 이미 밥상 위에서 서로의 이름을 익히고 있었다. 그래서 무너진 뒤에도,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누군가를 돌보러 가는 사람

자기 집이 탔는데도, 어떻게 그는 아픈 할머니의 병원을 먼저 알아보았을까?

보통의 경우에 자기 집이 탔다면 자기 집을 복구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쉽다. 타버린 지붕, 내려앉은 벽, 잣더미가 된 살림, 어디에 돌지 모르는 몸, 오늘 밤 잠잘 곳, 내일 먹을 밥, 앞으로 살아갈 돈. 재난은 사람을 자기 생존의

가장 좁은 자리로 밀어 넣는다. 그럴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것을 먼저 보게 된다. 내 집, 내 가족, 내 통장, 내 약, 내 잠자리.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숙제다.

그런데 김종숙 씨의 이야기에는 이상한 순서가 있다. 자기 집이 탔는데도, 그의 말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아픈 할머니, 요양병원에 간 할머니, 눈이 아픈 할머니, 밥을 먹는 동네 사람들. 집이 타고 난 뒤에도 그의 하루는 자기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병원을 알아보고, 누군가의 눈을 걱정하고, 누군가의 밥상을 펴고, 누군가의 설거지를 했다. 재난은 김종숙 씨를 이재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재난 이후에도 그 돌봄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산불로 집을 잃은 김종숙씨는 머물 곳이 필요했다.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문을 닫고 가족끼리 숨을 고를 수 있는 익숙한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김종숙 씨에게 그런 공간은 평소 자신이 돌봐드리던 할머니의 빈집이었다. 할머니가 다쳐서 요양병원에 가 있었기에 집이 비어 있었다. 김종숙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돌봐드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다쳐 갖고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었다. “그 집이 비어 있었어.” 그는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그 며느리한테 전화해 갖고… 우리가 좀 있어도 되겠냐고…” 그 물음 안에는 다급함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평소의 신뢰도 있었다.

66

그 집이 비어 있었어

그 며느리한테

전화해 갖고…

우리가 좀 있어도

되겠냐고…

99

산불은 김종숙 씨의 집을 태웠지만, 그가 평소 맺어온 돌봄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돌보던 시간이, 재난 이후 거꾸로 김종숙 씨 가족이 잠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빈집 하나를 빌린 일이 아니다. 재난 이전의 돌봄이 재난 이후의 피난처가 된 일이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당연히게도 그 순간에는 노동이다. 병원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시간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돌봄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의 형태로 남아 있다가, 어느 날 불길 이후의 삶을 받쳐준 것이다. 하지만 김종숙 씨의 이야기가 여가서 끝났다면, 그것은 “돌봄 관계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김종숙 씨는 도움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었다. 자기 집이 탔고, 자기 가족도 불안했고, 남편도 힘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갔다.

66

할머니 두 분은

피해가 없어

우리 집만 다 탔어...

그래도 다행이네

할머니들은 괜찮아

99

김종숙 씨는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자기 집은 다 탔는데, 할머니들 집은 멀쩡하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 말에는 비교가 없었다. 왜 우리 집만 탔느냐는 원망보다, 그분들은 괜찮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먼저 나왔다.

그는 말했다. “그분 두 분 할머니 두 분은 피해가 없어.” 할머니들의 주택은 멀쩡했다. 그러고는 자기 집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만 다 탔어...” 그다음 말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그래도 다행이네. 할머니들은 괜찮아.”

보통은 자기 집이 탔다는 말에서 멈출 수 있다. 아니, 멈춰도 된다.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고통이다. 그런데 김종숙 씨는 그 문장 뒤에 할머니들을 떠올렸다. 우리 집은 탕지만, 그래도 할머니들은 괜찮다. 이 말은 자기 고통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안위를 함께 놓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존엄이다. 재난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는다. 집을 빼앗고, 살림을 빼앗고, 잠을 빼앗고, 안정감을 빼앗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끝내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내가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이 무사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 김종숙 씨의 말에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다.

김종숙 씨는 자기가 무너진 뒤에도, 누군가의 무너짐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돌봐드리는 할머니가 병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가족이 난감해했고, 누군가는 받아 줄 병원을 찾아야 했다. 재난을 겪은 김종숙 씨가 그 일을 알아보았다. 밤늦게까지였다. 자기 집 일도 끝나지 않았고, 자기 삶도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는 또 전화기를 붙잡았을 것이다. 어느 병원이 받아 줄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어떻게 옮겨야 할지 알아보았을 것이다.

남편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했던 모양이다. 왜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도 힘든데 왜 남의 일까지 하느냐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재난 이후 모두 자기 문제로 벅차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은 부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종숙 씨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할머니 병원에서 다 안 받아 준다고 아드님이 그래서 갖고 제가 받아 주는 병원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것도 밤늦게였다. “밤늦게 그거 알아본다고 남편이 뭐라고 그래갖고...” 이어서 말했다.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냐고”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 인간다움과 그 존엄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병원을 알아보는 일, 아픈 사람을 살피는 일, 도움이 필요한 가족 대신 알아봐 주는 일.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재난 이후에도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김종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다만 물었다.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나고 그 말에는 피곤해도, 내 가족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

재난은 많은 사람을 수혜자의 자리로 밀어 넣는다. 구호품을 받아야 하고, 거처를 배정받아야 하고,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김종숙 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역시 집을 잃은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재민은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말로만 설명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돕고, 울면서도 누군가를 챙기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타인의 문제 앞에 섰다.

66

돌봐 드리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이 원래
한쪽밖에 없으세요

99

김종숙 씨에게 돌봄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던 것 같다. 그는 인터뷰 중에도 시간을 살폈다.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양로원이었다. 돌봐드리는 할머니의 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 탔고, 아직 삶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그날도 그의 일정에는 다른 사람의 병원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양로원 들러 가야 돼. 할머니 눈이 아프다고” 누군가 가족이냐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명히 했다. “아니, 돌봐 드리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눈이 더 걱정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눈이 원래 한쪽밖에 없으세요” 그러니 남은 한쪽 눈은 더 중요했다. 김종숙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쪽이 되게 중요하잖아.” 한쪽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마음이었다. “눈이 아프서 갖고”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한쪽 눈은 세상 전체다. 김종숙 씨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가야 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돌봄이 무엇인지 본다. 돌봄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남은 한쪽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일이다. 그 눈이 아프다는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다.

행정은 사람을 세대 단위로 본다. 연령, 주소, 피해 여부, 지원 대상. 그러나 돌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돌봄은 한 사람의 구체적인 약함을 안다. 이 할머니는 한쪽 눈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눈이 아프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힐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김종숙 씨는 움직였다.

이것이 마을 공동체의 깊은 층이다. 공동체는 함께 밥 먹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약함을 아는 관계이기도 하다. 누가 혼자 있는지 아는 것, 누가 귀가 잘 안 들리는지 아는 것, 누가 눈이 안 좋은지 아는 것, 누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는 것. 재난 이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이다. 공식 서류에는 없지만, 마을 안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그것이 위기 속에서 실제 돌봄으로 이어진다.

김종숙 씨는 동네 밥자리에서도 자기 몫을 했다. 재난 이후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밥을 차리고, 상을 펴고, 그릇을 치워야 했다. 이런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를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손들이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물을 떠오고, 누군가는 밥상을 펴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한다. 밥을 먹는 공동체는 먹고 난 뒤의 일까지 함께 책임져야 유지된다.

김종숙 씨는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네 가면 이제 밥 계속 먹을 때는 설거지도 하고 이제 밥도

차리고 이제 밥상도 피고 이제 그 일 도와주고 그러지.” 말로만 하는 돌봄이 아니라 손과 허리와 무릎으로 하는 돌봄이다. 이재민이라는 이름 뒤에는 이런 몸이 있다. 집을 잃었지만, 여전히 남을 위해 허리를 숙이는 몸. 자기 살림은 탔지만, 남의 밥상을 펴는 손. 자기 일도 많은데, 동네 밥자리를 돕는 사람.

우리는 재난 이후의 공동체를 말할 때, 자주 감동적인 장면만 떠올린다.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위로하는 장면. 물론 그것도 공동체다. 그러나 더 오래가는 공동체는 설거지에 있다. 밥상을 펴는 일에 있다. 밤늦게 병원을 알아보는 전화에 있다. 할머니 눈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양로원에 들러야 한다고 일어나는 발 걸음에 있다. 공동체는 마음만이 아니라 노동이다. 그리고 이 노동은 너무 자주 조용히 이루어진다. 누가 기록하지 않아도 한다.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한다. 누가 공문에 적지 않아도 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런 돌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특히 여성들의 돌봄, 마을 안의 이런 비공식 돌봄, 밥상과 설거지와 병원 알아보기 같은 일들은 재난 복구의 중요한 축인데도 공식적인 복구 언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을이 실제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들 덕분이다.

재난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안에 가두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종숙 씨는 자기 집을 잃었다. 그러나 타인의 이름을 잃지 않았다. 자기 삶이 무너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챙기는 감각은 무너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

공동체는 김종숙 씨 같은 사람들로 버틴다. 그러나 공동체가 버틴다는 말은, 그들에게 계속 버티라고만 해서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돌봄의 손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 손을 받쳐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마을에서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 그 돌봄이 재난 이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돌봄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일.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어야 한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을지 모른다. 보상금은 언젠가 들어올 수 있다. 임시 거처도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병원을 알아봐 주는 전화,

밥상을 펴는 손, 아픈 눈을 걱정하는 발걸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을은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재난은 김종숙 씨의 집을 태웠다.

그러나 누군가를 돌보러 가는 마음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감각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재민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병원을 알아봐 주는 전화, 밥상을 펴는 손, 아픈 눈을 걱정하는 발걸음. 이런 소소한 마음들이 있어 마을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어주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는가?

재난은 사람을 받는 자리로 밀어 넣는다.

구호품을 받고 옷을 받는다. 이불을 받고 밥을 받는다. 임시 거처를 받고 보상금을 기다린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고, 누군가 주는 물건을 고맙다고 받는다. 집이 타고, 살림이 사라지고, 통장이 불안해지면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받기만 하는 존재로 오래 머물 수 없다. 특히 평생 자기 손으로 밥을 해 먹고, 농사를 짓고, 이웃

을 챙기고, 손님을 대접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는 자리'는 낯설고 불편하다. 그것은 물건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세가 흔들리는 일이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에게 내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주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손님이 오면 무엇이라도 내놓던 사람이었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졌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넘기기조차 쉽지 않다.

66

나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다

99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이 탄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도, 누군가 찾아오면 무엇이 라도 내놓으려 한다. 이는 습관이기도 하고, 예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은 재난 이후 무너진 삶을 버티게 한다.

이재민이라는 말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 구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지원 대상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재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태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손님을 대접하던 사람은 여전히 손님을 대접하려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 조심하고, 작은 도움 앞에서도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전한다. 김남수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먼저 먹을 것을 권했다. 그것은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서 흔히 기대하는 장면과는 조금 달랐다. 이재민의 집을 방문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장면을 떠오른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고, 무엇을 잃었느냐고 묻고,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는다. 그런데 김남수 씨는 그 질문들 앞에서 먼저 손님을

보았다. 먼 길을 온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사람들.

그는 질문에 답했다. “이거 하나씩 자시고”

그리고 이어 말했다. “먹으면 되지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했다. “어여 먹고 와.”

김남수 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오면 그냥 보내지 못했다. 과메기를 내고, 고구마를 삶고, 약밥과 사과를 썰었다. “누구라도 오면 뭐 우체부라도 오면 뭐 준다. 나는 자꾸 준다.” 그에게 대접은 습관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었다. 김남수 씨의 집에 들어서면, 인터뷰에 앞서 먼저 밥상이 놓였다. 과메기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고, 약밥과 사과가 나왔다. 시민대응단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생각하며 찾아갔지만, 김남수 씨는 먼저 무엇을 먹일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손주가 한다는 과메기 사업 이야기를 길게 했다. 과메기를 어떻게 포장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손주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기했다. 김남수 씨가 손주의 과메기 사업을 도왔다고 했다. 재난 이후 쉽게 고립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손주의 일을 도우며 계속 손주를 만나고 대화를 한 것은 김남수 씨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람이 아니었다. 재난 이후에도 그의 삶 안에 아직 이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증거였다. 손주의 일, 가족의 방문, 함께 먹은 음식,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맛. 그런 이야기들이 김남수 씨를 다시 김남수 씨답게 만듦과 있었다.

시민대응단이 떠날 때도 그는 금방 돌아서지 않았다. 문 앞에 앉아, 혹은 창가에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누군가 찾아오는 시간이 그에게는 짧은 방문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이었을지 모른다. 재난 이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품만이 아니었다. 다시 찾아오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내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는 사람도 필요했다.

김남수 씨는 이재민이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그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66

누구라도 오면 뭐
우체부라도 오면 뭐 준다
나는 자꾸 준다

99

1

1 시민대응단과 문 앞에서 인사하는 김남수 씨.

누군가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손주의 과메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스카프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재난은 그가 살던 집을 빼앗았지만, 그가 사람을 맞이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다.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재난 이전처럼 넉넉한 살림이어서도 아니었다. 집과 물건들을 많이 잃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손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관계의 넉넉함이었다. 손님이 왔으니 먹을 것을 내놓는 사람. 누군가 앞에 앉았으니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사람. 집이 달라지고, 살림이 사라지고 몸은 피곤해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 사람. 김남수 씨는 그렇게 자기 삶의 오래된 방식을 지키고 있었다.

재난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역할을 빼앗아가는 일이다. 농사짓던 사람에게 농사지를 밭과 도구를 빼앗고, 밥을 해 먹이던 사람에게 부역을 빼앗고, 손님을 대접하던 사람에게 대접할 살림을 빼앗는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던 말들을 잃는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다. 나는 밥을 해 나누는 사람이다. 나는 손님에게 무엇이라도 내놓는 사람이다. 재난은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던 그 역할들을 흔든다.

그래서 작은 나눔은 중요하다. 그것은 ‘아직 내가 나로 남아 있다’는 확인이다. 남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감각,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는 감각, 내 손이 완전히 빈손만은 아니라는 감각. 이런 감각이 사람을 다시 세운다. 복구는 집을 다시 짓는 일만이 아니다. 복구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조금씩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최영섭 씨의 말은 다른 방향에서 같은 존엄을 보여 준다. 그는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했다. 재난 이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 행정에 기대고, 가족에게 기대고, 이웃에게 기대고, 자원봉사자에게 기대고, 낯선 사람들의 후원에 기대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일은 불편하지만은 않다.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도움을 받는 것이 고맙지만, 동시에 미안하다. 필요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다.

최영섭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살아가면 하나하나 해야지 너무 이래 피해 끼치고…”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다. “하나하나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집도, 생활도, 마음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하나하나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 “너무 이래 피해 끼치고…” 그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폐를 끼치고 있다고 느꼈다.

사실 이재민이 미안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재난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도움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느끼는 미안함을 쉽게 지워서도 안 된다. 그 미안함 안에는 평생

66

너무 감사하다고전해주세요세상에 다내 마음에 들게 해주고...그냥 너무 감사해요

99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살아온 태도가 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몫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나하나 해야지”라는 말 속에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기 삶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 최영섭 씨의 존엄은 바로 그곳에 있다. 그는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움받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해 나가려는 마음. 그것은 재난 이후에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재난 이후의 지원은 이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미안함에 짓눌리지 않도록, 다시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움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구호품은 사람을 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원은 받는 사람의 품위를 지켜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신명자 씨는 또 다른 결을 보여 준다. 그는 도움 앞에서 감사함을 크게 표현했다. 재난 이후 누군가 집 주변을 정리해 주고, 텃밭과 꽃을 놓을 수 있게 해 주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함께 만들어 주었을 때, 그는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고마움은 때로 너무 쉽게 소비된다. “고맙다”라는 말로 정리되기 쉽다. 그러나 신명자 씨의 감사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이 있다.

그는 말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또 말했다. “세상에 다 내 마음에 들게 해주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재난 이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든다”는 감각은 작지만 소중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예뻐다고 느끼는 것, 내가 놓고 싶은 것,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신명자 씨의 감사는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에는,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감각이 들어 있다. 누군가가 대충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게 해주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받는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돌려주는 말이다. 받은 것을 고마움으로 다시 내어주는 말이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의 존엄을 실현하면서 재난을 이겨내고 있었다. 김남수 씨는 찾아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권했고, 최영섭 씨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신명자 씨는 자신에게 온 도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받기만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미안함 속에서도 자기 몫을 하려 하고, 감사를 다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재난 이후 인간의 존엄이 있다. 존엄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는 태도로, 타인과 공존하며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존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일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일 수 있다. 받은 도움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일일 수 있다. 존엄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는 태도다.

재난은 사람을 수동적인 위치로 밀어 넣는다. 기다리게 만들고, 신청하게 만들고, 설명하게 만들고, 증명하게 만든다. 무엇을 잃었는지 말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대답해야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쉽게 ‘대상자’로 여겨진다. 지원 대상자, 피해 대상자, 수급 대상자처럼 행정의 편의라는 이유로 이들을 객체화한다. 그러나 사람을 단순히 대상자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의 시각에서 대상자로

여겨지는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잘 보아야 한다. 사람을 필요한 물품의 목록으로만 볼 때 재난 복구는 실패하게 된다. 옷이 필요한 사람, 집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 물론 그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의 합계가 아니다. 모든 이재민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엇을 받을 때도 마음이 있고, 무엇을 줄 때도 마음이 있다. 지원은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

김남수 씨가 “이거 하나씩 자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 주는 것. 최영섭 씨가 “하나하나 해야지”라고 말하며 자기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신명자 씨가 “다 마음에 들게 해주고”라고 말할 만큼 자기 취향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이다. 회복은 단지 물건을 다시 채워 주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다시 자기의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재난 이후 사람들에게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 작은 과일 하나, 사탕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내어줄 수 있는 자리.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뒤통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자리. 고마운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재민을 볼 때 그들이 잃은 것부터 본다. 집을 잃었다. 옷을 잃었다. 발을 잃었다. 잠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보는 것이다. 그들은 잃은 사람인 동시에 여전히 가진 사람들이다. 대접하는 마음을 가졌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가벼운 미담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따뜻했다”는 말로 덮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려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려면, 그들이 지치지 않아야 한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정말 폐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록, 도움이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존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민들은 산불에 집이 타고, 살림은 사라졌기에, 많은 것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남은 것을 내어주려 했다. 재난은 그들을 지원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품위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이들은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갔다**

집은 탔는데, 왜 사람들은 다시 흠을 만지러 나갔을까?

재난 이후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몸이 먼저 멈춘다. 불길을 피해 달아나고, 체육관 바닥에서 밤을 보내고, 회관과 임시 거처를 지나오고 나면 몸은 지친다.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루쯤 누워 있고 싶고,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싶고, 세상이 잠시 멈추었으면 싶다. 집도 탔고, 살림도 탔고, 마음도 다 탔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손은 할 일을 잃고, 눈은 자꾸 잤더니 쪽으로 돌아가고, 머릿속은 같은 장면을 반복한다. 불이 오던 밤,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 돌아갈 수 없는 집, 앞으로 살아갈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더 바빠진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때 더 깊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향했다.

돈이 되어서만은 아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만도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재난 이후의 밭은 생계 이전에 마음을 붙잡는 곳이 된다.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몰려온다. 불탄 집과 사라진 물건과 앞으로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런데 밭에 가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 잡초를 보고, 흙을 만지고, 가지를 살핀다. 생각은 뒤로 물러나고, 손이 앞에 선다.

한귀순 씨에게 밭은 그런 곳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농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다. 혼자 힘들다고, 이제 그만 쉬라고, 몸도 생각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농사는 힘들다. 허리를 굽혀야 하고, 손목을 써야 하고, 더운 날에도 나가야 하고, 비가 오기 전에도 나가야 한다. 농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잡초는 쉬지 않고 자라고, 가지는 때를 놓치면 영기고, 열매는 제때 돌보지 않으면 상한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귀순 씨는 밭으로 갔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다. 몸이 힘든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더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동생이 내보고 농사 짓지 말라고 난리 나.” 동생은 혼자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혼자서 힘들다고” 그러나 한귀순 씨는 그 말 앞에서도 밭을 완전히 놓을 수 없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치매 오고 이상한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밭에 가 있는 시간을 생각하며 말을 흐렸다. “밭에 가 있으면…”

밭에 가 있으면 조금 낫다. 밭에 가 있으면 생각이 덜하다. 밭에 가 있으면 몸이 움직인다. 밭에 가 있으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밭에 가 있으면 오늘 하루가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재난은 사람에게서 집을 빼앗고, '할 일'을 빼앗았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밭을 먼저 들러야 하는지,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하는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하루는 계절과 함께 정해져 있다. 그런데 불이 그리들을 끊어 버리면 사람은 갑자기 빈 시간 앞에 서게 된다. 몸은 살아 있는데,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 빈 시간이 무섭다. 재난 이후의 고통은 바쁜 순간보다 조용한 순간에 더 크게 올 때가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가, 혼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내려앉는다. 낮인데도 무섭고, 저녁이 되면 더 허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니 밭으로 가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몸을 구하는 일이다.

밭은 사람에게 말을 시키지 않는다. 대신 일을 준다. 이쪽을 보라. 저 가지를 보라. 이 흙을 만져라. 저 풀을 뽑아라. 씨앗을 놓아라. 물을 줘라. 밭은 사람을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마음을 붙잡아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밭은 병원보다 먼저 찾아가는 곳이 된다. 상담실보다 먼저 앉는 자리,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무너지는 마음을 흙 위에 잠시 내려놓는 장소.

한귀순 씨가 농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사가 쉬워서가 아니다. 혼자 할 만해서가 아니다. 동생의 말처럼 힘들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찾아온다.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은 너무 많다. 왜 그날 그랬을까. 왜 나는 이것을 못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나이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어떻게 될까. 몸은 버틸까. 그런 생각들은 가만히 있을 때 더 잘 자란다.

밭은 그런 생각을 막는 울타리가 된다. 손이 흙을 만지는 동안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린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 불길은 조금 열려진다. 밭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보인다.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삶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최영섭 씨의 농사 계획도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작목 목록이 아니다. 양배추, 오이,

66

계획이 있어야
농사도 짓지…
그게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

99

고추, 땅콩, 고구마. 평범한 밭작물이다. 그러나 재난 이후 이 이름들은 아주 다른 무게를 가진다. 무엇을 심을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계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음 계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영섭 씨는 말했다. “양배추도 심고” 그리고 이어지는 작물들이 있었다. “오이… 고추… 땅콩… 고구마…” 그 말 뒤에는 농사를 대하는 그의 생각이 붙었다. “계획이 있어야 농사도 짓지. 그게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 이는 불길에 지워진 삶의 달력을 다시 채우는 일이다.

재난은 계획을 무너뜨린다. 내일 할 일을 무너뜨리고, 다음 달 일정을 무너뜨리고, 올해 농사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최영섭 씨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무엇을 심을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떻게 해야 일이 되는지 생각한다. 이것은 삶을 다시 자기 손 안으로 가져오려는 태도다.

계획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다. 계획은 내일이 있다고 믿는 방식이다. 오늘날 겨우 건디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너진 뒤에도 다시 계획을 세운다. 양배추를 심고, 오이를 심고, 고추를 심고, 땅콩과 고구마를 생각한다. 그것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농사는 늘 미래를 전제로 한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오늘날 보지 않는다. 심은 것이 자랄 시간을 믿는다. 가지를 자르는 사람은 지금의 가

지가 아니라 다음 열매를 생각한다. 밭을 고르는 사람은 오늘의 흙만이 아니라 다가올 계절을 본다. 그래서 재난 이후 다시 밭으로 간다는 것은, 미래를 다시 믿어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밭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은 아니다. 농사는 여전히 힘들고, 몸은 늙었고, 마음은 다 닳지 않았다. 밭에 간다고 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흙을 만진다고 상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절박함이기도 하다.

재난 이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는 일이 할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밥상을 펴는 일이 할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밭에 가는 일이 할 일이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을 준다. 오늘도 해야 할 것이 있고, 내 손을 기다리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사람을 살린다.

밭은 그런 점에서 사람을 다시 부른다. 이리 와라. 할 일이 있다. 이 풀을 뽑아라. 저 자리를 보아라. 씨앗을 놓아라. 가지를 보라. 농사일은 끝이 없어서 힘들지만, 바로 그 끝없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버팀목이 된다. 끝없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끝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한귀순 씨의 “밭에 가 있으면...”이라는 말 뒤에는 아마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혼자 집 안에 앉아 있으면 자꾸 불이 떠오른다. 그런데 밭에 가면 흙이 보인다. 흙을 보면 손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잠시 끊긴다. 돌아와서는 몸이 피곤하다. 피곤한 몸은 때로 잠을 조금 더 쉽게 부른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루를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다음 날 또 밭으로 간다.

이재민들에게 농사는 마음의 언어고 농사는 자신을 붙잡는 방식이다. 농사는 무너진 시간을 다시 배열하는 일이다. 밭으로 가는 발걸음은 단순히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이는 일이다.

행정은 농지를 피해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작물 피해를 산정하고, 장비 피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밭이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장소라는 사실은 숫자로 잘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한다”는 말은 어떤 피해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재난 이후 회복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람은 집만 있어도 살 수 없고, 돈만 있어도 살 수 없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일과 장소가 필요하다.

한귀순 씨와 최영섭 씨에게 그 장소는 밭이었다. 최영섭 씨에게도 밭은 다시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 양배추와 오이와 고추와 땅콩과 고구마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다시 하루를 짜는 이름들이었다. 무엇을 심을지 말하는 동안 사람은 다음 계절을 생각한다. 다음 계절을 생각하는 동안 삶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밭으로 간 것이 아니다. 다 잊어서 밭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잊을 수 없어서 갔다.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무너지는 마음을 흠 위에 잠시 세워두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밭으로 갔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몰려오고,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갔다. 밭은 늘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은 밭에서 다시 자기 몸을 움직였다.

재난은 집을 태웠지만, 사람들이 흠을 만지는 손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이재민들은 다시 밭으로 갔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무너지는 마음을 흠 위에 잠시 세워두기 위해서.

농사의 지식은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불이 발을 태울 수 있어도, 몸에 밴 기술까지 태울 수 있을까?

행정은 그들을 이재민으로 기록했다.

피해 주민, 임시주거 대상자, 보상 대상자, 구호 대상자. 재난 이후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은 대개 그렇게 시작된 다. 무엇을 잃었는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어떤 항목으로 접수되는가. 행정의 눈은 피해를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세고, 필요한 것을 분류한다.

그러나 그런 이름만으로는 그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들은 집을 잃었지만, 집만 잃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발을 잃었지만, 발만 잃은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흙을 만져온 사람들도고, 나무를 보고 계절을 읽어 온 사람들도고, 가지 하나를 보며 내년 열매를 생각해 온 사람들이었다. 어느 가지를 남겨야 하는지, 어느 눈이 살아 있는지, 약을 언제 쳐야 하는지, 열매가 굵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산불에 타버린 집, 타버린 창고, 타버린 나무, 타버린 농기구. 죄다 타버렸지만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 몸에 남은 지식이다. 손끝에 남은 감각이다. 나무를 보면 저절로 뻗어가는 시선이다. 어느 가지가 너무 크고, 어느 가지를 잘라야 하고, 어느 때 약을 쳐야 하는지 아는 감각. 불은 발을 태웠지만,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혀 온 농사의 기술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한귀순 씨는 인터뷰가 농사 이야기로 넘어가자 갑자기 선생이 되었다. 설명이 길어지고, 손짓이 따라붙고, 가지와 눈과 잎과 약 치는 시기를 구분했다. 사과나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짚었고, 복숭아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말해 주었다. 그 순간 그는 이재민이 아니라 농사 전문가였다.

한귀순 씨는 시민대응단과 나선 산책에서 복숭아나무를 보며 설명했다. 눈에서 꽃이 피고, 너무 많이 달리면 쉬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3개만 담가놓고” 남겨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무 키도 중요했다. “키가 이렇게 크게 달라잡아요 또 키 크면 수확이 안 돼 갖고 딱 이 정도로.” 키가 너무 크면 사람이 딸 수 없다. 열매가 있어도 손이 닿지 않으면 수확이 어렵다. 그러니 나무는 제멋대로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볼 수 있는 높이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해마다 실패하고 다시 해보며 몸에 새긴 지식이었다.

농사는 자연을 그대로 두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누르는 일도 아니다. 나무가 자라려는 힘과 사람이 돌볼 수 있는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키가 너무 크면 수확이 안 된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굵지 않다. 눈을 잘못 남기면 다음 해가 어려워진다. 농민은 그 균형을 몸으로 안다. 어느 정도 남기고, 어느 정도 잘라야 하는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손이 먼저 안다. 복숭아를 다 따고 나면 또 한 번 손을 봐야 한다. 올해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 잘 내릴지까지 봐야 한다. 한귀순 씨는 말했다. “나중에 이제 복숭아 다 따고 나면 또 이파리(잎을) 도장기로 또 쳐 한 번 더.” 그래야 다음에 눈이 잘 온다고 했다. 한귀순 씨의 이야기들은 농사의 문장이지만, 동시에 삶의 문장처럼 들렸다. 다음 해의 눈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올해의 손질이 있어야 한다. 지금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겨울의 눈이 달라진다. 농사는 늘 다음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농민은 현재의 나무 안에서 미래의 열매를 본다. 산불이 난 뒤에도 그런 시선은 남아 있었다.

집은 새로 지을 수 있고, 농기계는 새로 살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몸에 쌓은 농사의 감각은 쉽게 다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과 함께 늙어온 기술이다. 그 사람이 밭을 떠나면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지식이다. 재난이 무서운 이유는 집과 밭만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더 이상 쓰일 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귀순 씨는 사과 이야기가 나오자 또 다른 설명을 이어갔다. 누군가 사과가 작게 열린다고 하자, 그는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사과도 약 쳐야지 약간 치면 사과 안 돼,” “사과도 스물몇 번 쳐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사과 하나를 볼 때 과일 하나만 본다. 그러나 농민은 그 사과가 식탁에 오기까지 몇 번의 손길이 들어가는지 안다. 꽃이 피기 전부터, 열매가 달리기 전부터, 병이 오기 전부터,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살펴야 한다. 스물몇 번이라는

말은 단순한 횡수가 아니다. 그만큼 자주 봐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마음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열매가 작으면 종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 한귀순 씨 앞에서 누군가는 자기 집 사과가 자두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미나사과라서가 아니라, 전지와 거름과 약의 문제라는 것을 짚었다. “그걸 그러면 전지 안 하면 나무가 다 배리지.” 사과나무도 모양을 잡아야 하고, 뽕뽕하게 퍼지게 해야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했다.

이런 순간마다 인터뷰의 관계가 바뀌곤 했다. 질문하던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되고, 피해자로 기록되던 한귀순 씨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재난 이후 사람들을 피해자로만 보면, 이런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에게 농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최영섭 씨에게도 그런 지식이 있었다. 그는 농사가 계획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을 심을지, 비닐은 언제 깔지, 고랑은 어떻게 만들지, 감자를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비료와 석회와 유박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 중 누군가 감자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자, 그는 바로 방법을 설명했다. 농사는 그냥 씨를 넣는 일이 아니었다. 땅을 만들고, 높이를 만들고, 순서를 맞추는 일이었다.

최영섭 씨는 말했다. “계획이 있어야 농사도 짓지. 그게 없으면 일이

66

그 벌이가(벌이)

없으면 안 돼

농사가 잘 안 된다

99

이게 안 되잖아.” 그리고 감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원래 그래 하는 게 아니면 내가 가르쳐줬구먼”이라고 했다. 이어 비료와 살충제, 석회, 유박을 뿌리고 두둑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다. 감자를 위에 심으면 작은 것만 나온다고도 했다. 최영섭 씨는 벌 이야기도 했다. 꽃이 피면 벌이 와야 수정이 되고, 그래야 농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꿀벌이 줄어드는 문제도 농사의 문제로 연결했다. 그는 “벌이개(벌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라고 말했다. “그 벌이개(벌이) 없으면 안 돼. 농사가 잘 안 된다.”

한귀순 씨는 나무의 눈과 가지를 읽고, 최영섭 씨는 감자의 두둑과 흙의 높이를 읽는다. 둘 다 농사라는 같은 세계 안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재난은 그들을 한꺼번에 이재민이라고 불렀지만, 그 이름 아래에는 복숭아를 아는 사람, 사과를 아는 사람, 감자를 아는 사람, 논을 아는 사람, 벌과 수정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농사의 지식이 단순히 작물 하나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농민은 흙만 보지 않는다. 벌을 보고, 꽃을 보고, 날씨를 보고, 병을 보고, 사람의 일손을 본다. 농사는 관계망이다. 나무와 흙, 꽃과 벌, 물과 바람, 사람의 손과 계절이 얹혀야 가능하다. 그 모든 연결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 농민이다. 재난 이후에도 그 지식은 남아 있었다.

행정은 그들을 피해자로 기록했지만, 그들의 몸에는 아직 가르칠 것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알려 주는 사람이었다. 돌봄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농사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상실을 말하는 사람인 동시에, 계절과 나무와 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귀순 씨가 복숭아나무 앞에서 가지를 설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 최영섭 씨가 감자 두둑과 벌의 필요를 설명하는 순간, 그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농민이었다. 그리고 농민이라는 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읽는 방식을 내고 팔고 있었다.

산불은 많은 것을 태웠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남은 기술과 감각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나무를 보면 어디를 잘라야 하는지 아는 눈,
열매가 굵어지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아는 손,
벌이 있어야 농사가 된다는 것을 아는 오래된 지혜.

그 지식이 남아 있는 한,
그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었다.

과일나무는

가족들과의 기억이었다

불이 태운 것은 나무였을까, 그 나무 아래서 함께 열매를 먹던 시간들이었을까?

시골집의 마당에는 먹을 것들이 자란다.

도시의 집마당은 보기 위한 공간일 때가 많다.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계절을 장식한다. 그러나 오래된 시골 집의 마당은 조금 다르다. 거기에는 따먹을 수 있는 것, 삶아 먹을 수 있는 것, 장아찌를 담글 수 있는 것, 손주가 오면 쥐여 보낼 수 있는 것, 머느리가 오면 따서 맛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란다. 감나무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두릅이 있고, 복숭아가 있고, 사과가 있고, 꿀이 있다. 그것들은 재산이기 전에 가족의 계절이었다.

산불이 그런 나무들을 태웠을 때, 행정은 그것을 작물 피해나 수목 피해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그루가 탔는지, 어떤 나무였는지, 얼마나 오래된 나무였는지,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일나무가 품고 있던 기억까지 계산하기는 어렵다. 감 하나를 따먹던 며느리의 손, 무화과를 좋아하던 가족의 입맛, 두릅을 뜯어 밥상에 올리던 봄날, 복숭아가 맛있다고 말하던 누군가의 목소리. 나무가 타면 그 기억들도 함께 그을린다. 최정임 씨의 집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 마당은 단순한 마당이 아니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었다. 계절이 되면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고, 누군가 찾아오면 이것 좀 먹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마당에 있는 나무는 집의 일부였고, 가족의 일부였고, 기억의 일부였다.

그는 마당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감.” 그리고 “무화과.” 또 있었다. “뜯어 먹는 거.” 두릅도 있었다. “두릅…”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이름들 안에는 여러 계절이 들어 있었다. 봄에는 두릅이 올라오고, 여름과 가을에는 과일이 익고, 가족이 오면 따 먹고, 누군가 좋아하면 챙겨주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감나무와 무화과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맛보던 기억이었다. 특히 며느리와 가족이 와서 먹던 장면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최정임 씨는 말했다. “감나무, 무화과…” 그리고 가족을 떠올렸다. “우리 큰 며느리 막내 이렇게 커가…” 그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얼마나 잘 먹어.”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다. 나무가 좋았다는 말도 아니다. 그 나무가 가족을 불러 모았고, 가족의 입을 즐겁게 했고, 집을 집답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과일나무가 있는 집에는 기다림이 있다. 꽃이 피면 올해는 얼마나 달릴까 생각하고, 열매가 맺히면 너무 많이 달렸나 살피고, 익어가면 누구에게 먼저 먹일까 떠올린다. 과일은 혼자 먹기 위해서만 자라지 않는다. 특히 시골집의 과일은 대개 누군가에게 간다.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멀리 사는 가족에게. 과일이 익는다는 것은 나눌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최정임 씨의 말 속에도 그런 장면이 있다. 탐스럽게 열린 과실을 가족이 와서 따먹는 모습. 나무는 그 자리에 있

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 곁에서 계절을 보냈다. 그러나 산불이 지나간 뒤, 그 장면은 더 이상 마당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무는 사라졌고, 열매도 사라졌고, 가족이 와서 따먹던 시간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최정임 씨는 말했다. “지금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기억밖에 없다는 말은 아팠다. 예전에는 마당에 나가면 만질 수 있고, 딸 수 있고, 먹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머릿속에만 남았다. 기억은 남았지만, 기억을 다시 만질 장소는 사라졌다. 마당에 나가면 보이던 나무가 없고, 손을 뻗으면 닿던 열매가 없고, 가족이 와서 따먹던 계절이 없다. 그래서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동시에 더 쓸쓸해진다.

재난은 이렇게 사람의 시간을 바꾼다. 현재가 갑자기 과거가 되어버린다. 어제까지는 마당에 있던 나무가 오늘은 기억 속 나무가 된다. 올해도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열매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가족이 오면 또 따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감과 무화과가 이제는 말로만 남는다. “우리(가족이) 얼마나 잘 먹어.” 이 말 뒤에는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김남수 씨의 기억도 과일과 꿀을 따라 이어진다. 농산물은 단지 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집에서 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맛있다고 해 주는 사람에게.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누군가가 “맛있다.”라고 말해 주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는 한 해의 수고를 알아 주는 말이다. 사과 한 상자, 복숭아 한 상자, 꿀 한 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 주는 방식이었다. 김남수 씨는 농산물을 보냈던 일을 떠올렸다. “택배로 많이 했다.” 복숭아를 보내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복숭아 맛있다고 카고…” 사과도 그랬다. “사과도 맛있다고 카고…” 꿀도 있었다. “우리 꿀이 좋다고…” 또 누군가는 직접 먹어보고 좋다고 했다. “우리 꿀로 먹어보니 좋다고…”

이 말들 속에는 자부심이 있다. 내가 지은 것, 내가 돌본 것, 내 집에서 나온 것이 누군가에게 맛있다고 인정 받는

기쁨. 농산물은 돈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말로 돌아오기도 한다. “맛있다.” “좋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해의 땀과 계절과 손길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사람을 이어 준다. 택배 상자를 보내고,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맛있다는 말을 듣고, 다음에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복숭아와 사과와 꿀은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 가족과 이웃과 지인에게 닿는다. 농사는 밭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사는 누군가의 식탁에서 이어진다.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다시 연락하고, 기억하는 순간까지가 농사다.

그래서 산불이 농산물과 나무를 태운 것은 나눔의 통로를 끊은 일이기도 했다. 더 이상 보낼 복숭아가 없고, 사과가 없고, 꿀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소득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올해 것도 맛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맛있다는 말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손주에게, 자식에게, 지인에게, 이웃에게 보내던 계절의 인사가 사라진 것이다.

시골의 과일나무는 가족관계의 달력과도 같다. 감이 익으면 누가 올 때가 되었고, 무화과가 열리면 누가 좋아했는지 생각나고, 복숭아가 나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떠오른다. 꿀이 생기면 누가 좋다고 했는지 기억난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열매는 사람들을 향해 뻗어간다. 산불이 뿌리와 가지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길마저 불태워버렸다.

최정임 씨에게 감나무와 무화과는 며느리와 가족의 기억이었다. 김남수 씨에게 복숭아와 사과와 꿀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길이었다. 하나는 마당에서 함께 따먹던 기억이고, 하나는 택배 상자에 담겨 멀리 가던 기억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과일나무와 농산물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은 단순히 “몇 그루가 탔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몇 그루라는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몇 그루가 누구를 불러왔는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지까지 보아야 한다. 어떤 감나무

는 머느리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다. 어떤 무화과는 가족들이 다 먹고 간 오후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복숭아는 택배 상자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갔다. 어떤 꿀은 “좋다”는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재난 이후 사람들은 사라진 물건만 말하지 않았다. 그 물건과 연결된 사람들을 함께 말했다. “우리 큰 머느리.” “막내.” “얼마나 잘 먹어.” “복숭아 맛있었다.” “사과도 맛있었다.” “우리 꿀이 좋다고.” 이 말들은 모두 사람의 말이다. 나무 이야기는 결국 사람 이야기로 이어진다. 과일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 관계 이야기가 된다. 집과 밭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집과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가족이 먹던 과일이 있었고, 멀리 보낸 농산물이 있었고, 맛있다는 말이 있었고, 누군가와 이어지는 계절이 있었다. 불이 그것을 태웠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수확물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가족에게 내밀 수 있는 손,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상자,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그럼에도 기억은 남았다. 최정임 씨의 말처럼,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기억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억은 사라진 나무를 증언한다. 김남수 씨의 말처럼, 복숭아와 사과와 꿀을 맛있다고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들은 불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 이 집과 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행정은 과일나무를 피해목으로 셀 수 있고, 농산물을 손실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나무 아래에서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 과일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 맛있다는 말이 누구를 웃게 했는지. 그것을 보아야 비로소 이 재난이 빼앗아간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불이 태운 것은 나무만이 아니었다.

가족이 따먹던 오후였고,

멀리 보내던 택배 상자였고,

“맛있다”는 말을 기다리던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말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한,
그 나무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테니까.

불탄 자리에 다시 회복될 일상을

상상하는 사람들

집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 사람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은 지붕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비를 피할 지붕이 있어야 하고, 몸을 누일 방이 있어야 하고, 밥을 해 먹을 부엌이 있어야 한다. 재난 이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다. 안전한 잠자리, 따뜻한 밥, 씻을 수 있는 물, 추위를 막을 벽. 이것들이 없으면 삶이 뿌리째 흔들린다. 그러니 복구는 먼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서 살 것인가. 언제 입주할 것인가. 얼마나 지원받을 것인가. 어떤 구조로 다시 지을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집이라는 건축물만으로 살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꽃이 보고 싶어지고, 흙을 고르고 싶어지고, 마당 한쪽에 무엇을 심을지 생각하게 된다. 텃밭을 어디에 놓을지, 꽃을 어디에 두면 예쁠지 등을 상상하게 된다. 처음에는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은 조금 더 섬세한 것을 요구한다.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진다.

이것은 사치도, 배부른 소리도 아니다.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일은 회복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중요한 신호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는 예쁜 것을 고르지 못한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꽃을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 색깔과 모양과 배치는 멀어진다. 그런데 어느 날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텃밭을 보고 “우리 집이 변하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삶이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불탄 자리에 아름다움을 다시 놓는 일은 잿더미가 된 장소를 다시 ‘내 집’으로 바꾸는 일이다. 검게 타버린 땅에 흙을 고르고, 꽃을 심고, 작은 밭을 만들며, 이곳이 아직 끝난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다. 집을 다시 짓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회복이다. 집이 몸을 들이는 곳이라면, 꽃과 텃밭은 마음이 다시 깃드는 자리다. 신명자 씨의 말에는 바로 그 순간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이다. 예전의 집은 사라졌고, 새로 정리된 자리는 아직 자기 집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텃밭이 놓이고 꽃이 들어오자, 장소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불탄 자리 위에 다시 자기 취향과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신명자 씨는 말했다. “텃밭도 변하네. 우리 집이 변하네.”

그리고 꽃을 보며 말했다. “꽃도 너무 예쁘고.”

어디에 놓아도 예쁘다고도 했다. “아무 데나 놔둬도 예쁘다.”

“우리 집이 변했네.”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이

66

텃밭도 변하네

우리 집이 변하네

꽃도 너무 예쁘고

아무 데나 놔둬도 예쁘다

99

좋아졌다”가 아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다. 재난 이후 사람은 자기 공간을 잃는다. 임시로 머무는 곳, 남이 마련해준 곳, 아직 내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지낸다. 그런데 텃밭과 꽃이 놓이는 순간, 그 공간은 점점 ‘우리 집’이 된다.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다.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집”이라는 말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이야말로 회복의 아주 조용한 징후다.

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보상금을 올려 주지도 않고, 타버린 살림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밤의 불안을 완전히 지워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꽃은 ‘아직 예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텃밭은 큰돈을 벌게 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다시 무엇을 심을 수 있다’는 감각을 돌려준다. 재난 이후의 회복은 이런 작은 감각들로 이루어진다. 눈이 다시 예쁜 것을 알아보고, 손이 다시 흙을 만지는 일.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고르는 일.

아름다움은 생존보다 늦게 오지만, 생존만큼 중요하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을 좋아하고 싶어 한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꽃이 보이기를 바라고, 마당 한쪽에 내가 심은 것이 자라기를 바란다. 누군가 오면 “이거 예쁘지요” 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이 돌아올 때, 사람은 조금씩 피해자의 자리에서 생활인의 자리로 돌아온다.

최영섭 씨의 상상은 자기 집 마당을 넘어 마을의 산으로 넓어진다. 불탄 산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장소일 수 있다. 검게 그을린 나무, 사라진 숲, 바람만 남은 능선. 그런 산을 볼 때 사람들은 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삭막한 풍경 위에 다시 꽃을 상상한다. 돌복숭아를 심고, 홍도화를 심고,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조경 계획이 아니다. 불탄 산을 다시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장소로 바꾸려는 상상이다.

최영섭 씨는 말했다. “돌복숭아 꽃…”

그리고 “홍도화를 심고…”라고 했다.

그가 떠올린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덕에 오면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놔야지.”

지금은 불탄 산이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산이 될 수 있다는 상상. 지금은 상실의 현장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계절의 풍경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이 상상에는 마을을 다시 바깥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영덕에 와서, 꽃을 보고, 사진을 찍고, 이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재난은 장소의 이미지를 바꾼다. 한때 살던 마을이 뉴스 속 피해지가 되고, 아름답던 산이 산불 현장이 되고, 사람들의 고향이 재난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 뒤에 사람들은 다시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한다. 이곳은 불탄 곳만이 아니라고 이곳은 꽃이 피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돌복숭아와 홍도화가 피는 곳이라고. 최영섭 씨의 상상은 바로 그 이름 되찾기다.

아름다움은 기억을 바꾸는 힘이 있다. 물론 불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불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리에 꽃이 피면, 사람들은 그 장소를 볼 때 불만 떠올리지 않게 된다. 거기에 꽃이 있었다는 기억, 사진을 찍었다는 기억, 누군가와 함께 걸었다는 기억이 새로 생긴다.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과거 위에 새로운 기억을 겹쳐놓는 일이다. 불탄 산에 꽃을 심자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잊자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살자는 말이다.

홍해진 씨의 고사리 이야기도 이 상상과 닿아 있다. 고사리는 불탄 자리에서도 다시 올라오는 식물이다. 위는 닳을지 몰라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시 올라온다. 불탄 감나무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라진 집도, 사라진 시간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고사리가 다시 올라온다는 사실은, 불이 모든 생명을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홍해진 씨는 말했다. “고사리는 새로 올라오지만…”

고사리는 새로 올라온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타버린 것들이 있다. 다시 올라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함께 있다. 이것이 회복의 진짜 모습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은 다시 올라오고, 어떤 것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둘 사이에서 산다.

신명자 씨의 꽃, 최영섭 씨의 돌복숭아와 홍도화, 홍해진 씨의 고사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회복은 단지 집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자라는 것을 상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불탄 자리에도 색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는 것을. 회복은 크고 요란하지 않다. 꽃 한 포기, 텃밭 한 줄, 고사리 한 줄기, 언젠가 피어날 홍도화의 색으로 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아름답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불탄 자리에 꽃을 놓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서 꽃을 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놓는다. 꽃이 있어야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텃밭이 있어야 그 집을 다시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에 꽃이 피어야 불탄 기억을 조금 다르게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상처를 덮는 장식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다.

재난 이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능력까지 잃지는 않았다. 아름다움은 상처를 덮는 장식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집이 타고, 밭이 타고, 산이 타고, 삶의 계획이 흔들렸는데도 사람들은 다시 꽃을 말한다. 텃밭을 말한다. 돌복숭아와 홍도화를 말한다. 고사리를 말한다. 이것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처음에는 회색과 검정뿐이던 풍경 속에서, 어느 날 초록이 보인다.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고사리가 보이고, 텃밭의 모양이 보이고, 꽃의 자리가 보이고, 언젠가 피어날 홍도화가 보인다. 그때 사람은 다시 미래를 상상한다. 아주 크고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내 집이 조금 변하는 미래. 산에 꽃이 피는 미래.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미래. 고사리가 다시 올라오는 미래.

복구 계획은 큰 단위로 말하지만, 회복은 이렇게 작은 장면으로부터 다가온다.

불탄 자리에 다시 아름다움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곳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냥 버려진 땅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곳은 끝난 곳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 자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챙겼고, 밥을 나누었고, 돌보았고, 밭으로 갔고, 농사의 지식을 말했고, 가족의 과일나무를 기억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상의 아름다움을 상상했다.

회복은 집을 다시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회복은 불탄 산에 다시 꽃이 피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고사리가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일이다.

어느 날 꽃을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이재민들은 “잘 탔다”는 말 앞에서

어떤 말을 삼키게 될까

겉으로 좋아 보이면, 그 재난은 조금 덜 아픈 일이 되는 걸까?

사람들은 때때로 회복된 겉모습을 보고 쉽게 말한다.

예전보다 나아졌네. 집이 더 좋아졌네. 깨끗해졌네. 오히려 잘됐네.

66

사람들이 저런다아이고 그때보다 더 좋다잘 탔다좋은 점도 있고나쁜 점도 있는데그래도 난 듣기에 속상해

99

그 말이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다. 위로하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무너진 사람 앞에서 무엇이더라도 좋은 쪽으로 말해 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 새로 정리된 마당, 새로 놓인 물건, 전보다 깔끔해 보이는 공간을 보고 정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그 말은 다르게 닿는다. 겉으로 좋아 보인다는 말이, 그 사람이 지나온 불길과 상실까지 좋게 바꾸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회복은 상처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회복은 상처가 있었던 자리에 다시 무언가를 놓아보는 일이다. 꽃을 놓고, 텃밭을 만들고, 살림을 다시 들이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불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것이 생겼다고 해서, 타버린 오래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새집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집을 얻기 위해 지나온 밤과 공포와 눈물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잘 탔다”는 말은 위험하다. 그 말은 재난 이후의 상처를 너무 쉽게 정리해버린다. 예전보다 좋아졌으니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덕분에 더 나아진 것 아니냐고 묻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재난은 거래가 아니다. 집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불탄 집의 기억과 그 안에 있던 물건과 그 밤의 공포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신명자 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저런다. 아이고 그 때보다 더 좋다. 잘 탔다.” 겉으로 보면 좋아진 점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새로 정비된 공간이 예뻐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없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래도 난

듣기에 속상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재난 이후의 회복은 늘 그렇게 섞여 있다. 새로 생긴 것이 있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 예뻐진 곳이 있고, 그 예쁨을 보기까지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다. 고마운 도움도 있고, 그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상실도 있다. 그런데 바깥의 말은 종종 한쪽만을 향한다. 좋아졌네. 잘 났네. 잘 났네. 그 말은 회복의 복잡함을 지워버리고, 이재민들의 상처를 가볍게 다룬다. 불탄 뒤에 좋아진 것이 있다고 해서, 불탄 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집이 변했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남이 보기엔 예뻐진 마당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불탄 집터 위에 겨우 다시 놓은 삶이다. 그 노력을 “잘 났다”는 말로 덮어버리면, 회복은 다시 상처를 입는다.

회복의 존엄은 여기서 시작된다. 회복한 사람에게 “이제 괜찮지?”라고 함부로 묻지 않는 것. 새로워진 겉모습만 보고 “잘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타인의 상처를 내가 보기 좋은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재난 이후의 삶을 이해하려면, 좋아진 것과 아픈 것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탄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다시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긍정이 아니다. 그들이 겪은 상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살아가려는 힘을 존중하는 말이 필요하다.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 전에 그곳이 한때 불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예뻐졌다고 말하기 전에 그 예쁨이 어떤 상실 위에 놓였는지 헤아리





1

1 산불로 인해 타버린 집

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은 아니다. 꽃이 피어도 상처는 남고, 마당이 정리되어도 기억은 남고, 집이 좋아 보여도 그 집을 잃었던 밤은 사라지지 않는다.

회복은 미담이 아니다. 회복은 상처를 품고도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의 존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한다.

잘 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미담이 아니라,

지원받아야 할

회복의 기반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가?

마을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밥상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고, 찰밥을 나누었고, 찾아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권했다. 자기 집이 탄 사람이 아픈 할머니의 병원을 알아보았고,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의 눈을 걱정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다시 밭으로 갔고, 복숭아나무의 가지와 사과나무의 약 치는 법을 이야기했다. 불탄 자리에는 다시 꽃을 놓고, 언젠가 산에 돌복숭아와 홍도화가 피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을 상상했다.

이 모든 장면은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희망이다. 하지만 공동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모든 회복의 책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도 이미 다친 사람들이었다. 밥상을 펴는 사람에게도 쉴 자리가 필요했고, 아픈 할머니의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도 자기 삶을 돌볼 시간이 필요했다. 손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사람에게도 누군가 넉넉히 채워 주는 손이 필요했다.

공동체는 재난 이후의 미담이 아니다. 공동체는 필수적인 회복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칭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함께 밥 먹는 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돌봄을 맡은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밭으로 나가는 노인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을이 다시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유지시키는 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

재난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았다.

그러나 서로를 붙잡는 손도 언젠가는 지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마을은 서로를 살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을을 살릴 것인가.

공동체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공동체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가 그 곁에 서야 한다.

기후재난은 빨라졌지만, 행정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느렸다

12인의 이재민들의 증언을 통해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겪은 기후재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재난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재난 이후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불이라는 기후재난이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속도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삶을 다시 세우는 속도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간극이 있었다. 불은 몇 시간 만에 집과 생계, 마을의 기억을 무너뜨렸지만, 임시주거와 복구비, 생활 회복 지원은 훨씬 느리게 도착했다. 행정 문서에는 '발주 완료', '입주 예정', '임시주거 중', '복구비 확장'이라는 말이 남았지만, 그 말들이 현장의 이재민들에게 곧바로 잠자리와 생활비와 안전한 집이 되지는 못했다.

영덕 산불은 기후재난 시대의 중요한 경고다. 재난은 더 빠르고 강해지고 있지만, 복구 행정은 여전히 느리고 절차 중심적이었다. 산불은 몇 시간 만에 사람의 평생을 무너뜨렸지만, 임시 거처와 복구비는 100일 가까운 시간을 두고 도착했다. 행정 문서 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임시주거가 제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재민의 현실은 마을회관 생활, 늦어진 입주, 통장에 도착하지 않은 돈,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공동체가 스스로 메워야 했던 돌봄의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재난이 남긴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재난 이후의 회복을 행정 절차의 속도에 맡겨둘 것인가. 재난 피해자는 복구비가 발표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잠자리와 생활비와 돌봄과 존엄이 실제로 도착할 때 회복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재난 대응은 발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단기 복구 중심에서 공동체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난은 3시간 만에 찾아왔다.

그러나 회복은 100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다음 기후재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민들이 증언했던 영덕 산불의 핵심 쟁점

1 | 재난의 속도 3시간 VS 행정의 속도 100일

행정 기록은 당시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풍속 25m/s 이상의 강풍 속에서 산불이 25km를 확산하는 데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연이 한 개인의 평생을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시간이었다. 집, 살림, 밭, 농기계, 과일나무, 가족의 기억, 마을의 풍경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

그러나 재난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는 두 달이 넘게 걸렸다. 3월 말에 재난이 발생한 이후 4월, 5월을 지나 6월이 되어서야 입주가 완료되었다. 산불이 삶을 무너뜨리는 속도와 행정이 삶을 다시 세우는 속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이 늦었다'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기존 행정 절차가 재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다. 피해 조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설치를 기다리고, 입주를 조율하는 기존 방식은 빠르게 무너지는 삶 앞에서 너무 느렸다. 재난 피해자는 행정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날 밤 잘 곳이 필요하고, 다음 날 먹을 밥이 필요하며, 당장 몸을 누일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난 대응은 '선지원 후정산' 원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든 피해 산정이 끝난 뒤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존과 주거에 필요한 최소 조건은 먼저 제공하고, 세부 정산은 이후에 진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임시 거처는 재난 복구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생존권 보장의 첫 단계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서류상의 5월 입주 VS 실제로는 6월 1주차 입주

행정 기록만 보면, 임시주거 문제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4월 말 임시주택 발주가 완료되었고,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문서상으로는 재난 발생 한 달여 만에 주거 문제가 정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시간은 달랐다. 실제로는 5월 말에야 임시주택 청소가 진행되었고, 최종 입주는 6월 1주차에야 시작되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날짜 차이가 아니다. 이재민에게는 떠도는 시간이었고, 잠을 잃는 시간이었고, 마을회관과 임시 공간에서 버티는 시간이었다. 행정은 '발주 완료'와 '입주 예정'을 기록했지만, 이재민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 입주였다. 서류상으로는 책임이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집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행정이 '계획'과 '실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발주 완료는 주거 제공이 아니다. 입주 예정은 생활 안정이 아니다. 임시주택이 실제로 설치되고, 청소되고, 기반 시설이 연결되고, 사람이 들어가 잘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후재난 대응에서 행정의 성과 지표는 '발주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입주 완료'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입주 시점뿐 아니라, 그 공간이 폭염과 한파를 견딜 수 있는지, 냉난방과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적합한지까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이재민들이 증언했던 영덕 산불의 핵심 쟁점

3 | ‘임시주거 중’이라는 행정 표현 VS 마을회관 방치의 현실

행정 기록에는 이재민 1,135명이 ‘임시주거 중’이라고 적혀 있다. 이 표현만 보면, 이재민들이 일단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달랐다. 4월 11일, 재난 발생 20일 만에 이재민 구호소 활동이 종료되었고, 사람들은 각 마을회관으로 분산되었다.

행정의 시각에서 구호소 해산은 재난 수습의 한 단계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방치가 시작된 것이었다. 마을회관은 원래 장기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사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샤워와 위생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한다.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아픈 몸을 쉬게 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한계가 크다.

그럼에도 행정 문서에서는 이것이 ‘임시주거’로 처리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시주거’의 기준이다. 단순히 몸을 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임시주거인가. 아니면 사생활, 위생, 안전, 냉난방, 고령자 접근성, 심리적 안정까지 갖추어야 임시주거인가.

기후재난 시대의 임시주거 기준은 단순 수용 중심에서 인간다운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재민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주거 지원이 아니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씻을 권리, 잠잘 권리, 안전한 화장실, 고령자와 환자를 위한 돌봄 체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구호소 운영 종료 역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이재민의 실제 생활 안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재민들이 증언했던 영덕 산불의 핵심 쟁점

4 | 1조 8천억 원의 발표 VS 지원 밖에 남겨진 이재민들의 일상

5월 2일 정부는 피해액 1조 818억 원,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을 발표했다.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세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천문학적인 숫자가 제시되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이재민들은 달랐다. 복구비가 확정되었다는 발표와 실제 개인 복구비가 지급되는 시점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지원의 기준이 이재민들의 실제 삶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복구비는 집, 농지, 시설처럼 항목화할 수 있는 피해를 중심으로 계산되었지만, 불길에 태운 것은 서류의 칸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반지, 입을 옷과 생활용품, 병원에 가야 하는 몸,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묘목과 농기계, 새 집을 놓을 땅 문제까지 모두 이재민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배분연 씨는 돌아와 보니 “재정거리만 남았다”라고 했다. 돈도 반지도, 집 안의 물건도 모두 타버렸다고 했다. 유호준 씨는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기계가 필요한데 “불 났다고 천만 원 준다는데 기계값이 3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김중숙 씨는 임시주택에 살면서도 다시 집을 지을 땅을 사야 하는 문제를 걱정했다. 이처럼 지원은 있었지만, 실제 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밖에 남아 있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 거대한 숫자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는가. 복구비 총액이 크다는 사실이 곧 개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시설 복구, 산림 복구, 기반 시설 복구도 필요하지만,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돈과 다시 살아갈 조건이 필요하다.

핵심 쟁점 표로 살펴보기

따라서 재난 복구비 발표는 총액 중심이 아니라 도달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얼마가 책정되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제 생활과 주거 복구에 도착했는가이다. 기후재난 복구 행정은 발표용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하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쟁점	행정의 기록	현장의 현실	구조적 문제	필요한 전환
재난 속도와 행정 속도의 격차	산불이 3~4시간 만에 25km 확산	임시주택 입주까지 약 100일	재난의 속도를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함	선지원 후정산, 긴급 임시 거처 즉시 보급
계획과 실제 실행의 간극	5월 순차 입주 예정	실제 최종 입주는 6월 1주차 진행	'예정'이 '지원 완료' 처럼 기록됨	성과 기준을 발주가 아닌 실제 입주로 전환
임시주거의 착시	1,135명 임시주거 중	마을회관 장기 체류, 사생활·위생 부족	수용 공간을 주거로 간주	인간다운 임시주거 기준 마련
복구비 발표와 실제 지급의 간극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	개인 지급은 7월 말 마무리	총액 발표가 현장 회복을 대체	총액보다 실제 도달 시점과 실제 피해액 중심

PART 4.

공동체 회복 지원이

없는



재난 대응의 결과

11

재난 대응은 진행되었지만,
이재민의 삶은 혼란스러웠다

12

커다란 복구 예산 뒤에
사람들의 삶은 소외되었다

공동체 회복 지원이 없는 재난 대응의 결과

11

재난 대응은 진행되었지만, 이재민의 삶은 혼란스러웠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존재했다. 그런데 왜 이재민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의 잔재가 남은 일상을 보낸 걸까?

재난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흔히 '이제부터는 복구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집이 무너졌으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피해를 조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재민들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복구의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건과 공간의 문제는 물론 중요했지만, 정착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잠, 마음, 관계, 앞으로를 상상하는 힘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정의 첫 대응 안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누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언제 들어갔는지는 기록되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66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
낮에도 안 오는데 밤이
되면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

99



이애자 씨는 그 점을 직접적으로 말했다. "잠 못 자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 그는 회관에 합숙하던 때부터 수면 패턴이 깨졌고, 지금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 낮에도 안 오는데 밤이 되면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와."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임시 거처 생활 뒤편에서, 실제로는 몸의 리듬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물리적인 대피는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재난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애자 씨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 걱정도 없는데 잠이 안 온다"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불면의 호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

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지만, 이애자 씨의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충위를 내포한다. 걱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몸의 반응은 몸이 재난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잠이 안 오니 눈이 아프고, 눈이 아프니 낮에도 피곤하고, 허리와 무릎도 더 아프다. 그러니 하루종일 기운이 가라앉는다. 이런 문제는 '집이 생겼느냐', '지원금을 받았느냐'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회복의 영역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애자 씨의 증언은 이 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진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지붕과 벽뿐인가.

배분연 씨의 증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체육관에 있다가 와 보니 재만 남았더라." "고생이 많으니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도 불타는 꿈을 꾸다." "며칠 전에도 꿈을 꾸는데 불타는 꿈이 막…." 재난이 과거형의 사건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리적 대피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불이 난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더라"는 말까지 했던 대목은, 재난 이후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준다. 밥을 주고, 잠자리는 마련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이 자기 삶 전체를 잃은 충격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도 없었던 셈이다. 그러한 배분연 씨의 불안은 꿈으로 반복되었다. 불타는 꿈,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려는 꿈, 죽음 가까이에 누워 있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러나 시민대응단과 함께 옛집을 그릴 때, 그 꿈은 잠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민대응단이 손



배분연 씨가 그린 옛집

바닥과 발바닥 스티커를 꺼내며 “이 집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다 남아 있다”라고 하자, 배분연 씨는 방과 마당, 텃밭을 하나씩 되살렸다.

“여기는 텃밭이 있었어요”

그는 가지와 호박, 파와 고추를 떠올렸다. 호박은 노랗게 익은 것도 있고 새파란 것도 있었다. 지붕에는 나비가 앉았다. 마당에는 꽃이 붙었다. 불탄 집은 더 이상 실제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림 속에서 다시 색을 얻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에는 바로 이런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불안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머무는 기억의 장소를 함께 다시 그려 보는 일. 사라진 집을 다시 소유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집에 남아 있는 손과 발의 흔적을 함께 확인해 주는 일. 그것이 심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이 만나는 자리였다.

최영섭 씨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을 다른 방향에서 비춘다. “받는 것보다도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힘이 되더라.” 이 말은 단순히 정서적 위로가 좋았다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그 핵심을 역으로 드러낸다. 최영섭 씨는 임시주택, 땅값 문제, 이후의 불확실한 거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와서 말을 건네고 사정을 묻고, “어떻게 지내시느냐”라고 묻는 일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물건만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집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품만은 아니라는 것, 말 한마디와 존재 확인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를 이 증언은 분

66

어떻게 지내시느냐...

받는 것보다도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힘이 되더라

99



명히 보여 준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을 같이 놓고 보면, 첫 번째 행정 대응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조금 선명해진다. 그것은 공동체적 회복과 정서적 회복의 층위다. 행정은 보통 대피 인원, 거처 배치, 물품 지급, 예산 확정 같은 항목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재민들이 실제로 겪은 어려움은 그보다 훨씬 촘촘하고 오래 간다. 잠이 안 오고, 불타는 꿈을 계속 꾸고,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말을 건네주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한 사람의 마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회복 속도를 늦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을 잃었지만, 동시에 같이 살던 방식도 잃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은 이 '같이'의 붕괴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대응의 방향을 설정할 때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말할 때, 사람의 마음만 볼 수는 없다.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과 수단도 필요하다. 유호준 씨가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뽑은 이유도 결국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유호준 씨에게 오토바이는 사과 밭으로 가는 이동 수단이면서 동시에 마을회관과 이웃, 동창회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이동할 수



- 1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유호준 씨
- 2 유호준 씨가 직접 찍은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공동체는 가까이 있어도 멀어진다. 공동체 회복 지원은 모임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산불 이후 공동체 회복이 꼭 필요했음에도, 사람들이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오고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는 없었다. 우리는 증언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떨어져 문제를 바라보면 질문이 달라진다. 왜 그 지지가 온전히 주민들 몫이어야 했는가. 왜 이재민들에게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을 돌보는 구조, 불안에 시달리는 노인을 살피는 구조, 혼자 있으면 더 무너지는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재난 이후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돌봄,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지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에도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이재민들이 겪은 어려움과 혼란은 단지 "적응이 안 됐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과 장소만이 아니라, 그 장소 안에서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 줄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제도로 마련되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만든 관계망에 의존했다. 회관과 식당, 전화와 안부는 사람들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회관과 식당이 아니었다면, 그 전화와 안부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버텼을까. 이 질문은 다음 재난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지점을 가리킨다. 사람은 결코 물질적 대응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12

커다란 복구 예산 뒤에 사람들의 삶은 소외되었다

1조 8천억 원의 복구비가 발표되었지만, 이재민들은 회복의 자리에 서 도리어 '소외'를 경험했다. 거대한 숫자 뒤에 홀로 남겨진 그들은, 매일 밤 밀려오는 불안을 무엇으로 견뎌야 했는가?

재난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 겹의 뜻을 가진다. 집을 잃고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지원의 언어로는 포착하지 못한 채 감정과 관계의 공백 속에 남겨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많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이 있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안에서는 여전히 비어 있는 곳들이 있었다. 그 빈 곳은 주로 혼자 있는 시간, 밤, 말이 끊기는 순간, 회관에 사람이 줄어드는 장면, 이사를 가고 난 뒤 더는 불러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최정임 씨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다. "혼자 있기 무서워요." 또 "밥 먹고 이래 껌껌하게 내다보면 무서워, 자꾸 무서워"라고도 했다. 재난 이후 사람에게 남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졌다는 불편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지는 감각이다. 최정임 씨는 낮에도 무섭다고, 누가 밖에서 떠드는 것 같아도 무섭다고 말했다. 지원이란 무엇인가. 전기와 보일러와 방충망을 고쳐 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밤이 되었을 때 사람이 혼자 두려움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최정임 씨의 말에는 비록 임시 거처는 주어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혼자 무서움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음이 드러난다.

최정임 씨의 증언에는 또 다른 층이 있다. "사람이 저래 신경이 나빠

지다지 막 이리 성질 나고 저리 성질 나고" 오래 누워 있고, 허리가 아프고, TV를 자꾸 돌려 보지만 답답하고, 저녁이 되면 무섭고, 낮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태. 이 말들은 단지 개인의 성격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소진에 가깝다. 그래서 재난 이후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혼자 남겨졌는가도 살펴야 한다. 최정임 씨는 명백히 그중 한 사람이다. 결국 사람은 가족 혹은 가끔 들르는 방문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공동체 회복의 제도적 부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이다.

김선기 씨의 말은 이러한 소외가 사람이 줄어드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회관에도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마카(모두) 나이 많아 가지고 좀 하기 힘들지. 아픈 사람도 있고..." 이 말은 재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동체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재난 이후 공동체는 더 중요해졌지만, 더 취약해졌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회관에 나오는 사람은 줄면서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확인하던 구조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도와줄 바깥의 체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된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인원조차 불안정해진다. 더 약해지는 공동체를 사람이 겨우 붙잡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최영섭 씨의 증언은 이 문제를 더 구조적으로 보게 만든다. "우리 노인회관에 여기 자도 되는데." 이어서 "그게 그런 게 얘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거의 대부분 이 동네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세 문장을 같이 보면 의미가 선명해진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거나 안내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재난 이후 지원의 사각지대는 제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원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체계의 부재에서도 생긴다. "얘기가 잘 안 됐다"는 표현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원이 없었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다. 연결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고, 조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결국 "동네에서 해결"해야 했다. 만일 이 기반 시설도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런 공간 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고 회복은 더욱 더뎠을 것이다.

유호준 씨의 경우에는 공동체 기반 자체가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회관 터도 우리가 돈 내가지고

사가지고" "500평 사가지고... 동네 회관 짓고 정자도 짓고..." 공동체 기반 시설이 없었다면 이재민들이 지나온 회복의 기간이 더욱 험거웠을 것이다. 재난 이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지만, 그 공동체가 실제로 머물고 모일 공간, 정서적으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반은 누가 제공했는가. 유호준 씨의 말은 주민들의 힘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자립의 미담이라기보다, 공동체 회복의 구조가 기존에 주민 주도로 갖춰져있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짊어져야 했을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다.

소외는 물질의 부족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최정임 씨의 소외는 밤에 혼자 무서운 감각으로 나타나고, 김선기 씨의 소외는 회관의 사람이 줄어드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최영섭 씨의 소외는 연결되지 않아서 동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방식으로 나타나고, 유호준 씨의 소외는 공동체의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책임져야 했던 현실로 나타난다. 이 모두는 돈의 액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빈 곳이다. 이 사례들은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 회복의 부재가 개인에게 옮겨 간 결과이다. 함께 있을 때 덜 무서운데, 혼자 있으면 더 무섭다. 누가 불러 주면 나가는데, 회관에 사람이 줄면 더 못 나간다.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데, 그런 말을 연결해 주는 구조는 없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안에서, 혹은 임시주택 안에서, 공동체의 빈자리를 자기 몸으로 견뎌야 했다. 동네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의 무게를 넘겨진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다. 이 무게는 재난이 끝난 뒤에도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집이 사라진 밤은 이미 지났지만, 공동체가 약해지고 사람이 혼자 남겨지는 힘겨운 시간은 재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재난 대응이 사람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잠을 못 자고, 무섭고, 사람이 줄고, 말 한마디가 절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간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다시 묘목을 심고, 다시 회관에 나가고, 다시 웃으려고 한다. 이 파트는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다. 공동체 회복 지원의 부재는 분명 큰 공백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공백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갔다.

PART 5.

데이터로 보는

기후재난



데이터로 보는 기후재난

데이터로 보는 기후재난

재난은 기억으로 남고, 증언으로 전해지며, 숫자로 확인된다.

이 장의 인포그래픽은 영덕 산불의 규모와 회복 과정을 한눈에 보기 위해 정리한 자료다. 몇 헥타르가 불났는지, 몇 세대가 피해를 입었는지, 복구비는 언제 발표되었고 실제 생활의 변화는 언제 도착했는지, 흩어진 기록들을 시간과 규모의 흐름으로 다시 배열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집을 잃은 밤, 체육관과 마을회관에서 보낸 시간, 임시주택을 기다리던 날들, 다시 발을 일구려는 마음이 증언 속에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장에서는 그 증언을 숫자로 다시 확인한다.

불길이 확산된 시간과 임시 거처가 마련되기까지 걸린 시간, 행정 기록에 적힌 일정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한 시간, 발표된 복구비와 현장에 도착한 지원의 간격을 함께 살펴본다.

숫자는 재난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고, 증언은 그 숫자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 준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숫자와 증언이 함께 놓일 때, 우리는 이 재난이 남긴 피해의 크기와 회복의 지연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다음의 인포그래픽은 단순한 통계 요약이 아니다. 이재민들이 지나온 시간을 행정 기록과 현장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숫자들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된다.

재난은 얼마나 빠르게 삶을 무너뜨렸는가.

회복은 얼마나 늦게 도착했는가.

그리고 다음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더 빨리 준비해야 하는가.



재난의 시계

2025년 3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 영덕 지품면 이재민들의 100일

청송군 →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산불 확산

초속 25m/s 강풍, 3~4시간에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25km 확산. 16,207ha 소실.
영덕 이재민 48%만 재난문자 수신.

“양말 한 쪽만 신고 쫓아나갔어.” — 배분연

행정: “5월 순차 입주 예정”

서류상으로는 5월 안에 해결.
실제 입주는 6월 1주차.

DAY 1-
3월 25일
17:54

D+36
4월 29일

D+15
4월 8일

영덕군, 임시대피시설 공식 종료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맨바닥에서 계속 생활.

체육관 → 1,135명 이재민 분산배치(임시주거시설 779명, 친인척집 등 356명), 서류상 ‘임시주거 중’ 기재. 샤워 시설·샤생할 없는 생활 시작.

행정: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

역대 최대 재난 성금 1,700억 모금.
이재민들은 복구비 정보를 알 방법이 없었다.

D + 39
5월 2일

컨테이너로 모두 입주 완료되었음

“잠 못 자는 게 그제 제일 힘들어.”
— 이애자

D + 100
7월 2일

D + 66
5월 말

5월이 다 가도록 임시주택 청소 중

서류상 입주가 시작되었어야 할 시기.
6월 전까지는 마을회관에서 버텼다.

D + 365
현재
(2026)

행정은 ‘복구 완료’, 사람은 아직

영덕 이재민 39%가 심리지원 받지 못함.
불타는 꿈이 반복된다.
“지금도 불타는 꿈을 꾸다.” — 배분연

* 출처: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2025.4.29),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보고서

인포그래픽 02 시간의 불균형

재난의 속도 VS 행정의 속도

자연은 3시간 만에 마을을 지웠다. 국가는 100일이 걸렸다.

재난이 마을을 무너뜨린 시간

 **3** hours

초속 25m/s 강풍. 영덕 이재민 48%만 재난문자 수신.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30** days

6월 초 더위 속 최종 입주

단계별 소요 시간



대피 정보 전달 경로



핵심 수치: 84% 생명 위협 느낌 | 92% 60세 이상(60세 이상 80세 미만 58%, 80세 이상 34%) | 48% 영덕 재난문자 수신율

* 출처: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2025.4.29),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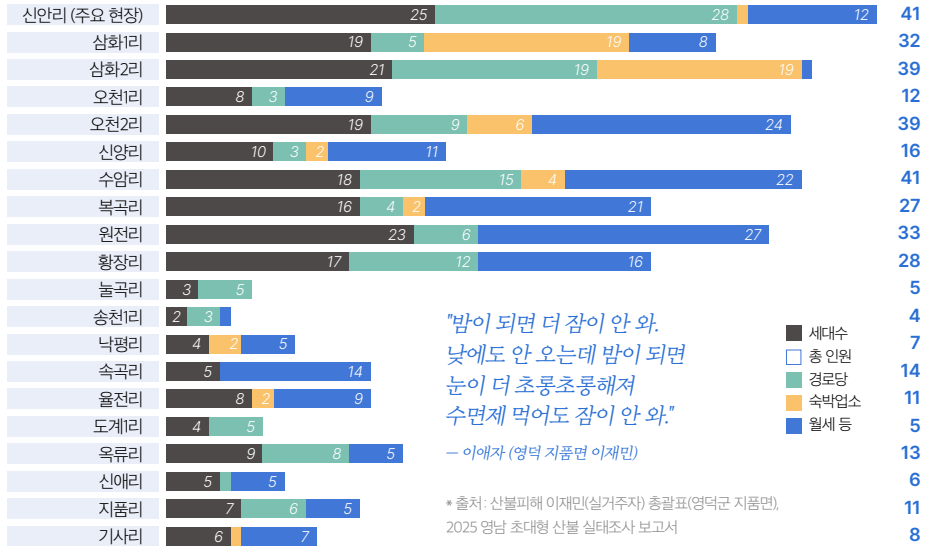
인포그래픽 03 재난 이후의 거주지

이재민 현황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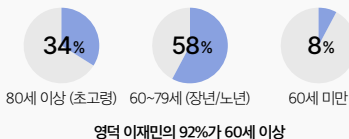
지품면 20개 마을, 229세대 392명의 실제 거주 분포 (2025.4.2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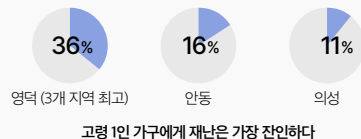
마을별 거주 유형 분포



영덕 이재민 연령 구성



1인 가구 비율: 지역별



1조 8천억의 실체

거대한 숫자의 축포가 터지는 동안, 이재민 통장은 정보를 알 수 없었다

2025.5.2
D+38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 / 피해액 1조 818억 원

정부 공식 보도자료

발표 vs 현실

행정의
언어

1조 8,809억 원

복구비 확정 발표 (5월 2일)

1,700억 원

국민 성금 모금 — 역대 최대

5월 2일

발표일 — 재난 발생 39일 후

이재민의
현실

구체적 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 부재

지원금 지급 시점, 사용처 등에 대
한 구체적 지원 계획이 부재하였음.

2026년 3월 현재

복구비 내역 여전히 비공개

복구비 배분

공공시설: 1조 3,855억
73.7%

공공시설 (도로·산림·국가유산 등)

사유시설: 4,954억
26.3%

사유시설 (주택·농업·영업장)

지급 공백

5월 2일(발표)

지급 내역 비공개

57일 공백

지급 내역 비공개

D + 125 지급완료

2026년 3월 현재

핵심 수치: 주택 과소평가 67%, 가재도구 과소평가 80%, 초기 지급 비율 2%

* 출처: 정부 보도자료(2025.5.2), KBS 뉴스대구경북, 국민재난안전포털,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보고서

인포그래픽 05 Cross-Check

행정의 숫자 vs 사람의 현실

① 임시주거 현황	행정의 기록 “이재민 1,135명 임시주거 중” (영덕군 대처상황 4.29)	이재민의 현실 이재민 1,135명 중 240명 마을회관 31개소 분산 배치. 총 1,135명 중 - 임시주거시설 779명 (숙박시설 17개소 539명, 마을회관 31개소 240명) - 친인척집 등 356명 <i>사생활 없는 생활의 시작 ></i> <i>“저기 합숙할 때 그때 여럿이 자니까... 그때 수면 패턴이...”- 이재자</i>
② 임시주택 입주 시기	“4월 말 임시주택 발주 완료, 5월 중 순차 입주 예정” (영덕군 대처상황 4.29)	실제 최종 입주: 6월 1주차. 더위 속 입주. <i>“밤이 되면 더 잠이 안 와.”- 이재자</i>
③ 복구비 지원	“복구비 1조 8,809억 원 확정. 정부가 국민의 삶을 세웁니다.” (정부 보도자료 5.2)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은 턱 없이 부족했음. <i>“지원이 집 났다 할 때... 그거 뭐 복구비 주대. 그 거 갖고 뭐 하노,” “부족이고 뭐고 뭐 되지도 않 지. 그치. 전에 우리 집은 좋았는데...”- 김남수</i>
④ 피해 조사 및 보상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항목 접수 및 관리	가전제품·살림살이 피해는 컸지만, 지원은 일부 품목 에 그쳤음. <i>“냉장고, 세탁기, 침대, 텔레비는 들어왔지. 식탁하고 김치냉장고는 우리가 샀고.”- 배분연</i>
⑤ 심리 지원	마음상담·마음치료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39%가 심리지원 받지 않은 받은 응답자 중 영덕 주민 의 39%가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i>“지금도 불타는 꿈을 꾼다.”- 배분연</i>

* 출처: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4.29), 정부 보도자료(5.2),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보고서

인포그래픽 06 피해 규모

기후재난 피해 규모

숫자는 크지만, 그 숫자는 곧 사람의 삶이었다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1987년 통계 이래)

104,000 ha

영남 전역 산림 소실 = 축구장 147,143개

영덕 피해 규모

16,207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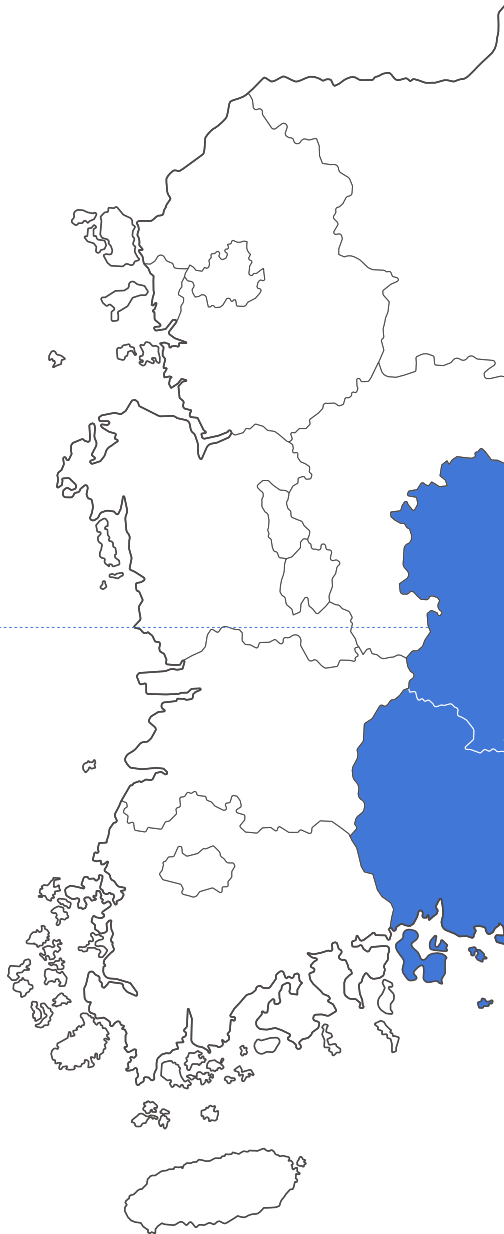
영덕 피해면적 = 축구장 22,867개 = 영덕군 전체 면적 21.9%

3,170억 원

영덕 잠정 피해액 영덕군 본예산(6,171억)의 절반 이상

1,421세대 / 2,491명

영덕 이재민 (전체 인구의 7.4%)





영남 피해 규모

4,458세대 / 92,200명

영남 전역 이재민 / 주택 3,848동 피해

행정 숫자로 잡히지 않는 피해

☑ 추억이 깃든 물품

영덕, 의성, 안동 이재민 66%가 80% 이상 피해 체감.
사진, 편지, 가족 유품·보상 항목에도 없다.
영덕은 89%가 극심한 피해.

☑ 수십 년의 생계 기반 상실

사과·복숭아·송이 과수원 전소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수년이 걸린다. '1년 치 수확 손실'이 아닌
'영농 기반 붕괴'다.

☑ 공동체 붕괴

마을 어귀 500년 느티나무가 불탔다.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어도, 세대를 건너 이어진
마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05), 영덕군 홈페이지(2025.4.15), 영덕군 대처상황(2025.4.29),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보고서

PART 6.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13

사람들은 그림에도
계속해서 살아간다

14

이재민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고 있다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13

사람들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살아간다

모든 것을 앗아간 산불의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다시 하루를 이어 가기 위해 그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향했는가?

재난 이후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다.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재민들의 현재는 그 두 문장 사이 어딘가에 있다.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 무섭고, 불안하고,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밥을 먹고, 회관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뭔가를 심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 '다시 살아가는 중'이라는 말은 거창한 극복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낫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도 다음 날을 살아내는 방식에 더 가깝다.

이애자 씨는 처음 만났을 때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애자 씨의 말에도 다른 빛이 생겼다. 처음에 그는 깊이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알게 자는 탓에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을 못 자자 눈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이 아팠다. 그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 것은 집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그러나 3월에 다시 만났을 때, 이애자 씨는 네 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생겼다고 말했다. "기분이 좋고 살 것 같다"라고 했다. 불에 대한 꿈도 꾸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꽃 선물을 좋아했고, 이웃들의 소식을 편하게 들려주었고, 시민대응단을 두 팔 벌려 반겼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지만, 임시주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묻자 수



납장을 말하고 직접 그 수납장의 사진을 찍었다. 특별한 보물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활용품과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을 뿐이었다. 좋아하던 것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진 그에게, 수납장은 새 삶의 물건을 다시 정리해 넣는 첫 번째 자리였다. 사라진 물건들 뒤에 남은 빈자리에, 그는 다시 작은 생활의 물건들을 넣고 있었다. 회복은 거창한 선언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네 시간의 잠, 꽃을 보고 웃는 마음, 그리고 수납장 한 칸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호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불 나버리가 이제(불이 이미 나버렸으니)··· 뭐 살다 보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이제 건강만 챙기고 이제 사는 거지." 다시 예전처럼 다 되돌리겠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잊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건강만 챙기고 사는 거지'라는 문장. 재난 이후의 일상은 어쩌면 이런 식으로만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것, 내일도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올해도 한 번 더 작물을 심어 보는 것. 유호준 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기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유호준 씨의 다른 증언은 그 살아가기의 방식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 준다. "웃으면 좋지"라고 말하면서도 이어서 "잠이 밤에 안 와가지고··· 그래가 회관에 갔지"라고 했다. 이 짧은 두 문장 사이에는 지금의 삶이 거의 다 들어 있다. 한편으로는 웃는 것이 좋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1

1 이매자 씨가 촬영한 수납장의 사진.

지고, 누군가 오는 날은 "오늘은 좋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그럴 때는 집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 회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회복은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 삶은 결코 단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한두 문장으로 볼 때는 참 단순하게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도 이주민들의 일상도 아주 복잡하다. 웃음과 불면, 안도와 불안, 사람을 만나는 기쁨과 혼자 있는 밤의 어려움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 아직 힘들지만, 그 힘든 상태 안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회관에 가고, 결국 다시 하루를 이어 간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유호준 씨가 '회관에 갔다'는 점이다. 잠이 안 와서 회관에 가는 것, 집에만 있지 않고 사람 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다.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공동체의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재난 이후 현재를 버티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유호준 씨는 "작년에 산불 나가지고 여기 청소 시레기(쓰레기 청소) 줌... 골목까지 입구까지"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재난 이후의 회복은 자기 마을의 길과 골목을 다시 쓸고 닦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무너지고 더럽혀진 자리를 직접 쓸어 낸다는 것은, 그곳이 여전히 내 삶의 장소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호준 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현재가 단순히 버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기 마을의 일부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 그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기도 했다. "전화는 뭐 자주 오지." "양산에 아들 와... 다섯이 그래 자고" "복잡해도 다 같이 있으면 좋지." 이 말들은 재난 이후의 가족 관계가 마냥 편안하거나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집은 비좁고, 사람은 많아지고, 서로 각자의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유호준 씨가 그 상황을 결국 "그래 사는 거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이 함께 있는 복잡함이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낫다는 감각 때문일 것이다. 재난 이후 삶이란 이런 식으로 다시 짜여 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불편해도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족이 주는 힘은 다른 이주민들의 증언에서도 반복된다. 이애자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에 "자녀들 와

가지고 같이 갔을 때 놀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그랬대 손주도 있고 하나까"라고 했다. 특별한 치료나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자식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 날, 손주가 있는 자리, 같이 어딘가 다녀오는 일이 삶을 다시 붙들어 준다. 잠을 못 자고 몸이 힘든 사람에게도 결국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이렇게 일상적인 가족의 시간에서 나온다.

김남수 씨의 증언도 비슷한 충위를 보여 준다. 아들과 손주들이 오고 갔다고, 명절 무렵이면 더 붐빈다는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누군가 찾아오는 집의 감각이 남아 있다. 과메기 장사를 하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오직 재난의 기억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유호준 씨는 "사는 게 그렇게 막연해. 몸이나 건강하게 살면 괜찮은데"라고 말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사는 게 여전히 막연하다는 생각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면 괜찮겠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었다. 회복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안고도 살아갈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낫지 않았고, 미래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면 괜찮겠다고 믿어 보는 것. 이것이 재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희망일지도 모른다.

이재민들은 사람 사이의 연결로 재난 이후 공허함을 다시금 채웠다. 김중숙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을

66

사는 게 그렇게 막연해
몸이나 건강하게 살면
괜찮은데...

99





1 신명자 씨가 찍은 가스레인지 사진.



실천하며 그 공허함을 채운 듯했다. 시민대응단이 김종숙 씨에게 오늘
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해 보자고 하자 그는 '갈색'이라고 답했다. 집
을 잃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돌보는 할머니의 눈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았고, 남
은 한쪽 눈마저 아프다고 했다. 김종숙 씨는 밤늦게 병원을 알아보았
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그러고 있느냐고 했고, 두 사람은 다투었다.
김종숙 씨는 그때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냐고” 말했다. 재난은 김종숙
씨의 집은 태웠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그
는 여전히 할머니의 눈을 걱정했고, 약 넣을 시간을 챙겼고, 일하러 가
야 할 시간을 기억했다. 이재민이라는 말은 그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
름일 뿐이었다. 그는 동시에 요양보호사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
고, 누군가의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재난 이후의 회복은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짐하기도 했다. 신명자 씨는 산불 이
아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물으면 답했지만 대체로 짧았다. 그는 “잊으
려고 한다”라고 했다. 신명자 씨는 자기 얼굴을 그린 뒤에도 그림 속
자신에게 이렇게 적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 살아.” 그
문장을 쓸 때 그는 ‘지난 일’이라는 말과 함께 손바닥을 뒤로 흔들었
고, ‘앞으로 잘 살자’라는 말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잊겠단
는 말이 곧 잊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잊으려는 말과 달리 몸은 잊지 못
하고 있었다. 의성 산불 뉴스를 보았을 때 그는 외출복을 입고 대피할
준비를 했다. 불이 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날 밤은 옷을 입은 채 선
잠을 잤다. 사진 찍기 활동에서 그가 가장 먼저 찍고 싶어 한 것도 가

스레인이었다. 불을 켜면 다리가 아파도 싱크대에 기대어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본다고 했다. 재난은 지나갔지만 불을 대하는 그의 몸은 매번 다시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다. 앞으로 잘 살자. 그 말은 회복의 결과라기보다 매일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에 가까웠다.

지금 이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버티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호준 씨에게는 그것이 다시 사과를 심고, 잠이 안 올 때 화관으로 가고, 사람 오면 웃고, 가족이 오면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것이었다. 이애자 씨에게는 자녀들과 밥을 먹고 놀러 가는 것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화관에 나가거나, 혹은 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재난 이후의 삶은 한순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작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 작은 것들이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재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기존에 맺어 온 관계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지만, 시민대응단과 만나면서도 또 다른 공동체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규 씨는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림을 그려 보자는 말에는 "나는 그림 못 그린다"라고 했고, 다시 집을 그려보자는 말에는 이미 그린 적이 있다며 꺼려했다. 산책을 나가자는 말에도 "여긴 볼 것도 없다"라고 했다. 시민대응단은 질문을 바꾸고, 속도를 늦추고, 함께 그렸다. 과거의 집을 다시 그리는 일이 부담스러워 보이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그려 보자고 했다. 넓은 질문 앞에서 막막해하면, 마당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어디에 꽃이 났는지를 하나씩 물었다. 그러자 김상규 씨의 입이 조금씩 열렸다. 집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갑자기 신난 아이처럼 말이 많아졌다. 산책을 나가 예전 집터를 보며 어느 자리가 자신의 집이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볼 것도 없다"라고 했던 길 위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난 이후의 말은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질문지를 끝까지 읽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입구를 함께 찾는 일이다. 김상규 씨에게 그 입구는 돌이었고, 집터였고, 마당이었다.

신명자 씨도 김상규 씨처럼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시민대응단과 만날수록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사진은 허락했지만 녹음은 거절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만남이 반복되자 조

금씩 달라졌다. 2월에는 녹음도 허락했고, 차와 굴을 권하고, 복주머니를 함께 만들며 크게 웃었다. 3월에는 시민대응단이 준 핸드폰 케이스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마지막에는 “정들었는데...”라고 말했다. 재난 이후의 관계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리에서 서서히 정으로 옮겨갔다. 신명자 씨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람이 회복하는데 있어 아픔과 고통의 경험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

1 신명자 씨가 시민대응단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최영섭 씨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마음이 좀 풀린다고 했다. 노래 교실에 가고, 노인대학에 가고, 게이트볼과 한공을 했다. 시민대응단이 찾아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말이 달라졌다. 인터뷰 도중 마을 주민이 들어오자 그는 힘든 이야기를 멈추고, 상대의 말에 조용히 맞추었다.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악한 마음을 숨기게도 한다. 최영섭 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티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아 보였다.

시민대응단이 오면 배분연 씨는 휴대폰 속 가족사진을 보여 주고 싶어했다. 손자와 손녀, 아들들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의 말이 길어졌다. 남편을 일찍 잃고 세 아들을 혼자 키운 그에게 가족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 사진들은 배분연 씨가 평생 버텨낸 시간의 증거였다. 그 곁에는 화투패도 있었다. 배분연 씨는 평소 화투로 점을 보는 방식을 시민대응단에게 보여 주었다. 패가 나올 때까지 오래 집중한다고 했다. 화투는 놀이이기도 했지만, 혼자 남은 시간을 건디는 방식이기도 했을 것이다. 불길기 지나간 뒤 배분연 씨에게 남은 것은 가족에 대한 자부심과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이었다. 가족사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붙들게 했고, 화투패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불안과 공허함을 시민대응단과 나눈 시간이 그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바란다.

회복의 모양은 사람마다 달랐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사진과 화투패였다면, 최정임 씨에게는 익숙한 산책길이었다.





시민대응단은 그와 함께 산책길로 나갔다. 처음부터 긴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법을 알려주었다.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화면을 맞추고, 찍고 싶은 장면을 남기는 법을 설명했다.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있으면 직접 찍어 보여달라고 했다. 최정임 씨에게 그 길은 익숙한 길이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기 어렵고, 회관에 가도 화투 치는 사람들을 구경만 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걸으면 조금 나았다. 길은 그가 아직 혼자만의 방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재난 이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때로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 같이 걷는 것. 휴대전화의 카메라 버튼을 알려 주는 것. 다음에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 최정임 씨와 함께 한 산책길에서 시민대응단은 기록이란 질문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걸어가는 일일 수 있음을 배웠다. 최정임 씨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자 애썼다.

홍해진 씨는 시민대응단과 함께 타버린 밭을 잘 보내 주고 앞으로의 마음을 다졌다. 그는 처음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했다. “그림 그릴 손 재주가 없어 가지고” 그러나 밭 이야기가 시작되자 손보다 먼저 기억이 움직였다. 고사리밭은 200평, 감나무밭은 150평. 감나무는 150그루가 넘었다. 고사리는 3월에는 아직 새순이 올라오기 전이고, 지난해의 대가 검게 누워 있다가 4월이 되면 새로 올라온다고 했다. 그는 밭의 높낮이와 독의 위치, 감나무가 있던 자리와 고사리가 나던 자리를

1

1 배부연 씨가 화투패를 보여주고 있다.





1

3

2

- 1 최정임 씨가 찍은 길 사진
- 2 홍해진 씨가 그린 불 탄 감나무와 고사리
- 3 홍해진 씨가 그린 새 발

하나씩 짊어가며 그렸다.

집은 타지 않았지만, 밭은 탔다. 그러나 그는 자기 피해를 쉽게 말하지 않았다. 집도 밭도 다 탄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말도 못 꺼낸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그림 앞에서는 입을 열었다. “농사 조금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해서 속이 답답했어요.” 시민대응단은 그 그림 위에 손을 얹자고 했다. 불탄 감나무와 고사리밭에게 인사를 해보자고 했다. 흥해진 씨는 조용히 손을 올렸다. “감나무야, 안녕.” “고마웠다.” “감사해요.” 짧은 말들이 그림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농작물에게 건네는 인사이면서, 사라진 시간에게 건네는 작별이었다. 그는 다시 새 밭을 그렸다. 감나무가 있던 자리는 비었고, 그 빈자리에 고사리를 그려 넣었다. 시민대응단도 함께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고사리를 그렸다. 차츰차츰 그림 속 밭이 채워졌다. 그는 새 고사리밭에 대한 소망을 적었다. “고사리 팔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 불탄 밭을 보내고, 빈 밭에 다시 고사리를 그려 넣는 일이었다. 사라진 감나무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새로 올라올 고사리에게 잘 자라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14

이재민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고 있다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 다시 찾아간 곳은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마을 회관이었다. 그 작고 익숙한 공간이 앞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세워야 하는지 말하고 있었다.

재난 이후의 공동체는 원래 있던 공동체와 같지 않다. 사람들은 더 흩어졌고, 더 나이 들었고, 더 쉽게 아팠고, 더 쉽게 두려움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는 여전히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재난 이후의 삶은 집 한 채, 지원금 한 번, 임시 거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우리 마을'이라는 감각을 갖게 해 주는 장소들이다.

유호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회관과 정자는 외부에서 선물처럼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모아 자기 손으로 마련한 공동체의 기반이었다.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지켜 온 것이다. '우리가 직접 돈 내서 사고 사고'라는 반복은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만든다.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주민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고 그랬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주민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면 더 빨리,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쉬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공동체도 살아난다. 유호준 씨의 증언은 공동체 회복이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고

유지하는 실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예전처럼 그냥 길에서 마주쳐 자절로 모이던 방식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대신 의식적으로 전화하고, 의식적으로 약속하고, 의식적으로 모이려는 노력은 더 중요해졌다. 재난 이후의 공동체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고를 들여 지켜 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공동체 회복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아무리 회관이 있고 정자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마을은 살아나지 않는다. 완벽한 제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모이고 웃고 이야기하고 다시 함께 움직인다면 공동체는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재난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다. 사람이 다시 사람에게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혼자 임시주택에 갇혀 무너지는 대신, 다시 회관으로 나오고, 다시 전화를 하고, 다시 밥을 같이 먹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것. 유호준 씨가 "웃으면 좋지"라고 한 말은 그래서 가볍지 않다. 그것은 회복의 감정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에 가깝다.

마을 공동체는 거창한 선언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1월의 어느 날, 시민대응단 인터뷰를 위해 신안리를 찾아갔을 때, 마을의 김장을 함께 했던 일이 있다. 이후 인터뷰에서 유호준 씨는 "저번에 이장(이) 김치 하러 오라 해가지고"라고 말하며 그때를 회상했다. 김장을 같이 하는 일, 회관에 가 있는 일, 1박 2일 일정이 있으면 가 보려는 일. 이런 것들은 얼핏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재난 이후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공동의 작은 일들이 삶을 다시 엮는 실이 된다. 회관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 같이 나들이를 가는 일, 정자에 앉아 수다를 떠는 일 속에서 공동체는 다시 숨을 쉰다. 이런 장면들은 정책과 행정의 언어로 잘 정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증언집은 시작되었다. 증언집은 이런 작은 공동의 몸짓들을 담아낸다. 이 증언을 기반으로 정책은 보완되어야 한다. 재난 이후의 복구와 회복 정책은, 사람을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약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 책의 마지막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재민들 증언 곳곳에 아직 회관, 정자, 친구, 이장, 김치, 전화, 같이 가는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마을의 공동체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희망은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바라

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애자 씨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놀러 가고 밥을 먹을 때가 좋다고 했고, 김남수 씨는 아들들과 손주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한귀순 씨는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른다고 했고, 김선기 씨는 회관에 가면 아직도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다고 했다. 이 장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공동체 회복이 거대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이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누가 밥을 같이 먹느냐,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누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누가 "오늘은 좋지"라고 말하느냐 같은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책의 서두에서 던졌던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거창하게 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재민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다음 재난에서는 집과 돈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공동체 회복은 나중에 덧붙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난 대응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관과 정자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왜 중요한지, 왜 누군가 전화하고 불러내고 같이 웃게 하는 일이 필요한지, 이재민들의 증언이 보여 주고 있다. 유호준 씨가 "그거는 우리가 사고 우리가 돈 내가지고 사가지고"라고 했던 자리(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의 주체인 주민들이 직접 노력한 지점들)에, 이제 다음 재난을 준비하는 우리의 질문을 놓아 본다. 왜 그 무게가 주민들만의 몫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는 무엇이 함께 세울 것인가.

사람들은 살아간다. 사람들은 다시 심어 보겠다고, 건강만 챙기고 살겠다고 말한다. 잠이 안 오면 회관에 가고,

사람이 오면 웃고, 친구를 만나러 전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일을 기억한다. 바로 그 장면들이, 이 증언집이 끝까지 담고 싶은 희망의 형태이다. 화려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살아 있는 희망. 마을 공동체를 통한 회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재난 이후의 삶을 조금씩 다시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바로 이 증언집의 제목처럼 '재난을 살아내는 중'이 되었다.

PART 7.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이야기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이야기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이야기

『재난을 살아내는 중입니다 - 산불 이후를 살아내는 영덕 이재민 12인의 증언집』은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과 영덕 이재민들 간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엮은 책이다.

시민대응단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들어가 필요한 지원을 돕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대학생이었고, 어떤 이는 주부였고, 어떤 이는 다른 재난 현장을 경험한 뒤 이곳에 오게 된 사람이었다. 이재민들을 만나기 전, 시민대응단 교육을 받으며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이재민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도 “이런 기록 활동은 처음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저희도 처음이니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을 건넸다.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되는 사람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자기 삶을 말로 옮기는 법을 함께 찾아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 이 책은 그런 만남 위에서 자라난 기록이다. 시민대응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산불은 지나갔다.

그러나 산불 이후의 삶은 지나가지 않았다.

불길의 산을 넘고, 마을을 덮치고, 집과 밭과 창고를 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떤 이의 평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 삶을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뉴스는 불이

날 때 왔고, 불이 꺼지자 떠났다. 행정의 발표는 복구비와 지원 계획을 말했지만, 그 숫자 사이에 남겨진 사람들의 밤과 몸과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았다.

시민대응단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소방관도 아니었고, 행정 공무원도 아니었다. 보상금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고, 집을 지어 줄 힘도 없었다. 누군가는 대학생이었고, 누군가는 환경교육을 하는 시민이었고, 누군가는 지역 활동가였고, 누군가는 그린피스 의 후원자였다. 누군가는 단지 "관심이 있어서" 왔고, 누군가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왔다. 누군가는 기후 재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 왔고, 누군가는 평생 품어온 "생명 보살핌"이라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들이 만난 것은 하나였다. 기후재난은 자연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오래도록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난 이후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시민대응단 각자의 참여 동기 - '산불이 사그라든 뒤의 삶을 알고 싶었다'

시민대응단의 시작점은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분명한 사명감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오히려 불안정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궁금해서, 해보고 싶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양한 출발점이 시민대응단의 의미를 보여 준다. 기후재난 대응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를 가진 시민들이 조금씩 들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민지 님은 강릉에서 산불을 가까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기에, 불이 꺼진 뒤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공백이 궁금했다.

"산불이 꺼졌다 다음을 모르니까... 그냥 잘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후의 삶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고... 불이 꺼진 뒤 뉴스에서 모든 소식이 다 끊긴 뒤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에게 시민대응단은 '뉴스 이후'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산불의 장면이 아니라 산불 이후의 시간을, 불길지 지 나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하루를 알고 싶었다. 그 마음은 이 증언집 전체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불은 꺼졌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불길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다경 님은 산불을 더 가까운 자리에서 느꼈다. 할머니 집이 대구 도심에 있었고, 창문 밖 산이 활활 타는 영상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다. 친숙한 지인의 본가가 산불로 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는 그때 기후재난이 먼 곳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한 번도 산불이랑 산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 집 창문에서 산을 보면 산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1차 충격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산불 피해를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기후재난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크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기후재난은 더 이상 북극이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족의 창문 밖에 있었고, 지인의 본가에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의 삶 가까이에 올 수 있는 현실이었다.

김성애 님의 동기는 더 오래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시민대응단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가장 먼저 "생명 보살핌"이라는 말을 꺼냈다. 기후재난을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등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생명 보살핌 이에요. 이게 나의 평생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생명 보살핌은 그럼 왜 하고 싶었나. 사람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에게 산불 피해 현장은 생명이 사라진 자리였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무, 밭, 동물, 마을의 리듬까지 함께 다친 자리였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다가 시민대응단에 지원했다.

"산불 현장이라고 하니까 산불 피해, 생명이 사라진 거잖아요. 생명이 사라지는 이 부분을 내가 무엇으로... 정말로 평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은선 님에게 시민대응단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문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좌우명처럼 품고 있었다. 여러 대외활동을 해 왔지만, 그 활동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 자기 성장이나 스펙에 더 가까웠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대응단은 달랐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밀고 나온 좌우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였거든요... 이걸(활동 공지) 딱 봤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마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민대응단 활동은 환경을 위한 활동이 맞지만 사람을 마주

66

평생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생명 보살핌은

그럼 왜 하고 싶었나

사람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99

하는 활동인 거예요"

시민대응단은 환경 활동이었지만, 기존에 흔히 경험해본 환경 활동과 달랐다. 산과 나무와 기후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 앞에 앉아야 하는 활동이었다. 기후위기를 말하기 위해 누군가의 잠 못 드는 밤과 사라진 집과 다시 심어야 하는 묘목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활동이었다.

66

진짜 단순히 흥미,
재미있겠다,
그리고 계속 기억에 남아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99

박유빈 님의 시작은 조금 더 가벼웠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시민대응단을 알게 되었다. 검색해보니 정보가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족한 정보가 궁금증을 키웠다.

"인스타의 광고를 보고 이런 활동도 있구나 해서 호기심에 네이버에 찾아봤죠. 시민대응단 활동 이런 거 찾는데 생각보다 포스팅 된 게 없더라고요.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어서 이게 어떤 거지 궁금했고... 이걸 내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으니까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거창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환경 뭔가 이런 거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해서 참여했다기보다는 진짜 단순히 흥미, 재미있겠다, 그리고 계속 기억에 남아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벼움이 중요하다. 변화를 만드는 행동은 언제나 무거운 결심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호기심, 우연히 본 광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 "이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직감도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민주 님도 처음에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취업과 여러 상황 속에서 시간이 생겼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1대 1로 조용히 기록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이재민들과 관계를 만들고, 기록 이전에 신뢰를 쌓아야 했다. 그는 활동 전 자신이 가진 염려를 솔직하게 말했다. 사고성이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듣는 것은 자신 있지만 "깊은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했다.

이정연 님은 자신을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도전적인 스타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이 지나가고 취업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면서, "뭐라도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라도 경험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정적인 것을,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니까 발전이 늦어지고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는 그린피스를 잘 알지 못했고 시민대응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래도 "몸으로 뛰는 활동"이라면 직접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린피스를 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거는 몸으로 뛰는 그런 거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지원하게 됐었죠"

정소연 님은 이미 기후재난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해 온 시민이었다. 그에게 시민대응단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이어지는 질문이었다. "호기심도 있었고... 기후재난에 그때 관심도 많고 그 관련된 활동을 또 계속하고 있고... 일단 가보자... 누군가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일에 내가 처음 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는 한 번 참여하고 끝내지 않았다. 이유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었다. "좋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쉬운 점...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 뭔가 다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컸어요... 이 지역에 이재민 분들, 이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공

66

몸으로 뛰는 그런 거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지원하게 됐었죠

99

금증도 계속 있었고 또 끝까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시민대응단의 참여 동기는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 다양한 동기들이 한 장소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섰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순탄치만은 않았던 활동 -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나의 말이

이재민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시민대응단 활동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감정은 자신감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움이었다. 좋은 일을 하러 간다는 확신보다, 내가 괜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정민지님은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다.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인 제가 가서 뭔가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재난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달랐다. 평소의 호기심이나 관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망설였고, 그러면서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

이다경님 역시 처음에는 대외활동의 개념으로 가볍게 신청했지만,

사전 교육을 받고 나서 염려가 훨씬 커졌다. 시민들이 직접 한 시간 넘게 인터뷰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확실한 건 기대보다 염려가 훨씬 컸고요... 막상 사전 교육을 들어보니까 사전 교육도 1박 2일로 하고 제가 인터뷰를 1시간 넘게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 긴장 되더라고요."

그가 걱정한 것은 단순히 인터뷰 진행 능력이 아니었다.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어떤 진전이 보일까, 그런 만남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제가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해서 한 달에 겨우 한 번 만나는 건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진전이 눈에 보일까라는 그런 염려를 좀 많이 했는데..."

박유빈 님도 오리엔테이션 이후 마음이 바뀌었다. 신청할 때는 "재밌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교육을 듣고 실제로 이재민과 대화하는 실습을 하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오리엔테이션 들을 때... 이게 정말 변화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처음 보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 줄까 하는 염려... 오리엔테이션 듣고 제일 들었던 가장 큰 염려였던 것 같고..."

그는 처음 만난 이재민과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산불에 관한

66

이게 정말 변화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처음 보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 줄까 하는...

99

질문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한 이재민은 “또 같은 얘기하네”라고 반응했고, 결국 트럭을 타고 가버렸다.

“두 번째 질문부터 또 같은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산불이라는 그 키워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아버님 이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때 내가 같은 얘기하면 안 한다 했지 하고 트럭을 타고 가버리셨어요… 나의 염려대로 상황은 이미 벌어져 버렸다. 어떡하지…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장면은 시민대응단에게 중요한 배움이었다.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기록은 묻는 일이지만, 묻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했다.

이정연 님은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혹시 실수가 되거나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이거 진짜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서 해야겠다… 특히나 이재민 같은 분들에게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될까, 아니면 혹시 좀 이상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정소연 님은 활동의 윤리적 한계를 먼저 생각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이재민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왔다가 가버리면, 그 뒤에는 오히려 허전함이 남는 것은 아닐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믿음을 깨지 않을까. 회복하는 이제 다들 저마다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에 저화가 방해가 되지 않는 걸까… 우리가 갔다가 와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저렇 거면 오지 말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컸는데…”

재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방문자들이 스쳐갔다. 조사하러 온 사람, 물품을 나눠주러 온 사람,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 약속을 하고 떠난 사람. 시민대응단은 자신들이 또 하나의 일회성 방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랐다.

활동이 이어질수록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만남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며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은 시민대응단의 얼굴을 기억했고, 다시 올 날짜를 물었고, 음식을 내어주거나 선물을 챙겨 주었다.

박유빈님은 최영섭 씨와의 마지막 활동을 오래 기억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가족이 노출되는 것도 민감해하던 분이, 어느 순간 시민대응단을 찍어 주겠다고 했다.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그러나 3월 활동에서 마을회관에 다른 주민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가 말을 하려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고, 그는 말을 삼켰다.

"딱 초반에 뭔가 2회 차 때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시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아버님 대답을 누르려고 하는 아버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삼키는 게 딱 보여지고 딱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고 남는 이유가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 아쉬움은 좋은 인터뷰를 놓쳤다는 아쉬움만이 아니었다. 말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랐는데, 그 기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었다.

"증언집을 떠나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분이 좀 감정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그게 좀 마지막에 잘 못했다. 그래서 너무 막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때 많이 울었던..."

66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지...
백 명, 천 명, 만 명
뭐 이 정도 있어야 될까요

99

이정연님은 공감과 거리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다.

"공감을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지가 분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 가서 이분들과 어떤 유대감이 너무 끈끈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테니까."

이다경님은 활동의 한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 뉴스는 마을회관에 다 같이 모여 살 때까지만 보도한다. 그러나 각자의 임시주택으로 들어간 뒤의 삶은, 임시주택을 2년이면 반납하거나 사야 한다는 현실은, 수도가 열거나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현장에 들어가야 비로소 보인다.

"뉴스는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다 같이 모여 사실 때까지 그 정도만 보도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잖아요... 임시주택을 2년이면 반납을 하거나 사야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수도가 열거나 세탁기를 사용을 못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도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김은영님은 더 큰 막막함을 느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재난 이후의 삶 앞에서 진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진심이 결과를 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진심이 모자랐나 아니면은 진심을 정말로 나 혼자서 갖고는 안 되나... 이런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지... 백 명, 천 명, 만 명 뭐 이 정도 있어야 될까요."

상처 앞에서 말을 고르는 어려움, 짧은 만남의 어려움, 마음을 열어 주는 순간을 지켜 내지 못하는 어려움, 좋은 마음이 제도와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막막함, 그리고 관계가 생긴 뒤에도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그럼에도 시민대응단은 계속 신안리로 향했다.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낫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소연 님은 말했다. "저는 안 간 것보다 나왔고 그리고 간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중간 틈을 이제 각자가 메워 주지 않았나 싶어서."

시민대응단 기록의 흔적 -

각각의 시민대응단은

무엇을 듣고, 적고, 느꼈는가?

시민대응단은 현장에서 배웠다. 기록은 누군가의 고통을 빠짐없이 캐묻는 일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메기를 함께 먹는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을 보러 가는 산책이 필요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보다 스티커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문보다 침묵이, 어떤 사람에게는 녹음기를 내려놓는 예의가 먼저 필요한 순간도 있었다. 같은 재난이 사람들 각각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다양했다. 시민대응단은 질문지를 들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질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뿐 아니라, 이재민의 거절과 침묵, 환대와 눈물, 손끝과 시선을 함께 기록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대응단도 조금씩 바뀌었다. 재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삶 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밤 때문에 보냈을 때의
미안한 마음을 아파도.
그린피스 사람들이 좋다.

복죽어네. 예보다. 귀엽다.
올고려. 물고려. 안대.
이쁘다. 좋아하셈.
다음주에 가족이 만도
금방간다. 아쉬움

명절에 다닐 기운이 없다.
(망연이 어쩔음)
안정 바깥심, 눈이 내릴듯 몰랐자.
안계테바 피딱히내 바깥
눈 수습 해야되는데
냉면때문에 못 감.
의사는 다 2등놈이다.
위키랑 대화하면서 눈을 잘 맞춘다.

김도희 시민대응단의 기록지

김도희 시민대응단

김도희 시민대응단은 김남수 씨의 시선을 오래 기억했다. 김남수 씨는 시민대응단 한 명 한 명을 뺨히 바라보았다. 마치 이 사람들을 모두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시선에서 김도희 시민대응단은 외로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있는 마음을 느꼈다. 김남수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이 있는 도시들을 생각으로 오간다고 했다. 김도희에게 이 만남은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김은선 시민대응단

김은선 시민대응단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김선기 씨는 처음에는 짧게 답했고, 멋쩍은 웃음으로 말을 넘겼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자 손을 흔들며 반겨 주고, 얼굴과 속눈썹까지 알아보며 칭찬했다. 마지막에는 꼭 안아 주고 “감자 켈 때 와야지”라고 말했다. 김은선 시민대응단에게 이 변화는 반복 방문이 만든 신뢰의 증거였다. 한편 최영섭 씨를 만나며 그는 기록이 언제나 드러냄만을 목표로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진과 실명을 거절하는 일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문유빈 시민대응단

문유빈 시민대응단은 홍해진 씨를 만나며 ‘큰어른’을 대하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다. 그는 개인의 피해보다 지품면 전체의 상황을 먼저 정리했고, 면사무소와 주민 소득, 산의 경제적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책임감 있게 정리하려는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잠시 무거워졌다. 문유빈 시민대응단은 그 모습을 보며, 공적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슬픔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을 수 있다고 느꼈다.

박지현 시민대응단

박지현 시민대응단은 이애자 씨에게서 작은 회복의 신호를 보았다. 처음에는 잠을 거의 못 자고 눈과 몸이 아프다고 했던 사람이, 3월에는 조금 더 잘 잔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먼저 갖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현 시민대응단에게 그 말은 사소하지 않았다. 자기 사진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기 모습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었다. 회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을 갖고 싶다는 작은 욕구로도 찾아왔다.

서교금 시민대응단

서교금 시민대응단은 김상규 씨에게 먼저 안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초반의 긴장감은 활동의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김상규 씨가 상황을 이해한 뒤 조금씩 풀렸다. 서교금 시민대응단에게 중요한 장면은 수석을 함께 보러 간 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구경한 일이 아니라, 김상규 씨가 여전히 의미를 두고 살아

가는 세계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서교금 시민대응단은 민감한 이야기는 충분한 신뢰와 맥락이 생긴 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심하림 시민대응단

심하림 시민대응단은 홍해진 씨가 시민대응단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문 열고 들어오지”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음의 문도 조금 열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홍해진 씨는 기록집에 이름이 실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활동 이후의 결과물을 관심 있게 지켜 볼 사람처럼 보였다. 심하림 시민대응단에 게 가장 반가웠던 것은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한순간이었다. 마을과 면사무소, 주민 소득을 먼저 걱정하던 사람이 “여행 한 번 못 간 것이 섭섭하다”라고 말했다를 때, 시민대응단과의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원근 페리 시민대응단

원근 페리 시민대응단은 김종숙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가 이미 시민대응단을 자기 삶 안으로 조금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눈은 자주 마주치지 않았지만, 외출복을 벗고 곧바로 상을 펴며 인터뷰 준비를 했다. 차를 내 주고, 꽃 선물을 좋아하고, 시민대응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원근 페리 시민대응단에게 이 만남은 신뢰가 반드시 많은 말이나 눈맞춤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환대는 상을 펴는 손길과 기도 속에 있었다.

이정연 시민대응단

이정연 시민대응단의 마음에는 김남수 씨의 시선이 오래 남았다. 그는 시민대응단이 오기 전부터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못 보던 얼굴을 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아무도 안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과,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몸은 서로 달랐다. 이정연 시민대응단은 그 간극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외로움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았다. 문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낮선 얼굴을 기억하려는 눈, 떠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손짓 속에 있었다.

정민지 시민대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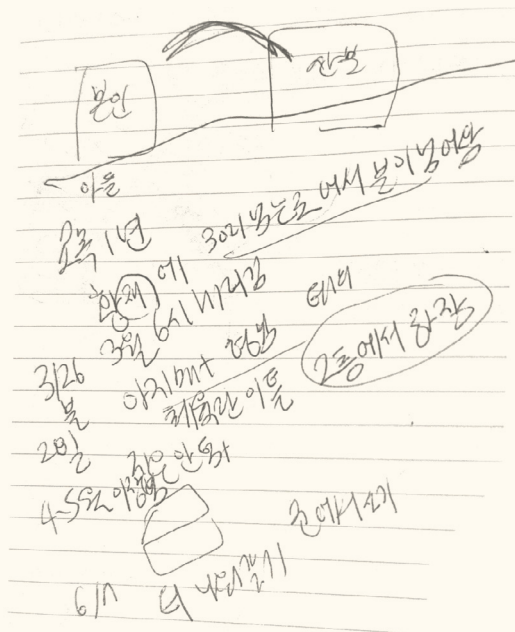
정민지 시민대응단은 김상규 씨가 말보다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불 이야기가 나오면 손을 만지고 시선을 내렸지만, 돌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서 정민지 시민대응단은 직접적으로 “힘드세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김상규 씨의 마음은 꿈 이야기와 돌 이야기 사이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정민지 시민대응단에게 이 인터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불안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정소연 시민대응단

정소연 시민대응단은 최영섭 씨가 감정보다 구조와 절차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예전 집의 방 개수, 창문 위치, 대지 면적, 농사 방법을 정확히 말했다. 그러나 미래의 집을 묻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소연 시민대응단은 그 대답에서 회피판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았다. 재난 이후의 기록은 모든 것을 묻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지키고 싶은 경계를 알아차리는 일이기도 했다.

최인정 시민대응단

최인정 시민대응단은 반복 방문이 관계를 바꾸는 과정을 보았다. 김남수 씨는 처음부터 먹을 것을 내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단순한 손님맛이를 넘어 시민대응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문자 확인법을 물었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최인정 시민대응단에게 기록 활동은 질문지를 끝내는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었다. 유효준 씨를 만나면서는 질문의 방향도 배웠다. 상처를 곧장 묻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과 자부심을 가진 일을 물을 때 말문은 더 자연스럽게 열렸다.



최인정 시민대응단의 기록지

활동을 통한 스스로의 변화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시민대응단은 이재민을 기록하러 갔지만,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자신도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의 힘, 작은 행동의 의미, 관계 속 책임감,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정민지 님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이 결국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이 결국 내가 누군가의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건데...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크게 느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책임감을 좀 깨달았다."

처음에는 대학생인 자신이 재난을 겪은 분들에게 인터뷰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마지막 활동에서 무뎠던 분이 "언제 또 오냐", "다음에 또 있냐",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냥 질문하러 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분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거라고 느꼈다." 그는 시민대응단을 "누군가를 이해하는 매개체"라고 표현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살아 온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정연님은 시민대응단 신청 자체가 자신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것만 좋아하고 변화를 꺼리던 사람이었지만, 이 활동을 해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이걸 신청하는 걸 기점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도전을 무서워한다 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구나. 실패 성공을 떠나서... 아 내가 뭘 시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신청을 한번 해보고...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도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김민주님은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느꼈다. 특히 한 이재민을 보며 속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난 이후 사람은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했다. 그는 또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배웠다. "오늘 몸 상태가 어떠냐",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묻는 일. 한국 사회에서는 잘 묻지 않는 질문이지만, 재난 이후에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 "오늘 몸 상태가 어떠냐, 마음 상태 어떠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뭔가 대단하지 않게 심상하게 물어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다경님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원래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오히려 비관적이 되었다. 너무 큰 문제라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민대응단 활동에서 그는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들을 만났다.

"그때는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 오히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걸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비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진심인 분들을 너무 많이 뵈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시간을 내어오는 시민들, 이주민들을 생각해 무언가를 챙겨 오는 사람들, 주말 이틀을 내어오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항상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뭔가를 챙겨 오시거나 그 시간을 주말에 이틀 동안 내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정소연님은 시민대응단 활동의 의미를 "200%"라고 말했다. 혼자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함께할 때 파급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기 지역이 아닌 곳을 내 일처럼 여기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전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다른 지역이잖아.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아가는, 일회성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활동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



1

1 시민대응단이 임시대피소인 마을회관
청소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이 될까"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활동이 끝날 때
쯤에는 "작아도 가지 않는 것보다 가는 것이 낫다"라고 느끼게 된 것.
처음에는 재난을 보러 갔다가, 활동이 끝날 때쯤에는 재난 이후의 삶
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시민대응단이 활동을 통해 얻
은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기후재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는 않는다'**

시민대응단 활동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후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탄소 배출량, 평균기온, 해수면 상승 같은 말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다. 타버린 사진과 웃이었다. 다시 사야 하는 농기계였다. 반납하거나 사야 하는 임시주택이었다. 얼어버린 수도와 사용할 수 없는 세탁기였다.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3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묘목이었다.

정민지 님은 기후재난 속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 집이 있고 없고 여자 남자이거나 뭐 에어컨이 집에 있는가 없는가도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기후재난이 되게 많은 차별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그 피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재난이 뭔가 모두에게 다 같이 다가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기후재난을 통해서 누가 더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는 것 같아요. 기후재난은 이런 부분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세상에 보여 주는 것 같아요."

66

기후재난을 통해서 누가
더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는 것 같아요

99

66

그냥 어떤 보상적인
돈 문제를 떠나서
이건 사람 살고 사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99

이정연 님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그는 기후재난이 단순히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 "기후재난이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뉴스는 사고 당시만 보여 준다. 하지만 현장에 가면 그 이후가 보인다. 보상 문제, 가족관계, 트라우마, 주거 문제, 생계 문제. 그리고 그 영향은 평생 남을 수도 있었다. "보상적인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가족들 간의 관계, 그리고 트라우마도 남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평생 남잖아요.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자꾸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촉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후재난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로 보게 되었다. "그냥 어떤 보상적인 돈 문제를 떠나서 이건 사람 살고 사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정소연 님은 환경 강사였지만, 이전에는 "환경 문제"를 말했지 "기후가 재난이다"라는 감각까지는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했다. 활동 이후 그는 달라졌다.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그거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입을 못 떼던 사람이 기후재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정말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다경 님은 기후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이재민들이 공통적으로 친구, 가족, 마을회관, 함께 밥 먹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생각보다 인적 자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친구 얘기였거든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 이런 것들이 기후재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기후재난 대응은 집을 다시 짓는 일만이 아니다. 마을의 관계를 다시 잇는 일, 말할 수 있는 자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와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은영 님은 글로만 보이는 지식이 사람의 삶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글로만 보여지는 지식이 사람의 삶에 다가 아니구나를 많이 보게 되면..." 서류와 수치와 발표자료는 재난의 일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겪는 재난은 문서 바깥에 있다. 누가 밤에 잠을 못 자는지, 누가 수도가 얼어 씻지 못하는지, 누가 마음을 열다가 다시 말을 삼키는지는 현장에 가야 보인다.

이다경 님은 언론이 주목하는 시간보다 이재민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언론이 주목하는 거에 비해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길고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까...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시민대응단은 바로 그 알 길이 없는 시간을 기록했다. 행정의 "복구 완료"라는 말 뒤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재난, 각자의 임시주택으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되는 재난을 보았다. 그리고

66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99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대응단이 현장에서 배운 기록의 태도 -

**‘우리는 단순히 이재민들의 말동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후재난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되려 갔다’**

시민대응단은 처음에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인지, 인터뷰를 하러 가는 것인지, 마음을 돌보는 것인지, 자료를 만드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활동을 반복하며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정소연님은 시민대응단의 목적이 케어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이재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따뜻한 관계와 작은 돌봄이 생겼지만, 활동의 핵심은 그 상황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는 일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케어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민대응단은 전문 심리치료사가 아니었다. 행정기관도 아니었다.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이재민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 남지 않도록, 그것이 기후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로 워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한 현장 방문에서 시민대응단은 이 기록 활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재민들이 무엇이 힘들지 직접 오래 듣고, 그것이 자료가 되어야 나중에 정부와 사회가 실제 어려움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문제 같은 거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민들이 뭐가 제일 힘들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요… 큰 밑바탕 자료, 사실은 이게 자료가 아예 없어요.” “자료가 없다”는 말은 중요하다. 재난 이후 사람들의 심리, 관계, 생활, 주거, 회복의 어려움은 제도 안에서 충분히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고통은 정책이 되기 어렵다. 시민대응단은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그러나 기록은 쉽지 않았다. 인터뷰라는 형식이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질문을 반복당한다고 느꼈고, 어떤 사람은 설문을 하면 그때 생각이 더 난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민대응단은 질문지를 들고 가더라도 질문지대로만 행동하지 않았다. 함께 김장을 하고, 사진을 고르고,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드리고, 과메기를 먹고, 게이트볼 이야기를 하고, 가족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바꾸는 시간을 보냈다.

한 이재민의 집에서는 선물을 풀고 핸드폰 케이스를 맞춰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재민 분은 "내가 잘못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라고 했고, 시민대응단은 "잘못 대답한 거 없어요"라고 답했다. 기록은 정답을 받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기 삶을 틀리지 않게 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한 이재민과의 만남에서는 서명을 받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몸이 아프고, 기분이 오락가락했다. 시민대응단은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다가, 그가 불편해하면 다시 방식을 바꿨다. "어머니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라고 말하며 먼저 자기 그림을 그렸다. 활동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조정의 시간이 관계를 만들었다.

어떤 이재민의 집에서는 인터뷰가 과메기 한 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손주가 하는 과메기 이름을 알려 주고, 먹는 법을 설명하고, 시민대응단에게 음식을 내어주었다. 시민대응단은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가 밥상 앞에 앉았다. 그 순간 기록자는 손님이 되었고, 이재민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대접하는 주인이 되었다.

이 장면들은 시민대응단이 배운 기록의 태도를 보여 준다. 재난 피해자를 피해자로만 보지 않는 것. 질문보다 관계를 먼저 두는 것. 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드는 것. 그리고 이재민이 가진 삶의 힘과 존엄을 함께 기록하는 것.

시민대응단이 시민에게 전하는 한마디 -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시민대응단이 이재민의 삶을 대신할 수 없었다. 집을 다시 지어 줄 수도 없었고,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타버린 사진과 농기계와 오래된 물건들을 되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갔다. 만났다. 들었다. 적었다.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혼자 듣고 끝내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

재난 이후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은 관심이다. 뉴스는 다음 사건으로 이동하고, 행정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복구가 됐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 임시 주택의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잠 못 드는 밤은 이어지고, 다시 심은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3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타버린 집터와 새로 옮겨갈 땅 문제는 아직도 삶의 한가운데 남아 있다.

정소연님은 시민대응단 활동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자기 지역이 아닌 곳을 내 일처럼 여기고 계속 찾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시민대응단이 보여준 작은 변화였다. 이다경님은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이후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 들어가야 하고, 그 관심이 더 넓어져야 한다. 김은영님은 한 사람의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백 명, 천 명, 만 명의 진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증언집을 읽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재난 이후의 삶을 끝까지 보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지역의 재난 기록을 읽고, 나누고, 질문하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의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임시주거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지, 심리 회복 지원이 충분한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 요구하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기후재난이 누구에게 더 가혹한지,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방치되는지 살피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이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재민의 증언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재난 이후의 삶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민대응단의 증언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그 삶을 혼자 두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벽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시민대응단도 그랬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왔고,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왔고, 누군가는 내가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을 안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다. 움직였기 때문에 보았고,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민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부름은 우리에게 도착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불로, 어떤 사람에게는 폭우로, 어떤 사람에게는 폭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잠 못 드는 밤과 임시 거처의 불안으로 와 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 뉴스가 떠난 자리에 관심을 남기는 일, 서류에 없는 고통을 사회의 언어로 옮기는 일, 그리고 다음 재난 앞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묻고 요구하는 일. 그것이 시민대응단이 우리에게 남긴 행동의 문장이다.

불이 꺼진 뒤에도,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 복구라는 말이 사람의 삶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기후재난을 겪은 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뉴스가 떠난 자리에 시민이 남아야 한다. 기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인포그래픽

산불이 꺼진 뒤에도,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덕 산불 이재민 12인의 삶을 기록한 시민대응단의 5개월 여정



총 활동 기간

 **5** months

이재민들과 함께한 시간

 **240** hours

이재민 인터뷰

 **12** people

누가?

소방관도, 공무원도 아닌

보상금을 결정할 권한도, 집을 지어 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이유로 모인 시민들입니다.



대학생



주부



환경교육 시민



지역 활동가



그린피스 후원자

왜?

저마다 다른 출발점

뉴스 이후를 보고 싶어서

불이 꺼진 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기후재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어서

할머니 집 창문 밖 산이 활활 타고 있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생명 보살핌의 마음으로

평생 하고 싶었던 생명 보살핌. 사람들이 평화로웠으면 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싶어서

스펙이 아닌, 진짜 사람을 마주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냥 궁금해서, 관심이 가서

거창한 사명감 없이도 호기심과 직감이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5개월의 여정

첫 만남

**조심스러움과
두려움**

대학생인 내가 감히 도움이 될까? 내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기대보다 염려가 컸어요. 그러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관계 형성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다**

이재민들이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반겨주고, 음식을 내어줬어요. 처음 짧게 답하던 분이 두 번째에는 꼭 안아 주며 "감자 켈 때 와야지"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아쉬움과
연결**

"언제 또 오냐",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무뚝뚝하던 분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냥 질문하러 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배운 것

기록의 태도

질문보다 관계 먼저

과메기를 함께 먹고, 돌을 보러 가고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
온전히 수용하는 기록**

사진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

농사 짓고, 돌을 모으고, 꽃을 좋아하는 삶 전체가 있었습니다.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

모든 것을 묻는 일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달라진 시선

기후재난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동 전

다른 사람 이야기, 뉴스 속 피해 규모, 보상금액

활동 후

잠 못 드는 밤, 타버린 사진과 옷, 반납해야 할 임시주택, 3년을 기다리는 묘목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도움이 될까" 걱정하며 갔던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보길 잘했다고.**

불이 꺼진 뒤에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세요.

임시주택에서 사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 한 번쯤 궁금해해 보세요.

기후재난을 겪은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기후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될 수도 있다."

—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영덕 지역에 발생한 산불만이 기후재난은 아니다. 산불과 개발로 사라진 동식물들, 극심한 가뭄과 홍수, 침수되고 붕괴되는 마을, 들끓는 바다, 사라지는 해조류, 집단 폐사하는 물고기,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명백한 기후재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재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난의 해결 방안을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일이다. 기후재난의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일상을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역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은 집과 생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 함께 살아온 관계, 서로의 안부를 묻던 습관, 마을을 지탱해 온 공동체의 감각까지 흔들어놓는다. 시민대응단의 증언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들은 재난 이후 사람

들이 실제로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지원이 삶에 닿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끊어졌고 어떤 관계가 다시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듣고 기록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재난 대응은 불을 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집을 다시 짓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완성되어서도 안 된다. 복구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 행정과 사회는 계속 물어야 한다. 이재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불이 꺼진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도 불이 꺼진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을 겪은 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뉴스가 떠난 자리에 시민이 남아야 한다. 기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신안리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후재난 이후의 삶을 견뎌내고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매섭게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증언집이 말 그대로 '재난을 살아내는 중'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재난을
살아내는 중
입니다

증언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분들

강다영 강동욱 강신우 권오현 김겸 김미애 김소연 김소희 김옥 김원태
김은선 김은영 김정현 남충우 박순옥 박시원 박현빈 방철환 백승연
서혜경 송순영 송현옥 신경준 신훈지 안선영 여영화 영실 오초록
윤미로 윤정일 이명진 이상현 이수화 이종은 임국희 임미정 장미애
장일 정소연 정해관 정혜경 정호상 조문형 최월순 하수민 홍인숙

증언집을 펴내는데 함께 한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강병찬 김도희 김민주 김성애 김은선 김은영 김진성 김현서 맹소영
모수현 문유빈 박경희 박유빈 박정원 박지현 서교금 서진철 심하림
양동대 올렉산드라 데니숙 원근 페리 이강현 이다경 이정연
전마루한 정민지 진익준 최인정

증언집을 위해 현장에서 도움주신 분들

강명권 권용걸 김광현 김상덕 김인식 유정 이동환 장동현 전소영

재난을 살아내는 중 입니다

초판 1쇄 발행일 2026년 6월 22일

지은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발행처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오픈업
기획 총괄 강성원 김선률 이선주
발행인 최동호

출판사명 오픈업
등록 제2024-000063호(2024. 9. 2)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95, 2층 A10호(봉천동)
전화 010-5107-2466
E-mail openusforearth@gmail.com
홈페이지 <https://openupbook.com>
디자인 오픈어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전화번호 02-3144-1994
E-mail greenpeace.kr@greenpeace.org

ISBN 종이책 979-11-24379-28-8 (03330)
전자책 979-11-24379-29-5 (05330)

©2026,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오픈업

오픈업

- *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그린피스)에게 있으며, 출판권은 오픈업에 있습니다.
-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본 도서에 사용된 그린피스 로고 및 명칭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의 승인하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을 바꾸는 기록

불은 하루 만에 마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복구는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맞았고, 절차도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어디에도 사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 100일 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과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재난에서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